

建築士

図

K.I.R.A

vol. 416

2003

u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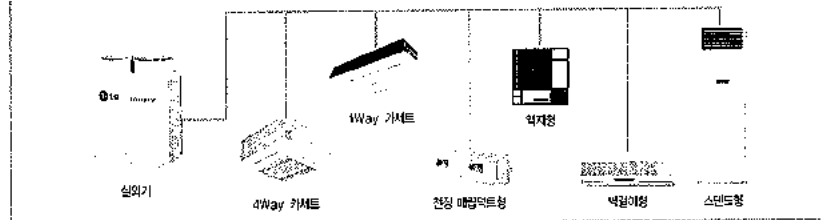
전기료도 공간도 멀티로 절약

첨단 시스템에어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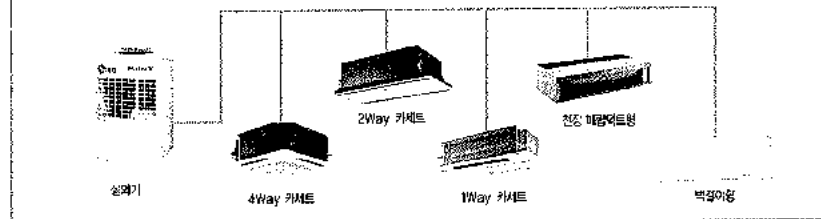
MULTI V™

한 대의 실외기에 접속되는 냉매 배관을 단배관으로 직렬구성한 인버터 멀티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탁월하며, 설치가 편리하고 설치 비용의 절감은 물론 다양한 실내기를 자유롭게 연결하는 효율적 배관 구조의 시스템입니다.

LR 시리즈 (냉방전용/냉난방 겸용)



LM 시리즈 (냉난방 겸용)



공간 절약과 에너지 절약의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별도의 실내기 설치 공간 및 기계실이 필요 없고, 초절전 인버터 멀티 시스템을 적용하여 기존 냉난방 시스템 대비 최고 32%까지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ESCO자금 지원 대상 제품)

빠르고 강력한 인버터 냉난방 시스템

강력하고 유연한 인버터 압축기 채용으로 $\pm 0.5^{\circ}\text{C}$ 의 미세 온도제어와 1.5배 빠른 회속 운전은 물론 영하 15°C 혹한기 난방도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설계/설치가 가능한 효율적 배관구조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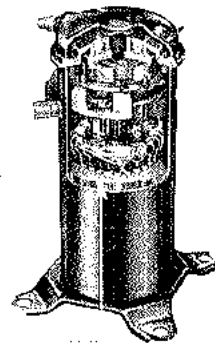
5~30Hp의 실외기 용량, 다양한 실내기 기종 및 빌딩에 적합한 장배관 시스템(최대길이 100m/고저차 50m)으로 설치가 자유롭고 설치가 간편합니다.

편리하고 다양한 개별/중앙 제어 시스템

실내기 개별제어/그룹제어/중앙제어/PC제어/인터넷 제어/적산전력 분배시스템 등 다양하고 편리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영하 15°C 이하 혹한에서도 우수한 난방능력

실외온도가 -15°C 까지 내려가더라도 실내기 토출온도가 40°C 이상을 유지하여 정상난방이 가능합니다 (한랭지향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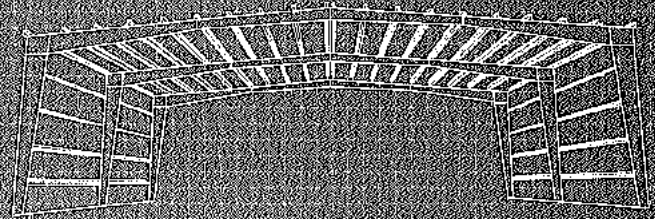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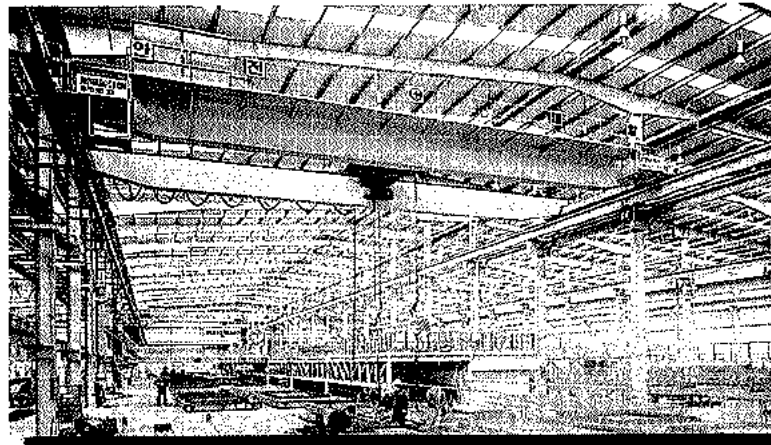
Inverter Motor

국내최초 인버터 단배관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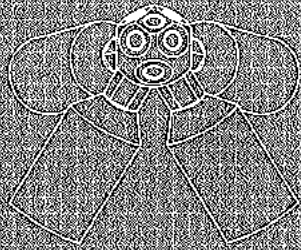
• 건설사 영업팀 02)2005-3052 • 강남 02)2005-3596 • 강북 02)727-4183 • 경기 031)267-0873 • 인천 032)321-9162 • 호남 062)510-5842 • 충청 042)388-0633
• 부산 051)807-3242 • 경남 055)284-7494(제주도함) • 경북 053)257-0808 ※ 인터넷 홈페이지 www.systemaircon.com 또는 www.whisen.com

세계적인 한맥의 첨단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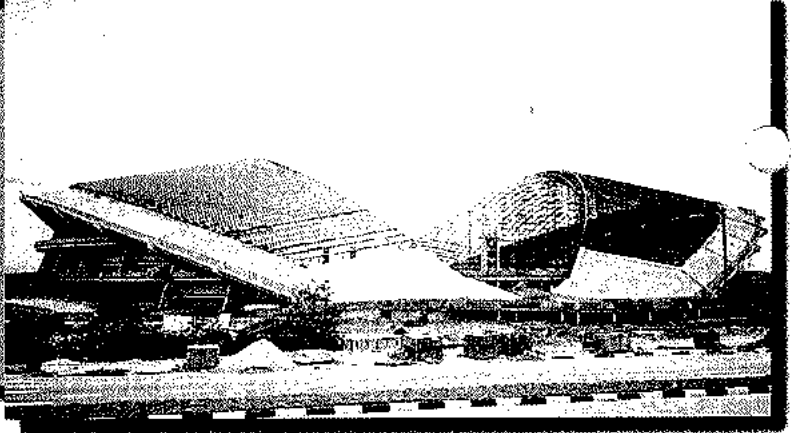
P.E.B & Space Frame



- P.E.B 용도 : 공장, 물류창고 등
- 주요사례 : 육군생리장 83개공장,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나우중공업,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태극화학공장, 중국MOBILE석유, 베트남HUY-HOANG공장 등 국내외 800여개소



- Space Frame 용도 : 체육관, 공항, Dome 등
- 주요사례 : 말레이시아 Shah Alam 종합경기장, 인도네시아 Dome, 일본 Ogawa, 미국 Lajeune Center, 대만 타이베이 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신철사, 극동방송경기장 등 국내외 1,000여개소



지난 20여년간 특수철구조물만을 개발하여온 한맥기술진은 Computer Software를 응용하여 3차원 구조역학의 P. E. B(Pre-Engineered Building System)와 Space Frame System을 자체개발, 대규모 무주공간건축을 가능하게 하였고, 기존 철구조물에 비하여 30% 원가절감은 물론 현장조립공법으로 공기단축을 실현하였으며, 연간 7만여톤을 제작·시공할 수 있는 대규모 자동화 생산설비를 갖춘 Asia 최대의 특수철구조물 Maker로 외관이 미려한 혁신적인 철구조물을 세계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술영업상담 (02)783-9999

기술제휴 :  PASCOE BUILDING SYSTEMS, INC.

FOR MORE THAN **50**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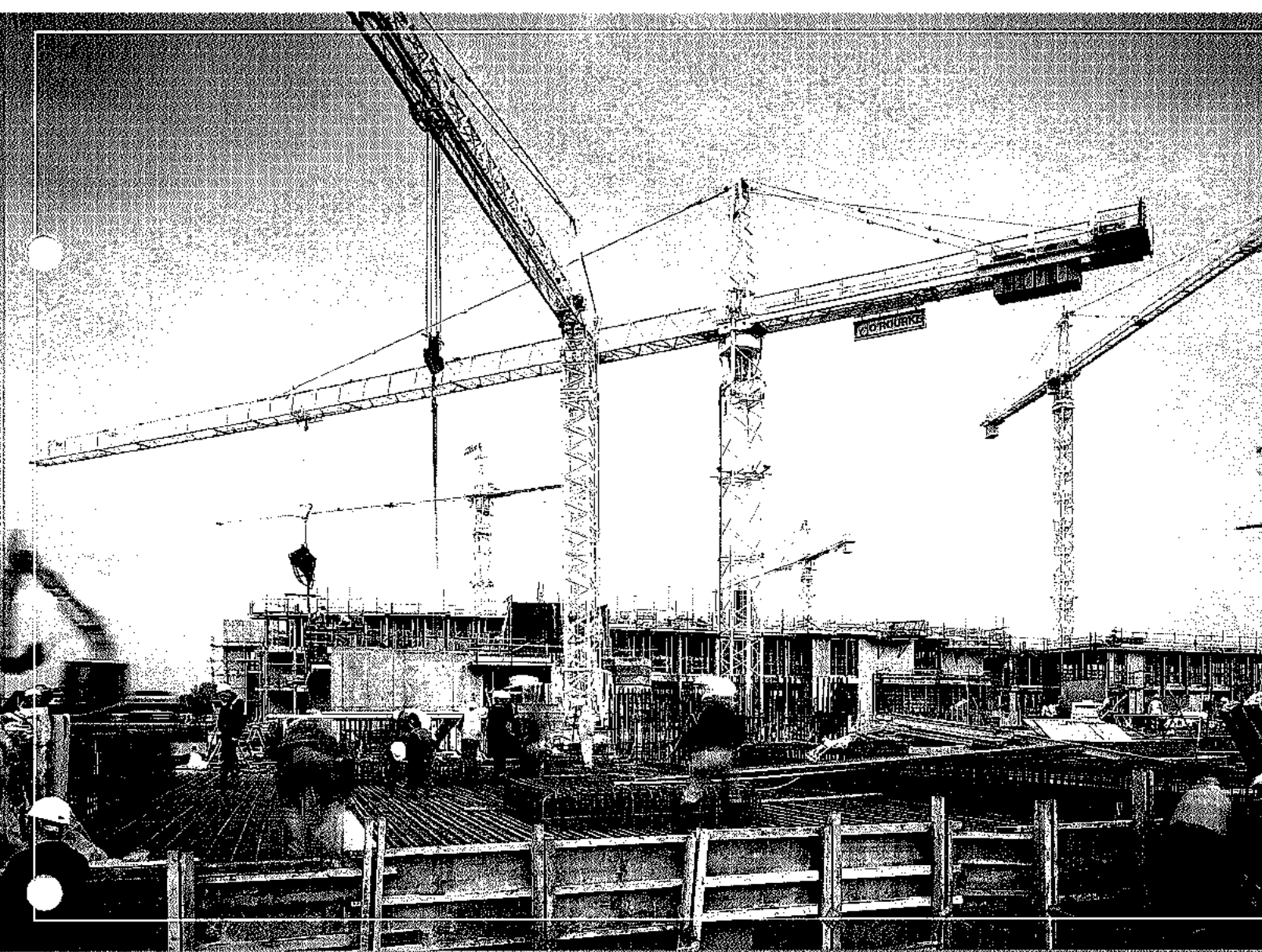


특수철구조물의 개척자

한맥重工業株式會社
HANMAEK HEAVY IND. CO., LTD.

-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B-1 나-707
TEL: (031)499-0114(代), FAX: (031)498-0511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1-49(선기빌딩 4층)
TEL: (02)783-9999(代), FAX: (02)785-0030

<http://www.hanmeak.co.kr>



건 축 자 금 대 출

■ 대출대상 : 제한없음(공사진척도 50% 이상 된 건물에 우선 대출됩니다.)

■ 대출금액 : 2억원 이상, 상한금액 제한없음

■ 대출기관 : 시중 금융기관(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대출

■ 그 밖의 대출상품

- 부동산담보대출
- 경매취하자금대출
- 하자정리대출
- (근)저당권부 채권 담보대출
- 경락잔금대출
- 부동산매입자금대출
- 건축관련 Project Financing

(주)한성브릿지

TEL : 02-535-9773 FAX : 02-535-9774
Mobile : 018-359-1472 (담당 : 이동욱)

세 · 계 · 최 · 초 · 의 · 독 · 자 · 모 · 델 · 로 · 대 · 한 · 민 · 국 · 을 · 대 · 표 · 하 · 는 · 주 · 차 · 기 · 가 · 되 · 겠 · 습 · 니 · 다 .

스카이파크

SKY PARK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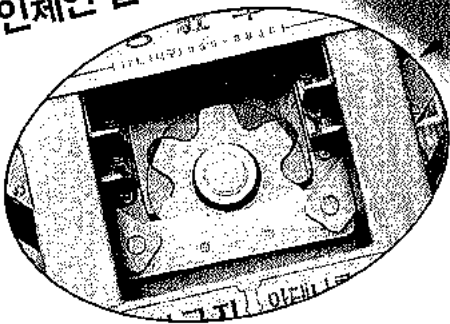


10년이상 쓸 수 있는 주차장치
“자신있습니다”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신을!!

“세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 슬림형”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접속구동의 新메커니즘



■ 이 렇 게 다 릅 니 다

- 엄청나게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었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인터넷 주소창에 '주차'를 입력하십시오.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자재정보(www.Archidb.com)의 '주차'를 검색하십시오.

☞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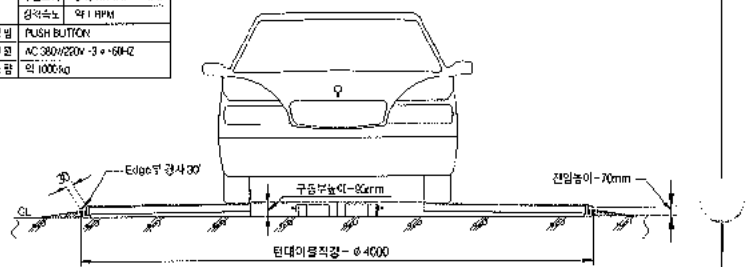
■ 사양 (뉴그랜저급 진입 가능)

모 델 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 (最小)	주차기 길이 (最小)	소요높이 (最小)
SKY PARK-5	5 대	4570	6090	6830
SKY PARK-6	6 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 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 대	4570	6090	9380
SKY PARK-9	9 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 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 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 대	4570	6090	13060

신제품 지상설치형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0mm!

명	상	상
수	문	문
구	구	구
조	조	조
인	인	인
자	자	자

실용신안등록 제0233726호



본사·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 TEL : (053)956-8838(대)
- 전국무료전화 : 080-567-7788
- 서울A/센터 : (02)333-4448
- p.p : 011-507-8838
- E-mail : cgp210@kornet.net
- 부산 A/S센터 : (051)784-6721

디지털 프론티어 - 삼성

건축사의 신용, 대출名家의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보험으로 쌓은 신뢰, 대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객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
이젠,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도 삼성생명과 상담해 주세요.

내일을 위한 희망설계 - 삼성생명 대출

삼성생명 대출 특선!!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대출자격_ 건축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대출금액_ 1천만원~1억 5천만원

예상금리_ 연 6.4%~7.2%

기 간_ 1년~5년(수시상환, 연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대출기관_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 창업자금 특별상담
- 담보대출 : 최저금리, 설정비 면제
- APT 소유자, 구입예정자 : 6.0%~7.0%(10년, 15년, 20년, 30년형)
-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라이트 플러스 대출 : 최저 6.0%
- 스피드 학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최고액 대출

삼성생명
Seed Bank

최저의 금리

신속한 처리

상담문의

삼성생명 강남 AM
Seed Bank

Tel_ (02)545-8853~4

Fax_ (02)545-4939

HP_ 011-9738-0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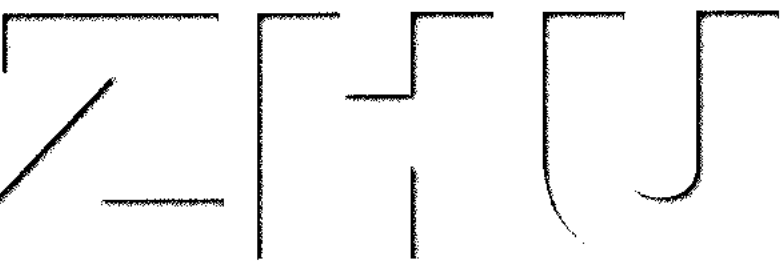
내일을 지키는 힘

SAMSUNG

LIFE INSURANCE

건축물의 가치를 생각하신다면,

ZHUAI STONE®



건축물의 가치는 단순히 설계상의 디자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건축가의 의도에 부합되는 색상과 질감이 시공 및 유지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주아이스톤®은 정제된 세라믹과 압축된 자연석을 선제 하게 형상화한 금형을 사용하여 자연석의 섬세한 질감과 색상까지 재현할 수 있으므로 어떤 설계에도 시공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최첨단 과학 소재로 귀사 건축물의 가치를 높여 드립니다.

이것이 요즘 수 많은 건축 자재 중 고급 건물에 주아이스톤®이 선택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자유로운 조형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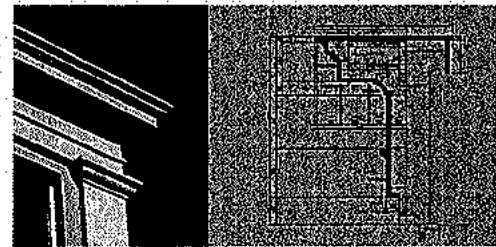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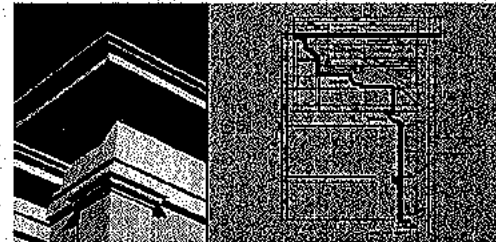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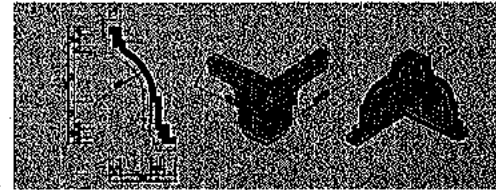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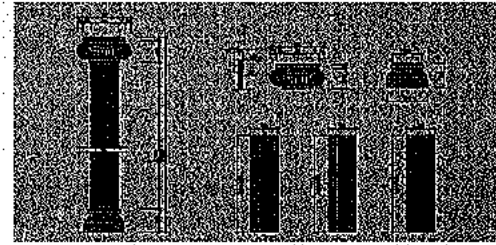
ZHUAI STONE®은 정제된 세라믹과 엄선된 자연석을 섬세하게 형상화한 금형을 사용하여 자연석의 섬세한 질감과 색상까지 재현할 수 있으므로 시공도면과 스케치 사진 등에 의한 어떤 형상의 설계에도 제한 없는 시공이 가능합니다. ZHUAI STONE®은 건물 처마의 길이가 3.5m 이상 대형건축물에 시공이 가능합니다. 천연소재의 색상 채움을 통해 자연스럽고 번질되지 않는 아름다움이 유지됩니다. 하중부담을 고려한 건축공법으로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 비해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완벽 견화적인 집단 과학 소재로 인체에 무해합니다.

유리섬유, 세라믹 등의 혼합재로서 석면과 알칼리에 의한 공해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방수가 가능하며, 세라믹과 같이 공기의 투과성이 있어 조형물 자체가 숨을 쉽니다.

백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완전불연성 특성을 통해 시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이 없는 고신장력을 갖고 있어 일반 건축 내·외장재와 비교시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일반 시멘트보다 3배 이상의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MOLDED WALLWORKS & 캐넌하우스 설계도

STONE

대리점 모집

상담문의 02) 785 1822



엔지니어용 웹하드는 따로있다! 엠큐빅

엔지니어를 위한 강력한 인터넷 웹디스크

엠큐빅(MCUBIC)만의 솔루션 - 다양한 엔지니어링 업무 지원 기능 제공 / 프로젝트 관리 기능 / 향상된 퍼포먼스의 웹스토리지서비스(Web Storage Service) / 확실한 데이터 안정성 보장 / 중단없는 서비스 / 방화벽(Fire Wall) 침입탐지 시스템 서버인증 등의 완벽한 보안체계

WWW.MCUBIC.COM

빠르고 편리한 도면 뷰어(Viewer)기능

전용 뷰어를 통해 AutoCAD파일을 웹에서 빠르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향후, Office 파일 및 다양한 CAD/CAM 포맷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운로딩 부스터 기능

다운로드 받는 파일이 클수록 다운로드 속도가 증가하여 사용자 네트워크의 최대속도까지 지원합니다. 가장 빠른 다운로드 속도 제공.

FIT's 서비스 기능

파일 업로드 후 협력사에게 확인 전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로드 시 바로 웹에서 문자 메시지와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Project) 관리 기능

고가의 별도 프로그램 없이 저비용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도구(Tool)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생성/프로젝트 참여자 등록/권한 설정 등의 엔지니어링 업무에 맞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엔지니어용 웹하드 [M큐빅] 특별할인 행사실시!

엔지니어링 전문 웹하드 M큐빅을 건축사님께
20% 할인된 가격에 서비스 합니다.
2003년 12월31일 이전 가입하시는 건축사님은
1GB당 월 7,400원에 전문 웹하드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M큐빅 PM 3GB를 일년 사용시]
PM 3GB (30,800원)*1년 = 369,600원
1년 장기결제 할인 10% = 332,640원
건축사 특별회원 할인 20% = 266,000원
* 1GB 당 월 7,400원에 공급

이제 AutoCAD 2004가 당신의 디자인 비즈니스 성공을 더욱 앞당길 것입니다.



- 빨라졌습니다 - DWG형식의 최적화로 인해 네트워크 상에서 작업 속도가 빨라졌습니다.(파일 열기 33%, 파일 저장 66%)
- 쉬워졌습니다 - 프로젝트 팀원 간 설계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효율적입니다 - 향상된 프리젠테이션 그래픽, Express tool, 외부 참조 변경 인지를 통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autodesk®

대 관 안 내

대한건축사협회

전시장

건축과 문화와의 만남을 위한 전시공간

Architect's Gallery

건축사협회 회관 1층에 문을 연 아키텍트 갤러리는 60여평(198㎡) 규모의 현대적 감각의 전시공간으로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최신의 조명시설과 이동식 중간벽체를 설치하여 전시규모 및 특성에 따라 원하는 공간을 개성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대관료(1일 7만5천원, 부가세 별도)로 건축인은 물론 관련단체나 학생,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분야 외에도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전시공간입니다.

건축인은 작품활동을 알리는 공간으로, 일반인에게는 건축과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대 관 문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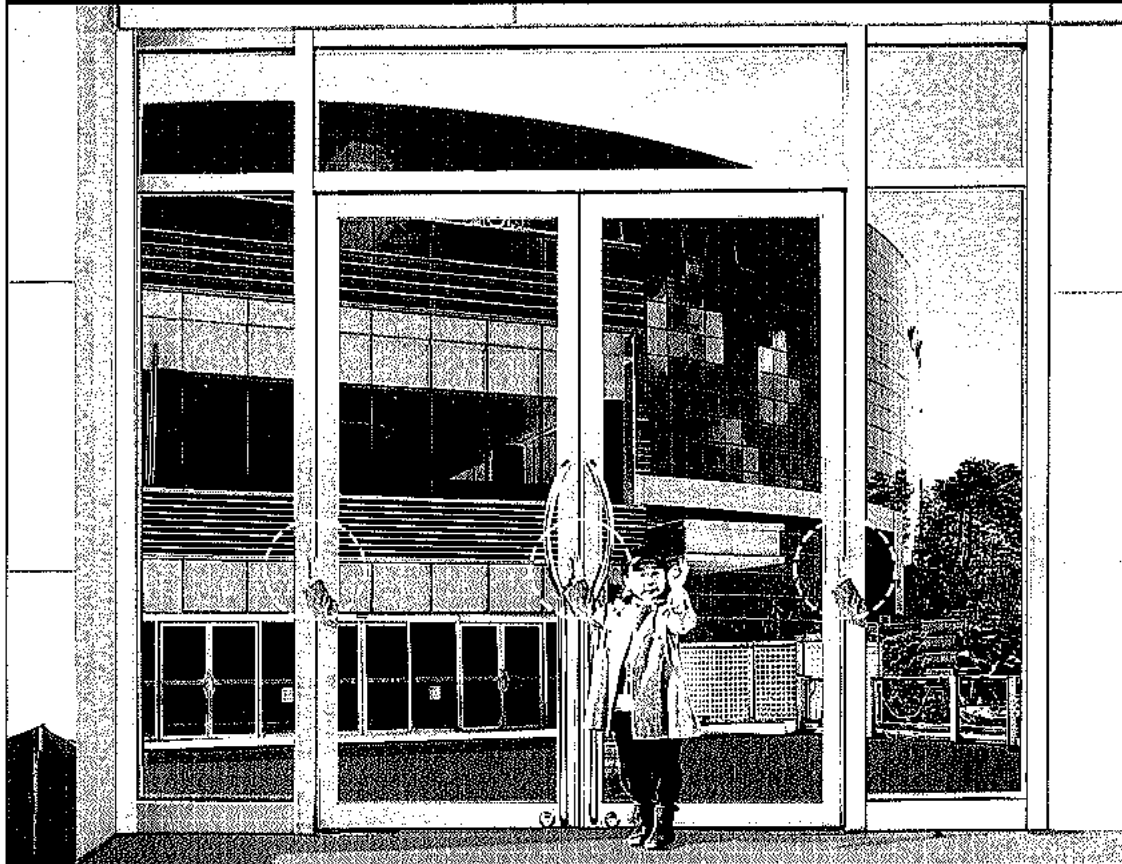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2번출구 150m지점)

Tel _ 02-581-5711~4 Fax _ 02-586-8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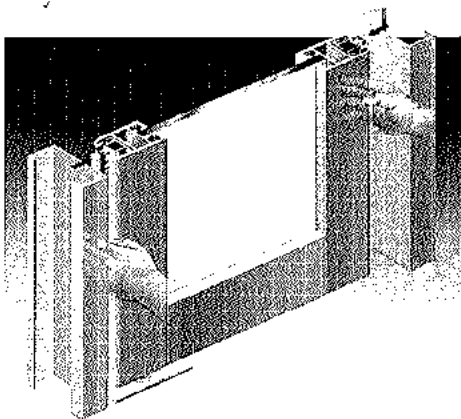


세이프강화도어

제조물 책임(PL)법에 의해 제작된 안전한 문, 세이프 강화도어! — 정우는 안전한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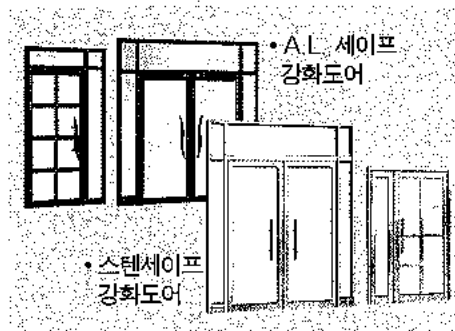


어린이 “손”을 보호하는 도어,
 유리 “문” 파손방지 및 에너지 절약, 방음, 방풍이 완벽한 도어!



단면 상세도

사용사에는 방풍, 방음, 단열이 완벽하고 손가락이 끼었을 시에는 이중케이스가 유연하게 작동하여 손가락을 보호하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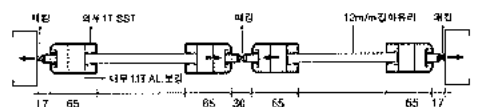


설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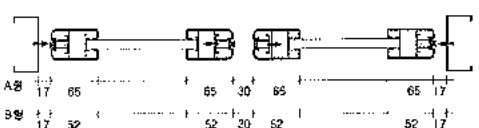
- 학교 • 관공서 • 종교건물 등
- 음식점 • 은행 • 아파트 • 빌딩
- 목욕탕 • 상가건물 • 유치원
- 백화점 • 병원 • 호텔 • 기타

평면 상세도 (홈페이지 설계 다운로드 참조)

□ 사용 상태도



□ 어린이 손가락이 끼었을 때 작동 상태도



기존의 일반 강화도어는 안전사고 및 에너지 손실이 많아 단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물가 자료집에서 삭제되었음)

※ 단가표: 한국물가 자료집 416p 참조

어린이 「손」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용내동 374번지
 전 화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 jungwoo9800@hanmail.net

벤처 기업 등록 업체



The Court House

26

32

38



〇〇〇소장을 〇〇〇건축사로 부름시다

우리 협회에서는 건축사의 위상제고와 상호존중을 위해 현행 〇〇〇소장으로 통용되던 호칭을 〇〇〇건축사로 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 및 상호존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인: 이세훈
편집기획: 김선양, 장양순, 김종복, 민승열, 박영순,
손기찬, 윤상기, 윤시덕, 이상림
취재·편집: 홍보편찬팀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호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 제이아트 (02)2269-7619
광고문의: 홍보편찬팀(이홍식 팀장)

컬럼	새 시대 건축은 우리의 힘으로	김승재	16
건축만평		유원재	19
회원작품	한성대학교 도서관	이상림 · 오성훈	20
	일산주택	김영수+배강희	28
	창원주택	이창훈	34
	달뜨는집	이신수 · 이충식	40
	신영빌딩	김동수	45
작품노트	The Court House	이상림	48
연재	공간 클럽 - 07	이재훈	54
기고	본 협회 현상설계를 바라보며	박영순	64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67
	현상설계		72
	해외잡지동향		86



Column

Expecting Our Own Architecture for Coming Age	Kim Seung-Je	16
---	--------------	----

Cartoon	Yoo Won-Jai	19
----------------	-------------	----

Works

Library of HanSung University	Lee Sang-Leem & Oh Seom-Hoon	20
Ilsan Residence	Kim Young-Soo & Pai Gahng-Hee	28
Chang-won House	Lee Chang-Hoon	34
Moon Rising	Lee Shin-Soo & Lee Choong-Sik	40
Sinyeong Building	Kim Dong-Soo	45

Design note

The Court House	Lee Sang-Leem	48
-----------------	---------------	----

Serial

Space and Rooms	Lee Jae-Hoon	54
-----------------	--------------	----

Feature

Observing the Institute's Design Competition	Park Young-Soon	64
--	-----------------	----

Architects' Plaza

Archi-Net	67
Competition	72
Overseas Journal	86

Publisher: Lee Se-Hoon

Assistant Editor: Kim Sun-Yang, Chang Yang-Soon,

Kim Jong-Bok, Min Seung-Ryeol,

Park Young-Soon, Son Ki-Chan,

Yoon Sang-Ki, Yoon Si-Deok, Lee Sang-Li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art)

새 시대 건축은 우리의 힘으로

Expecting Our Own Architecture for Coming Age

김승제 /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Kim Seung-Je

이제 우리들은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에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 한 가운데 서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건축도 새로운 장르가 기대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건축이란 사회적 산물이라 정의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살아온 근대사회와 근대건축의 모습을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 봄으로서 이제 새로이 펼쳐지는 21세기의 건축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20세기의 산업화 시대와는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건축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21세기의 건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등 궁금해진다.

근대란 1769년 증기기관의 개발에서 시작되는 물질적 혁명인 산업혁명과 1789년 반종교적이며 인간의 평등을 주장한 정신적 혁명인 프랑스 혁명에서 출발된다. 새로운 모던시대 즉 근대는 자유 주권재민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정신적 혁명에서 노동, 운수 등 생활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준다. 이러한 사회 조직의 변화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낳게 하였으며, 이 두 가지 커다란 정치노선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치체제로서 경쟁하듯이 서로의 유토피아를 향하여 질주하게 된다. 즉 정치적 재편성이 시작된다.

이러한 경쟁은 20세기 초기에 들러 2차례에 걸친 커다란 전쟁을 낳게 되며, 그 후 자본주의 국기를 대표하는 미국과 사회주의 국기를 대표하는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의 냉전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이러한 두 체제 시대는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드디어 1987년 독일의 통일로 시작된 소련의 붕괴는 사회주의의 패배와 자본주의 승리로 한 시대의 선을 긋게 된다. 이러한 냉전시대의 종말은 또 다른 시대의 출발을 예견하게 되는데,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격동의 한가운데 서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쟁 시대인 근대인 새 시대에서 건축은 어떻게 대응하여 왔을까. 건축 역시 예전의 양식건축 이념은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대중을 위한 기능주의 건축이라는 새로운 건축이념의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이론들이 정치적 영향과 함께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우리나라에도 근대건축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근대건축이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져왔던 이데올로기적 건축이라 할 수 있는데 아트 앤 크라프트 운동을 시작으로 아르누보, 세제션, 구성주의, 표현주의, 독일공작연맹 등의 여러 시도를 거치게 되며, 바우하우스라는 교육기관의 설립 그리고 근대국제건축회의(CIAM) 결성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근대건축은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Late Modern 혹은 Post Modern, 하이테크 등의 성숙단계를 넘어 그 모순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이제 근대건축의 한계가 온 것이며, 이는 바로 구시대의 청산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의미하게 된다.

사회주의의 몰락은 또다시 세계의 정치체제 재편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근대의 이념적 논리는 이제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의한 새로운 사회구조의 등장이 요구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건축 역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그 목표가 달성된 근대건축의 모습에서 생활과 의식의 변화에 따라 모순점이 발생하게 되고 근대건축이념은 이제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1980년대부터 시작되는 해체주의는 새 시대에 적응하려는 도전이라 볼 수 있다. 마치 19세기 말에 유행하였던 아르누보의 등장과 같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롭고 신비로운 건축의 모습으로 등장한 해체주의 건축은 현재 우리들의 마음을 충분히 자극시킨다. 하지만 해체주의의 근본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개념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멋있다. 단순한 유행인 듯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대변하여 주는 분위기를 느낀다.

이데올로기 건축이라 할 수 있는 근대건축을 다소 과장되게 정의한다면 「자기의 의식에 의해 세계를 파악하고 의식적으로 파악된 세계에 의미를 인정한다 라는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다. 때문에 근대건축은 국제건축(인터내셔널 건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근대건축의 이념 속에는 건축과 건축가의 관계는 너무도 밀접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건축이란 건축가라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전제가 있다. 우리들은 이것을 너무도 당연히 생각하여왔다. 그래서 건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철학을 가져야만하고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어왔다.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들의 건축이 그러한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이 시대에서는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려는 움직임이 눈에 보인다.

이제 건축의 이데올로기는 공동화 되어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건축가가 건축을 조종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데올로기라 한다면 이미 건축은 건축가의 손에서 벗어났다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데올로기는 사라지고 현상화된 건축과 건축가가 어떻게 서로 연관 지는 것이 좋을까하는 명제가 나타난다.

현재 50대, 60대 건축가들은 인류의 꿈을 건축으로 실현해 보려는 시대였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꿈을 크게 갖는 것이었다. 그 꿈을 건축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신의 손으로 실현할 것인가는 두 번째 문제였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이들은 다르다. 이전처럼 새롭고 보다 매력적인 꿈을 향하는 시대는 사라지고 있다. 그들이 창조한 꿈 가운데 무엇이 실현 가능한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추구하는 세대이다.

한국의 건축 문화는 한국의 건축가들이 이끌어 가고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에 대하여 좋은 건축물을 서비스해야 하는 의무와 명제는 항상 중요하다. 때문에 좋은 건축가가 많으면 좋은 건물이 많아지게 되어 도시나 마을의 모습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우리들의 도시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건축인들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우리는 산업화 시대인 근대를 자주적으로 흡입하지 못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서구의 근대문화가 들어오고, 근대건축이 뿌리내리게 된다. 때문에 건축이라는 장르에서도 서구문화에 대한 콤플렉스가 언제나 등 뒤에 도사리고 있음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다르다.

이제는 우리들도 해방이후 근대건축에 대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우리들만이 알고 있는 충분한 경험과 성과물을 가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예전과 같이 선진국의 건축이념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선진국의 이념을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건축을 우리의 힘으로 짚어지고 가는 능률한 모습을 기대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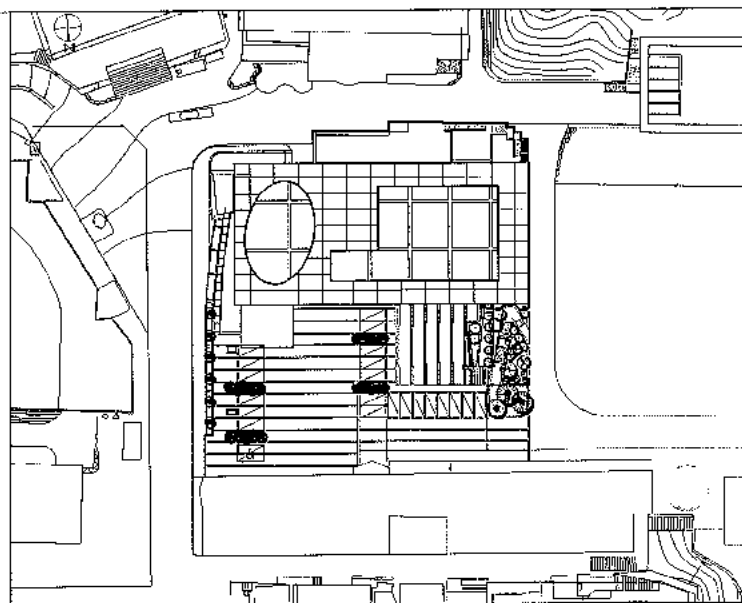
한성대학교 도서관

Library of HanSung University

이상림 · 오세훈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Sang-Leem & Oh Seom-Hoon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2가 389번지 외 19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교육연구시설
건축면적	1,543.66㎡
연면적	14,066.61㎡
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화강석 버너마감 THK30, 투명복층유리THK18
내부마감	수성페인트, 다채무늬도료, 무석면타일, 대리석 마감
건축주	학교법인 한성학원
시공사	(주)삼성물산 건설부문
설계담당	한승호, 김범준, 한준일, 이재훈, 김지형, 권시형, 김형수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박영채)



배지도

캠퍼스물

기존의 한성대 캠퍼스는 정문 앞의 학교의 상징인 삼학송이 있는 위치부터 운동장 끝까지 그 길이 200여미터 밖에 되지 않는다. 도심지의 대부분 학교처럼 경사지에 자리하고 있어 캠퍼스는 자연스레 다양한 레벨들을 갖는다.

이런 기존의 상황에서 삼학송이 있는 그 길을 주목한다. 학교 캠퍼스의 이벤트 중심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번 도서관과 연구동의 추가로 그 정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길을 중심으로 양쪽에 학생회관, 식당, 도서관, 전시실, 운동장 등이 들어서게 되면 이 길이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길을 중심으로 한 여러 공간적 체험, 즉 도서관과 학생회관 사이의 통과공간, 도서관 필로티로 얼핏보이는 본관과 도서관 사잇공간, 도서관 지하로의 선릉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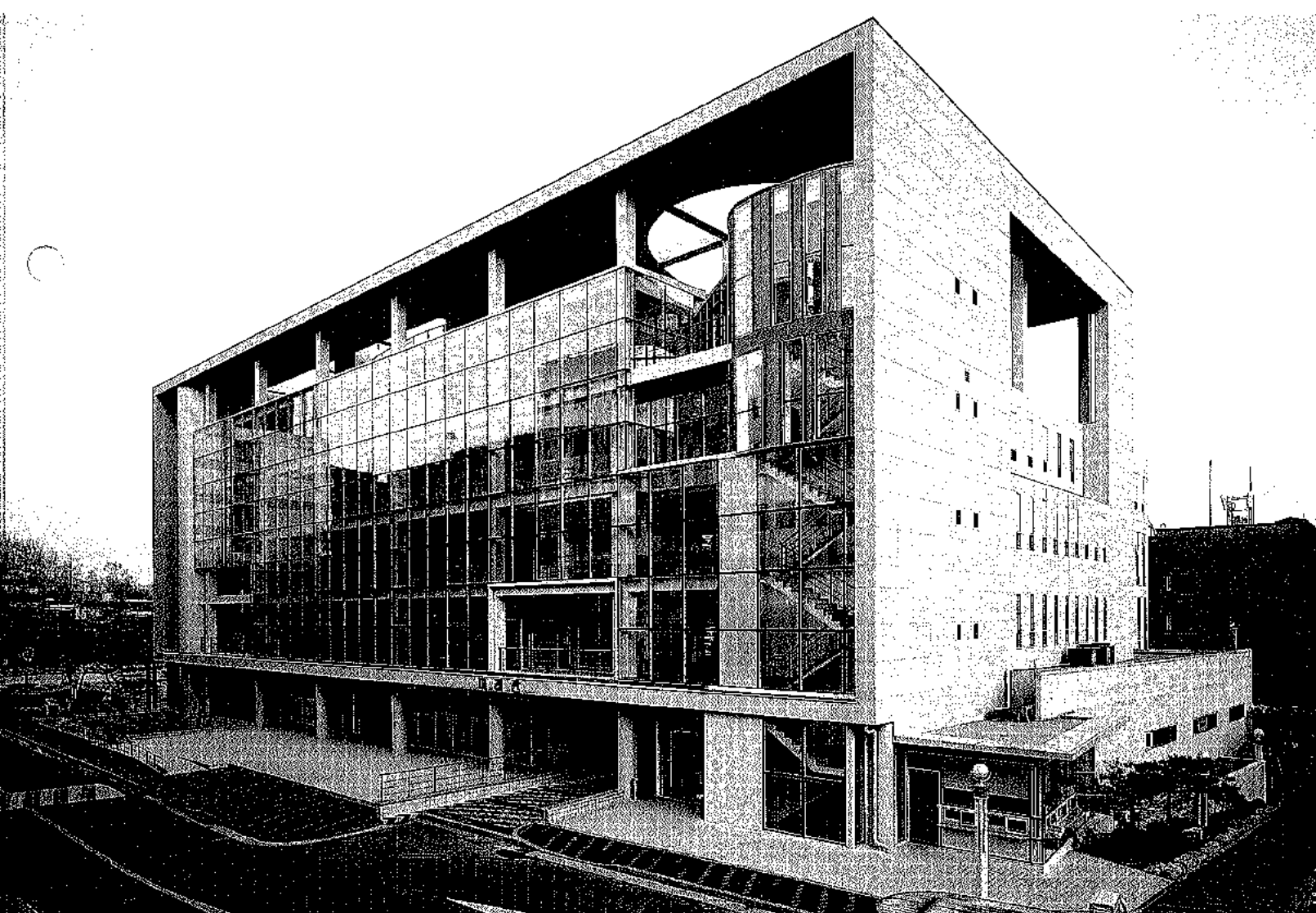
간, 연구동의 피로티 공간들, 연구동과 지선관 사이의 틈새공간 등으로 새로운 장소성이 생성될 것이다.

조직과 프로그램 - 박스 인 박스, 리니어코어(linear 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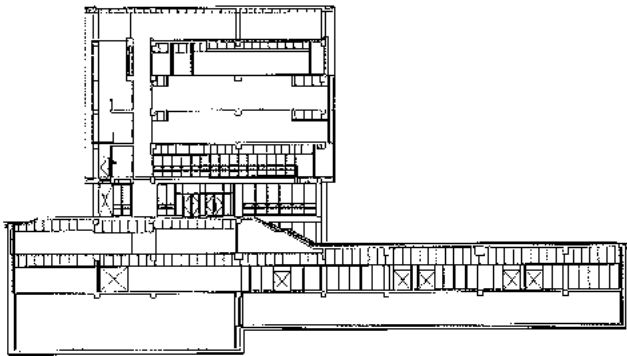
도서관용에는 자유열람실, 서고가 있는 일반열람실, 전자도서관, 박물관, 종합강의실 등의 대학공동시설에서부터 강의실까지 복합적이었다.

대학내에서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해석과 대지위치에 따른 캠퍼스물의 성격을 이 도서관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이 프로젝트의 디자인전략 설정의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성격을 잘 드러내는 장치로서 박스 인 박스(Box in Box)의 방법을 설정했다. 전체적인 틀로 설정된 두 마구리 면과 부분적으로 피로티나 셋백(set-back)을 통해 틀의 느낌을 강화시킨 2층 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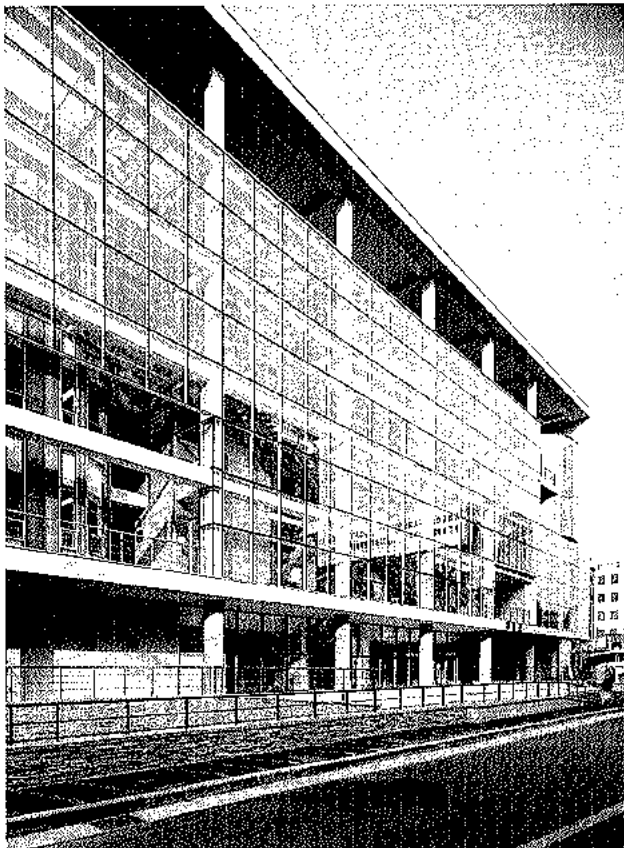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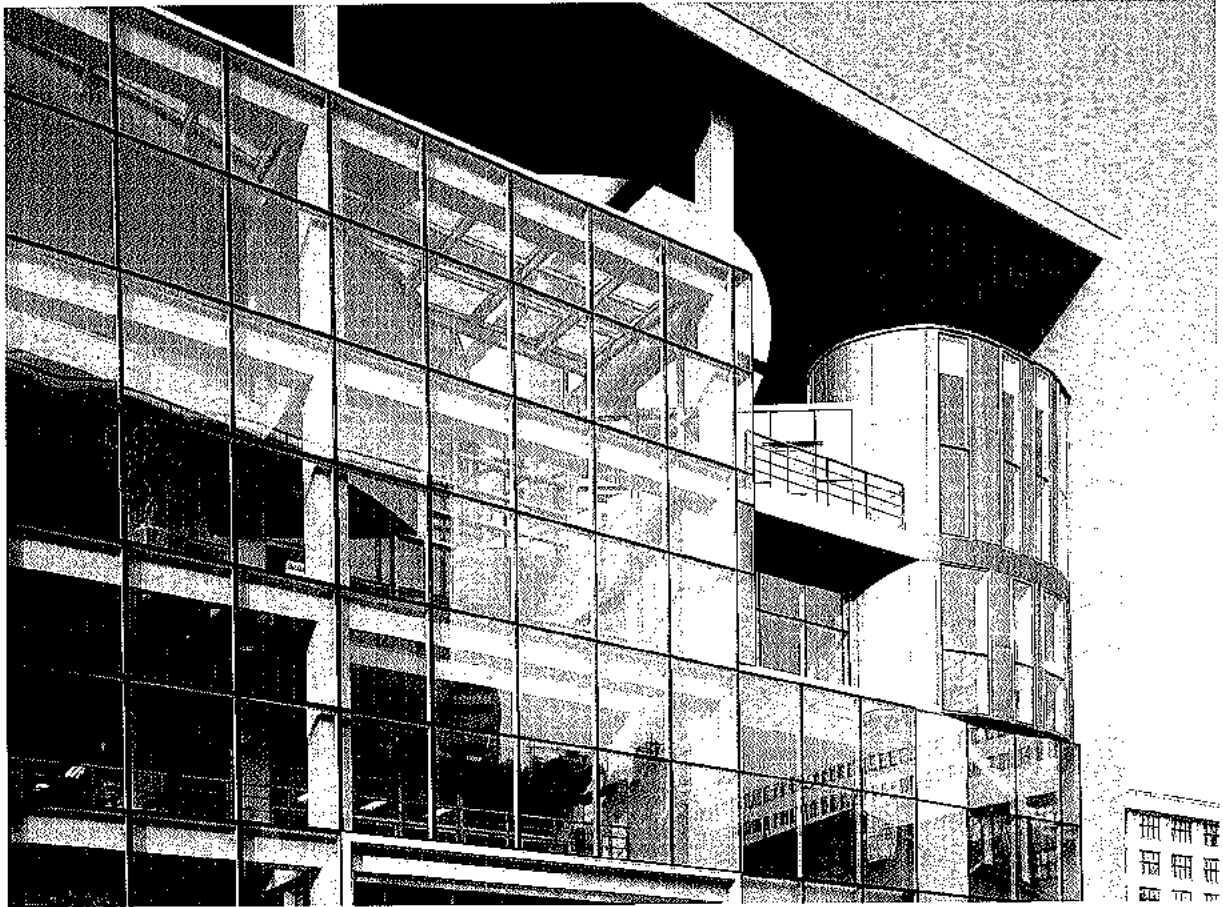
면은 화강석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그 속의 각각의 덩어리로서
 설정된 자유 열람실, 일반 열람실, 전자 도서실, 선형 공용 코아 등
 이 노출 콘크리트, 드라이빗, 복합화된 유리박스 등의 재료가 계획
 되었다. 동시에 동선의 흐름과 휴게, 화장실 등의 선형 공용 공간
 (linear core)의 다양한 공간적 변화를 통해서 도서관의 공간체험
 풍부하게 하고 주변 캠퍼스물과 시각적 교류가 일어나도록 계획하
 였다. 또한 선형 공용 코아 내부에 외기를 유입시킬 수 있는 환기장
 치를 하고 전면 유리벽의 표정을 최대한 단순화 함으로써 주 대상
 이 그 안쪽에 있는 장치들이라는 것이 읽히지도록 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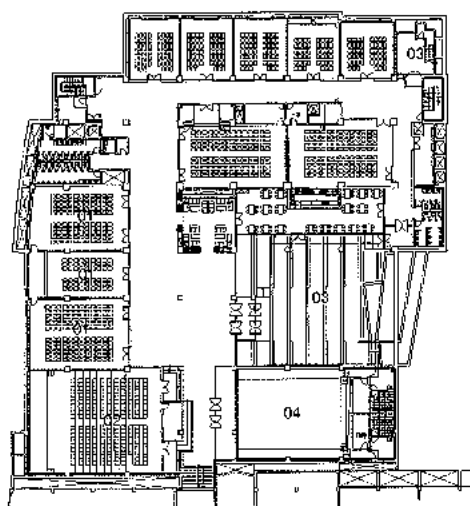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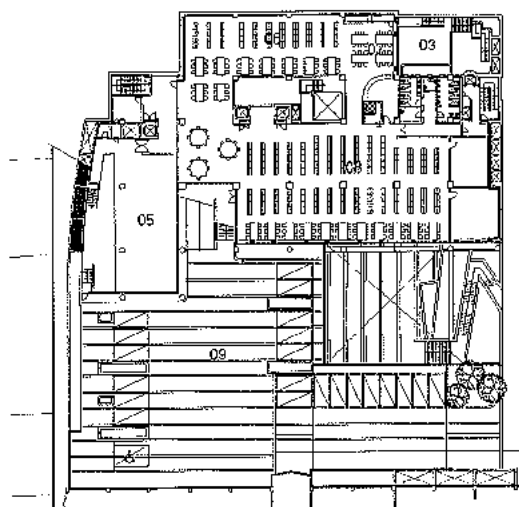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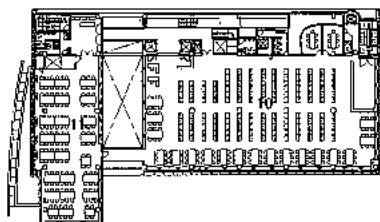


지하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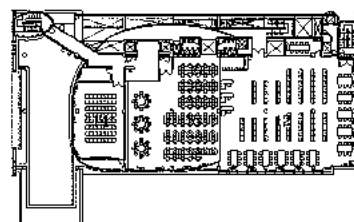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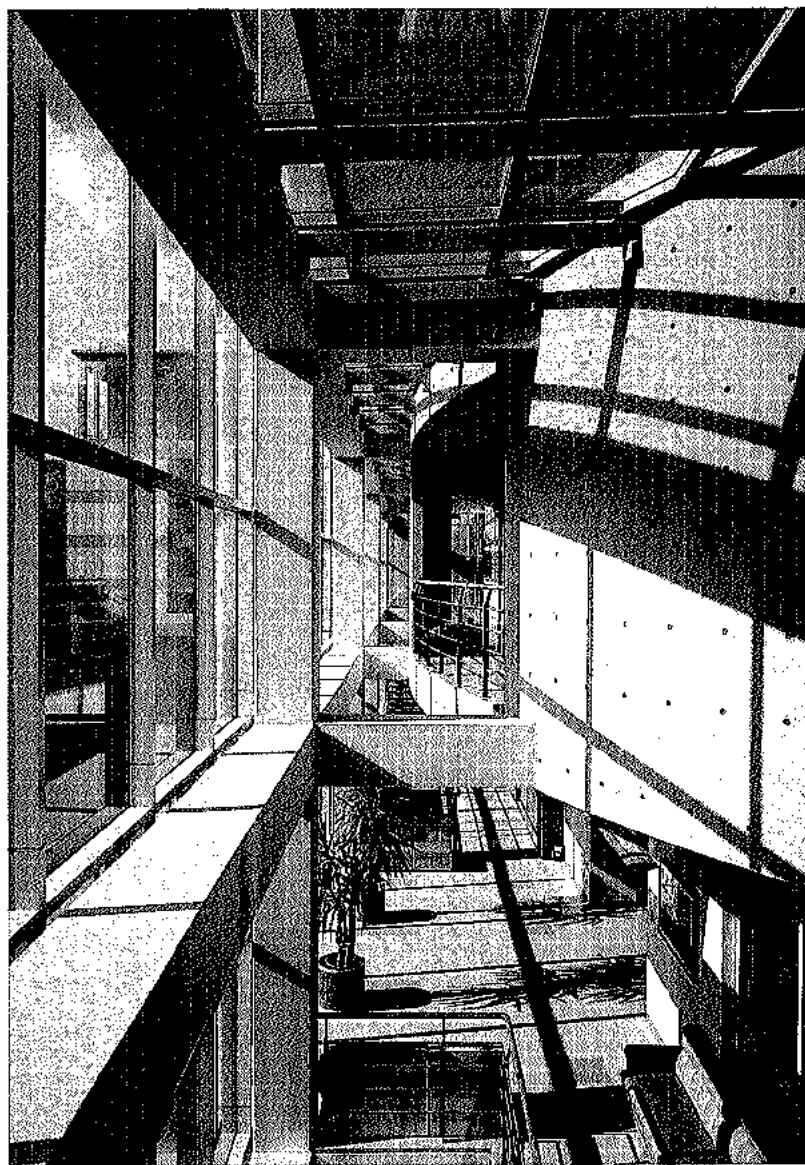


- 01_ 강의실
- 02_ 강당
- 03_ 전근경관
- 04_ 발레연습실
- 05_ 박물관
- 06_ 과제도서실
- 07_ 학위논문실
- 08_ 연속간행물실
- 09_ 광장
- 10_ 언론과확언광실
- 11_ 일반열람실
- 12_ 예술자료열람실
- 13_ 음악자료실/마이크로자료실
- 14_ 시청각실



3층평면도

6층평면도



일산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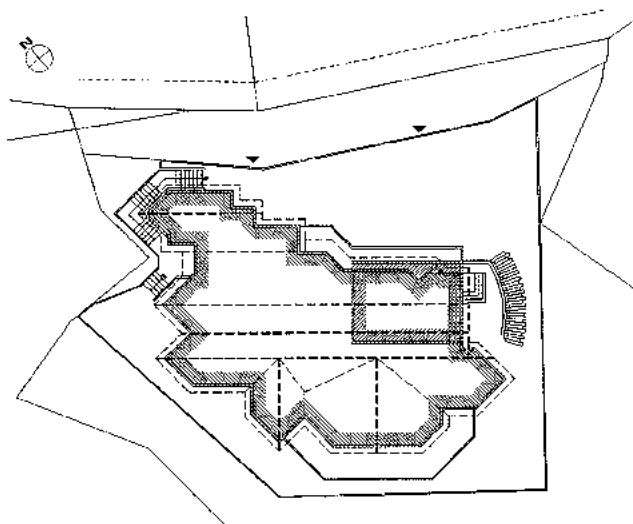
Ilisan Residence

김영수 / (주)민영종합건축사사무소 + 배강희 /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Designed by Kim Young-Soo & Pai Gahng-Hee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30번지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대지면적	714.0㎡
건축면적	256.92㎡
연 면 적	298.17㎡
건 폐 율	35.98%
용 적 륜	35.98%
규 모	지하 1층, 지상 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치장벽돌쌓기
내부마감	천정/ 석고보드, 위 실크천정지마감 벽/ 석고보드 위 실크벽지마감 바닥/ 구정마루
설계담당	임상학, 김가동, 이재훈, 조성진
구조설계	DSK엔지니어링(주)
설비설계	(주)기한엔지니어링
전기설계	신한건설(주)
시공회사	서평건설 대표:강혁수, 소장:이광훈
인테리어	서평건설 팀장: 강계선
건 축 주	이영국, 이후식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가족구성 그리고 건축주 의견

노모(90세)를 모시고 사는 클라이언트(60대 중반의 부부)와 큰아들 내외(40대 초반) 그리고 손자 3명 이렇게 모두 8명이 주 가족 구성원이다.

그 외에도 클라이언트의 출가시킨 아들, 딸, 손주, 며느리, 형제 분들의 식구등 때가되어 모두 모이게 되면 40~50 여명은 족히 된다고 한다 따라서 주택의 규모는 90여평 정도 침실은 6~7개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가족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었다.

대지의 규모와 현황

대지 현황은 현도로 측에서 6M 정도는 평탄하고 여기서부터 3M 의 고저차가 있는 경사 대지이고 또한 대지모양은 모서리와 각이 많이 주어진 각별형태이지만 워낙 택지규모(519평)가

넓어 오히려 대지조건에 잘 부합되는 다양한 디자인적 요소가 풍부해졌다고 생각이 들었으며 자연스럽게 계획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확신 하였다.

평면계획

평면구성은 Negative적(-) 평면계획을 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러나 이번 주택 평면계획은 Positive(+)형식의 평면구성이 요구 되었다 따라서 각 요소별(개체별)로 평면디자인을 하고 이를 대지모양에 맞게 평면구성을 요소별로 조합해 나가는 것이다 평면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모둠화 시킨 침실, 세면실과 욕실, 화장실 등을 퍼즐식으로 조합구성해 나가면서 얻어진 평면도가 이 주택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평면도에 각이 많아 바라보는 방향에서 모두 그모양이 다양성을 표현한다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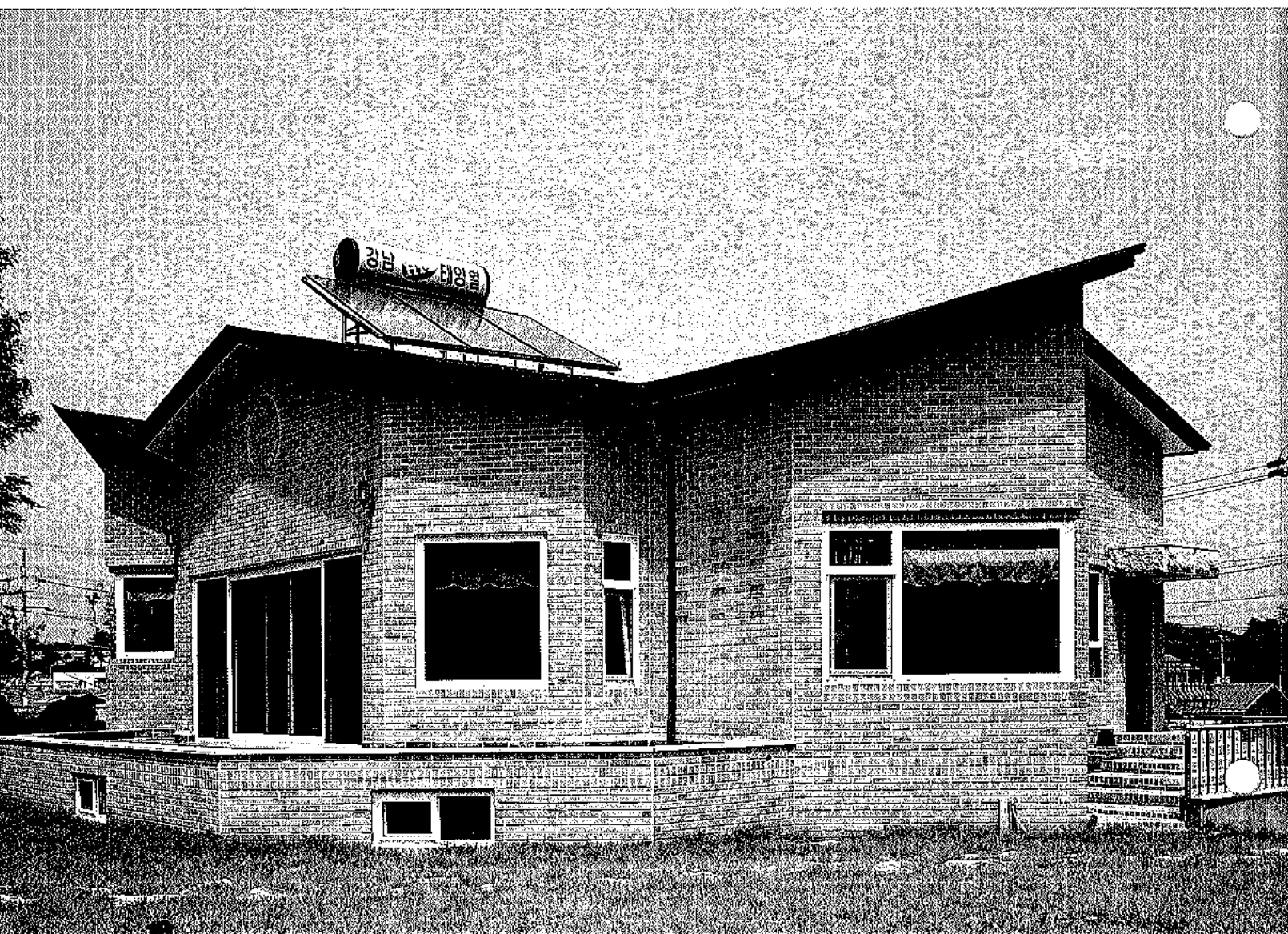
본적으로 구성요소들을 잘 소화하고 명확한 기능분리와 원활한 동선체계를 제공하여 4세대의 공동요구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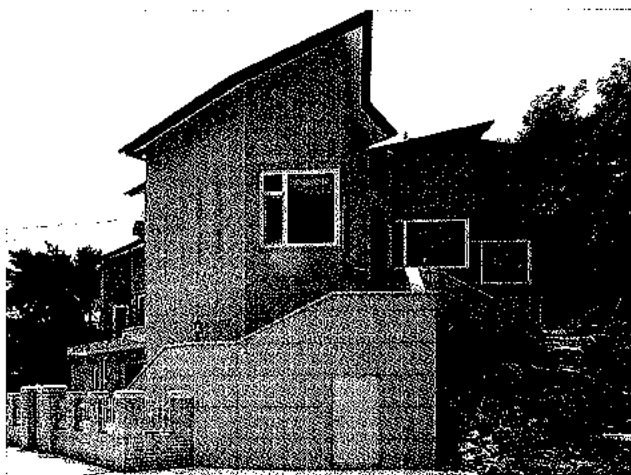
EXTERIOR 와 INTERIOR

건축물의 입면계획과 인테리어 계획은 평면계획 당시에 거의 디자인의 내심으로는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수자재의 확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층고계획은 단층의 주택 디자인과 개방감을 극대화하고자 일반주택 보다 높게 설계되어 개방감을 확보 하였다 특히 창호부분은 지리적 여건상 모두 반자동 방충망이 부착된 시스템 창호가 설치 되었으며 창호프레임의 칼라는 내, 외부적으로 잘 조화가 되었고 창유리는 여튼 green 칼라 이어서

시각적으로 시원한 맛을 더하여 준다

주방부분도 모두 기능을 향상시킨 시스템 주방으로 시설하였고 주방내부에 간단한 양주장과 홀바 설치를 겸하여 가까운 주민은 주방에서 직접 대화의 광장이 될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중층에는 조그마한 다락방이 하나 마련되어 있어 다락방으로 올라가면 천정에서 다소 부정형적인 공간이지만 가족들의 휴식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 주택은 주차장 부분, 1층 주거부분, 다락방 부분 으로 구성되어 도로면에서 보면 3층같이 보이며 정원 정면에서는 단층 구조의 개방적인 공간감을 느끼는 천의 얼굴을 가진 전원주택 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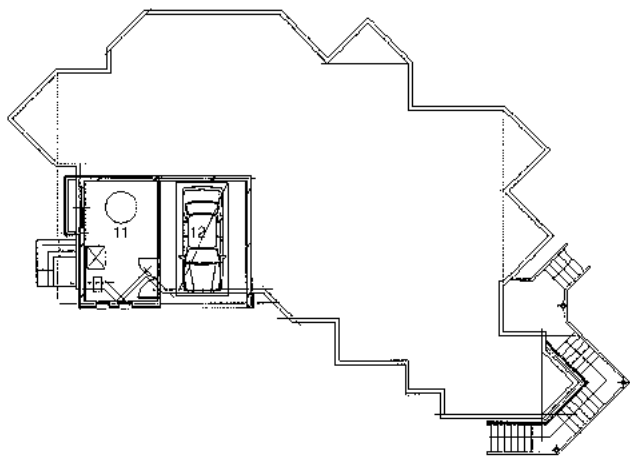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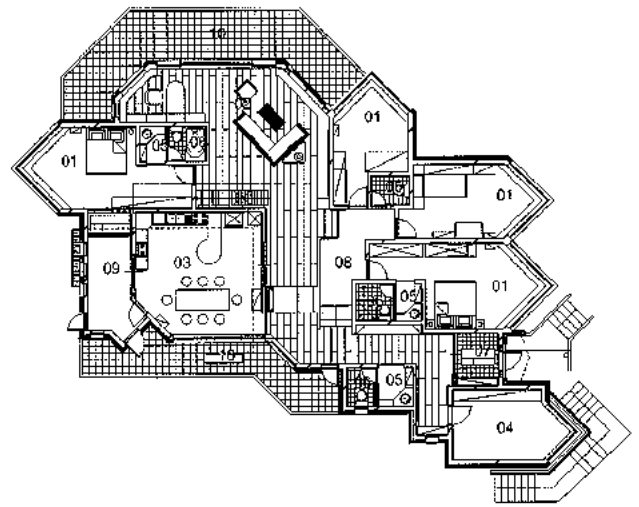


- 01_ 방
- 02_ 거실
- 03_ 주방
- 04_ 서재
- 05_ 파우더실
- 06_ 화장실
- 07_ 현관
- 08_ 복도
- 09_ 다용도실
- 10_ 발코니
- 11_ 포털리실
- 12_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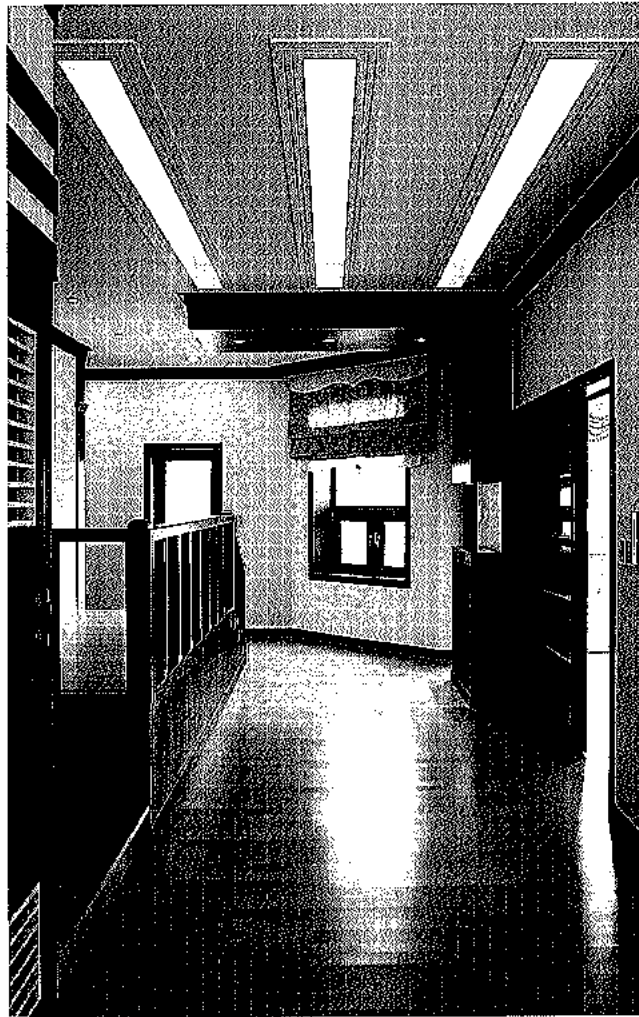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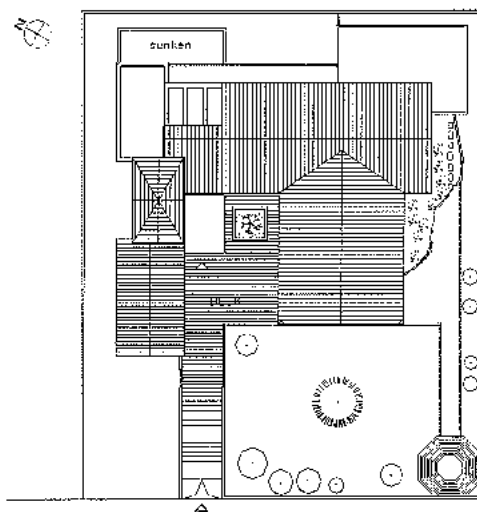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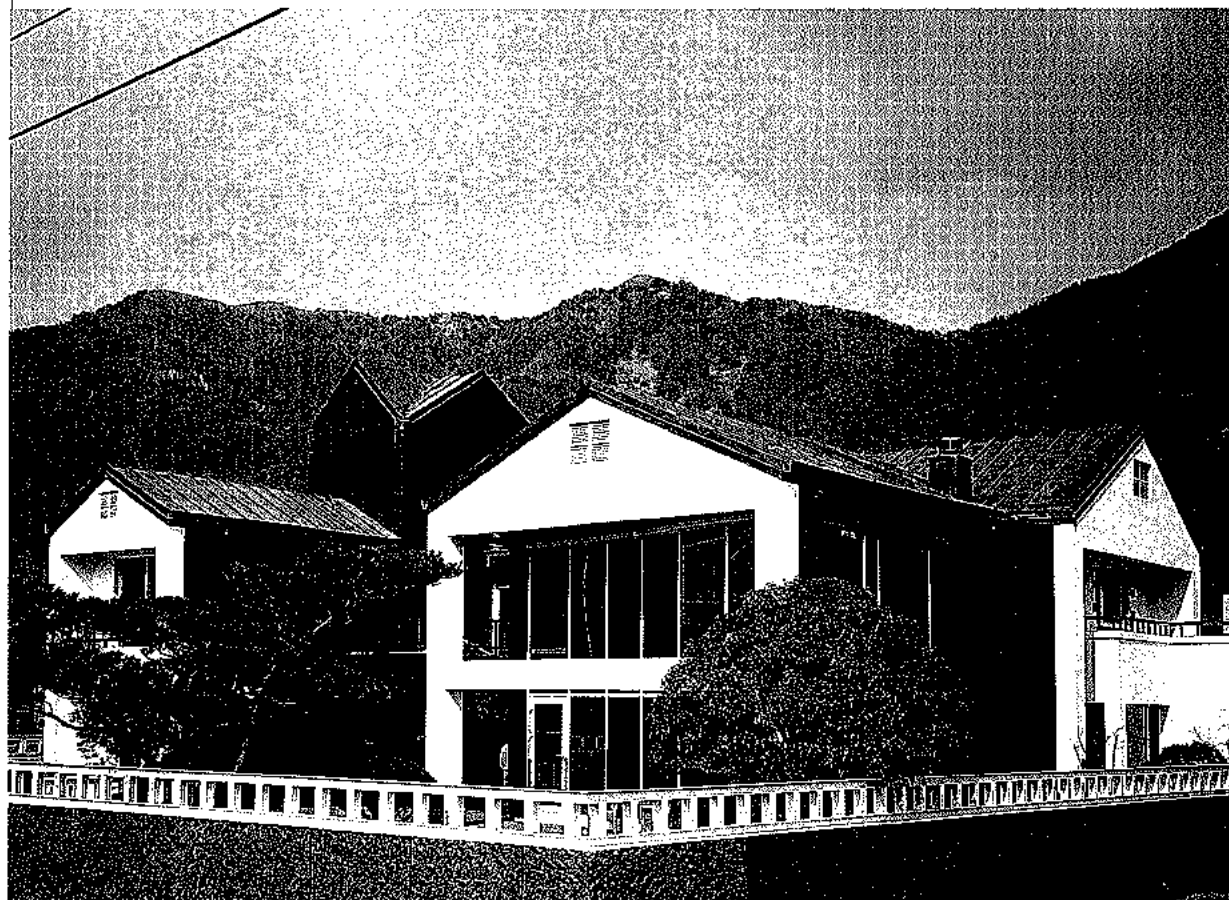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경남 창원시 대방동 346-3번지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창원공업기지조성사업완료지구
대지면적	641.80㎡
건축면적	220.25㎡
연 면 적	425.81㎡
건 폐 율	34.32%
용 적 륜	49.02%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외부마감	프로데마보드, 뿔칠도장
건 축 주	곽희선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본 PROJECT는 유연찮은 시기에 건축주를 만나게 되면서 언덕위의 집을 그리고저 하는 건축주의 소망에 따라 건축에서부터 조경, 조각이 있어야 할 위치, 형태까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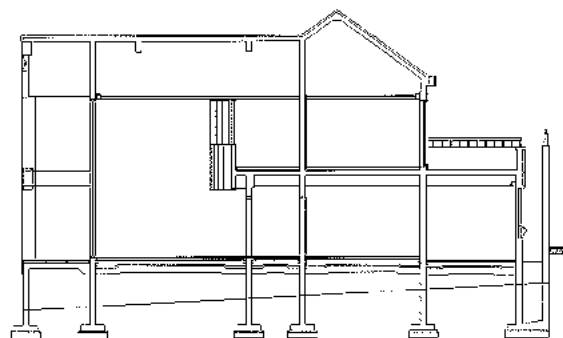
창원 HOUSE는 북서쪽으로 정방산봉우리가 있고 남동쪽으로는 고층APT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창원시 도시계획 사업으로 저층주거 단지에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창원시의 중심권역에 위치하여 소규모 필지와 골목길 등으로 비교적 정리가 잘된지역이다.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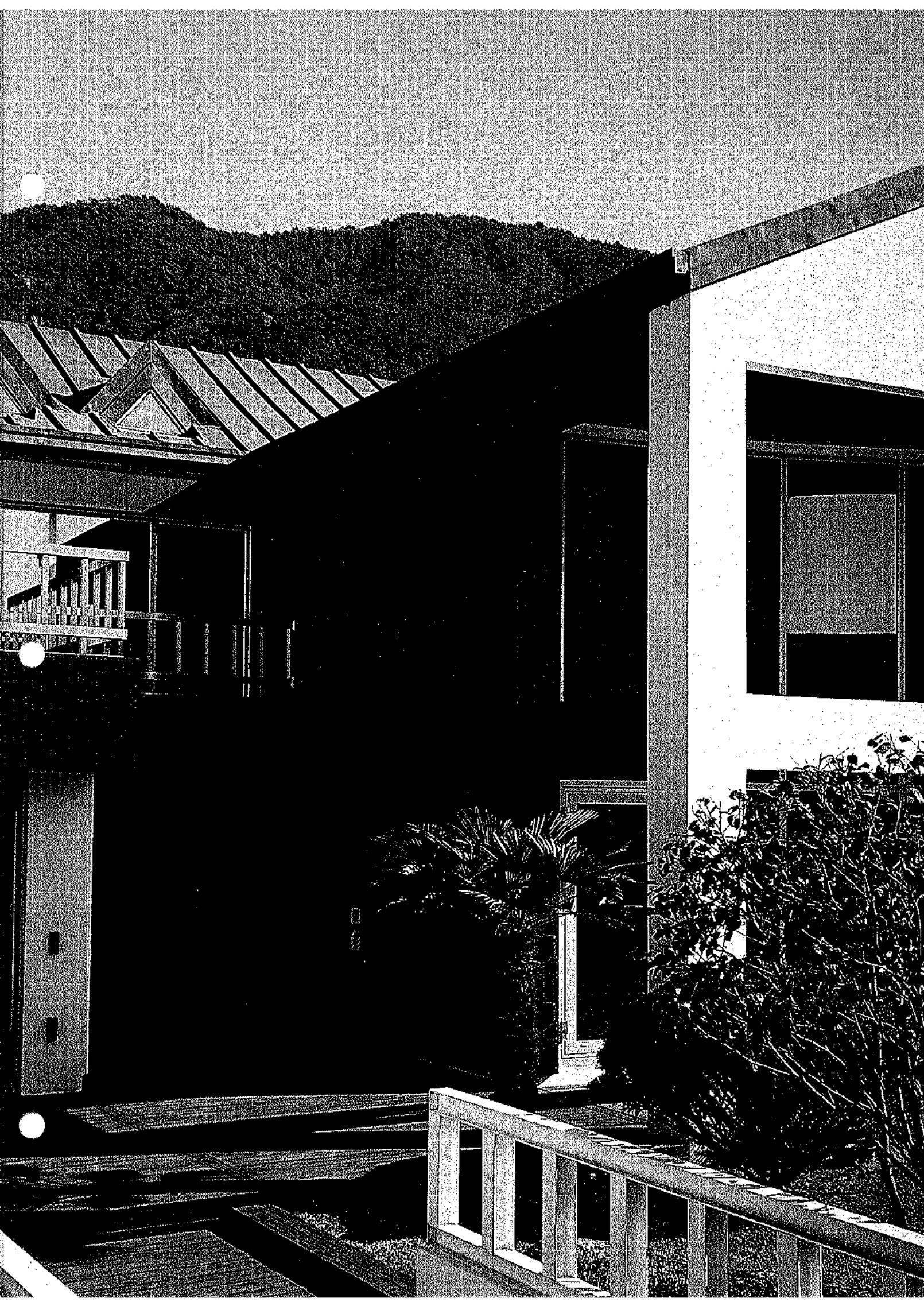
- 도심 속에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있으며 산책적이고 사색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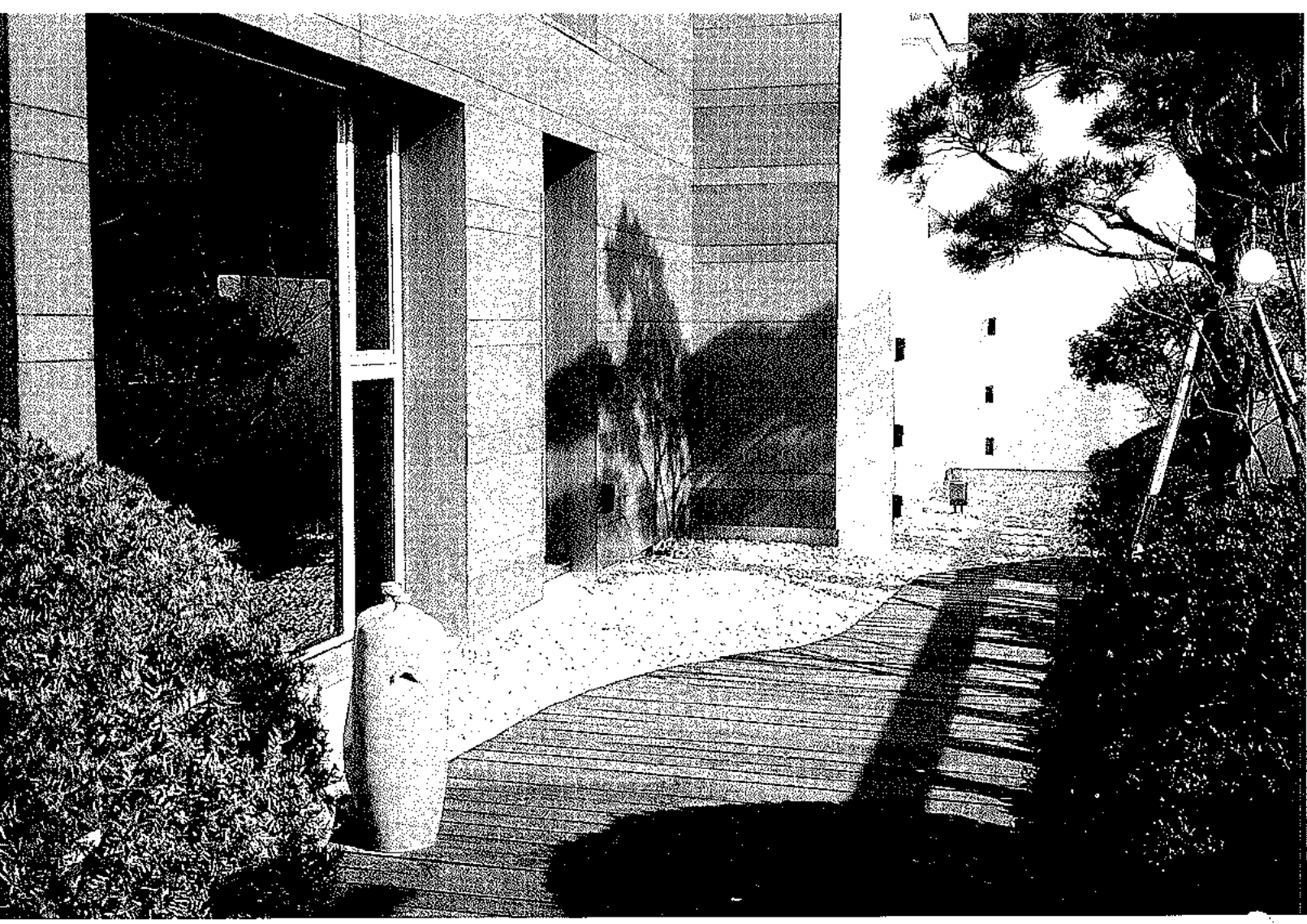
공간을 조성하고 프라이버시와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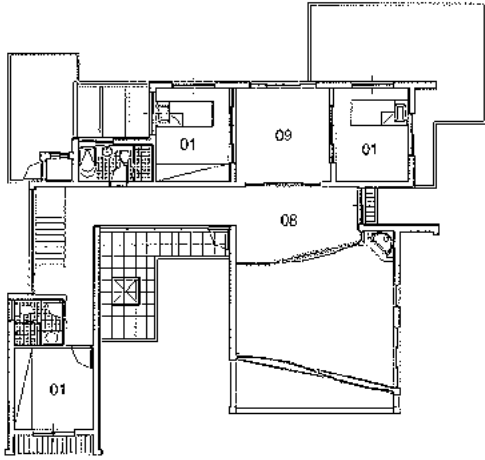
- 유행처럼 채택되고 있는 노출콘크리트의 물성을 배재하고 주변의 붉은 벽돌과 화강석으로 대표되는 컨텍스트와의 타협의 방안을 찾는다.
- 주변 건물들이 지니고 있는 공간적 단조로움을 탈피하며, 시각적으로 적극적이며 즐거움이 있는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도시가로를 향하는 정면의 경우 하루의 일과를 알리는 햇살이 먼저 침투해 들어오도록 한다.
- 내부공간은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외부에서 내부로 연결시키며 투명한 건축부재 속에서 중정과 자연을 조망한다. 圖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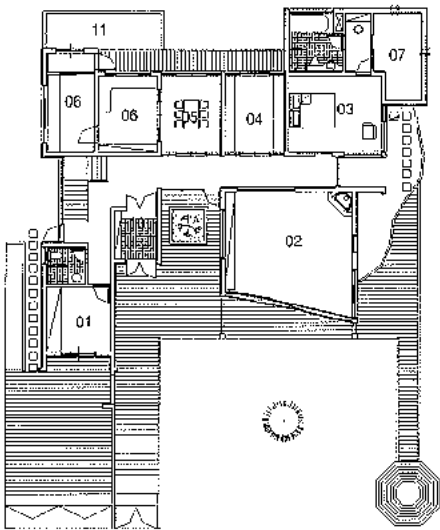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 01_침실
- 02_거실
- 03_주침실
- 04_서재
- 05_식당
- 06_주방
- 07_드레스룸
- 08_가족실
- 09_공부방
- 10_편안
- 11_선물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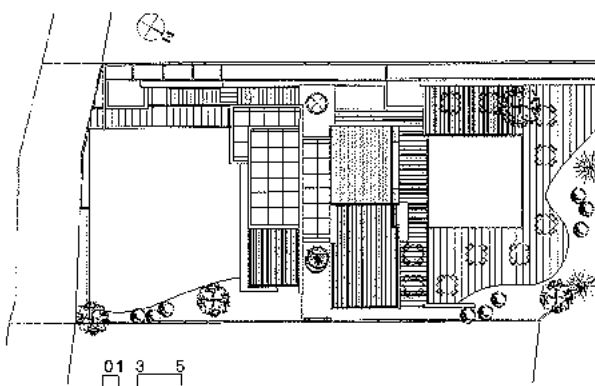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달뜨는집 Moon Ri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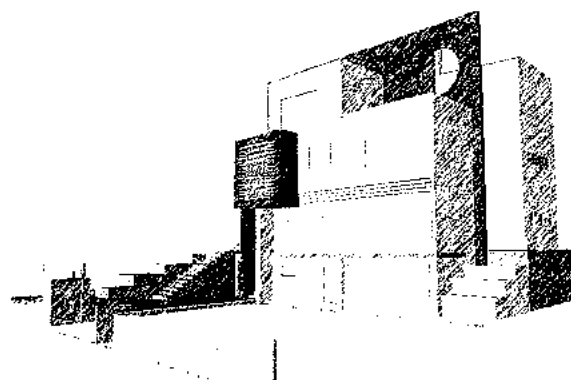
이신수 · 이충식 / 산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Shin-Soo & Lee Choong-Sik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 244-4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 주택
대지면적	576.00 m ²
건축면적	111.69 m ²
연 면 적	400.31 m ²
조경면적	109.67 m ²
건 폐 율	19.39%
용 적 륜	54.32%
주차대수	5대
규 모	지하 1층 / 지상 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바닥/온돌마루, 벽/석고보드위 벽지, 천장/석고보드위 천장지
외부마감	압출성형시멘트판, 외단열시스템, 콘크리트재물치장
설계담당	이충식
인테리어	산정종합건축사사무소(SJAI) /02-593-9873
구조설계	공간구조 /02-553-6216
기계설계	유진설비 /02-465-1215
전기설계	자영ENG. /02-595-0009
창 호	해강 시스템창호 /02-2264-5400
감 리	산정종합건축사사무소(SJAI) /02-593-9873
건 축 주	김미영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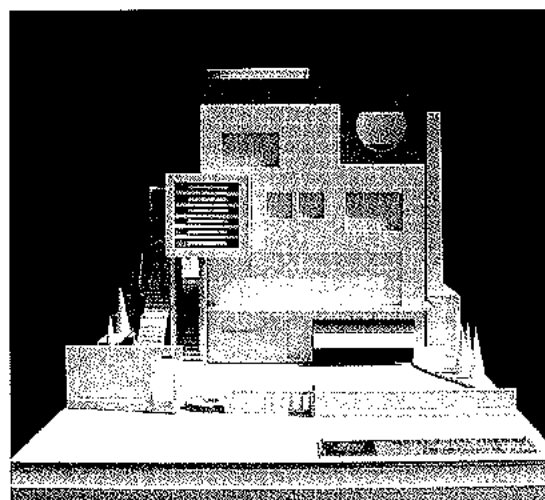
Pro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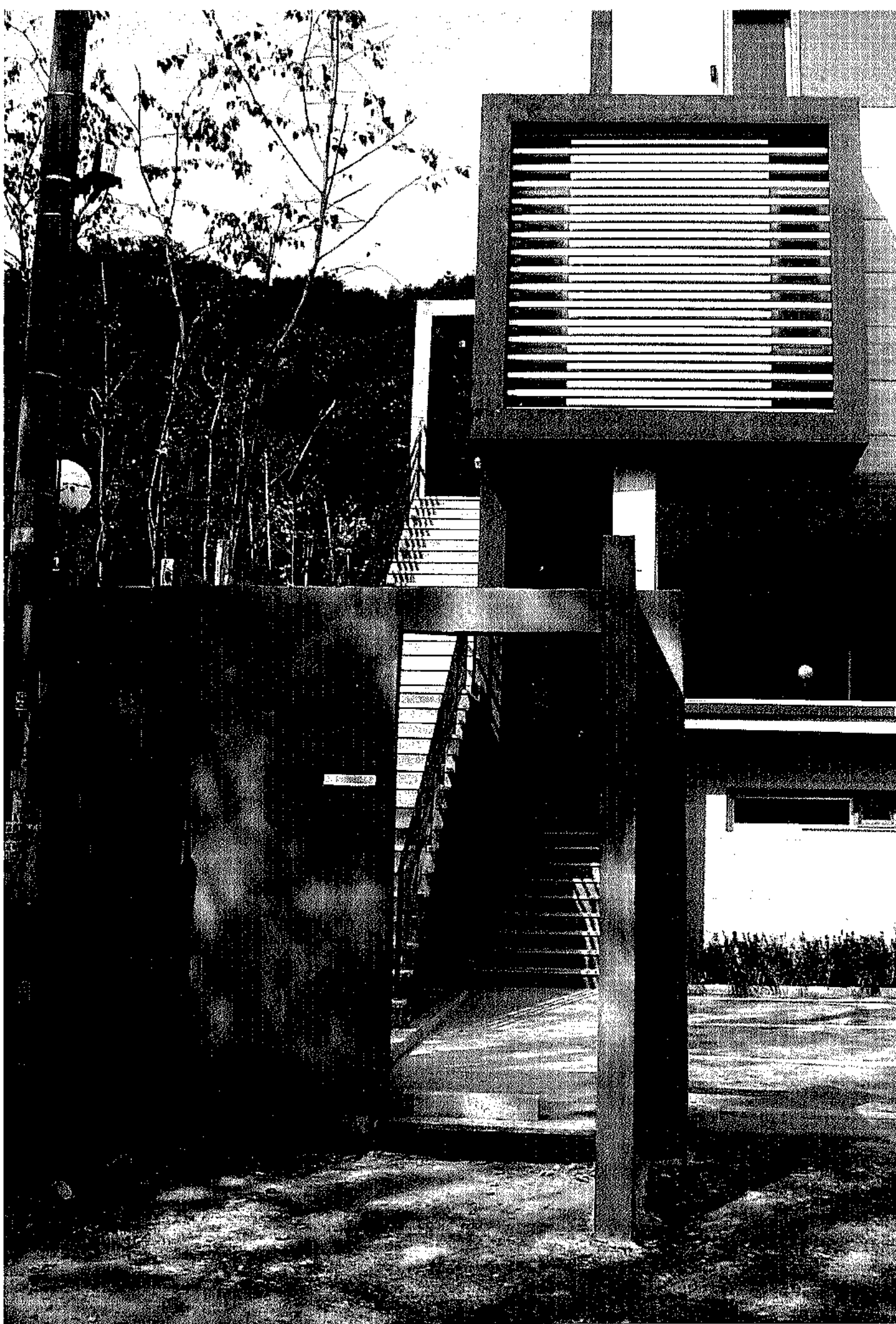
‘막 사 입어도 일년 된 듯한 옷 십년을 입어도 일년 된 듯한 옷’
어느 남성복 광고의 카피 인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참 멋진
말이라 생각하고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고 읊조리던 시절이
있었다. 사람을 담고있는, 그 사람의 생활을 담고있는
건축이라는 것이 위의 옷과 같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임했다.

- 막 입주해도 일년 된 듯한 집 십년이 지나도 일년 된 듯한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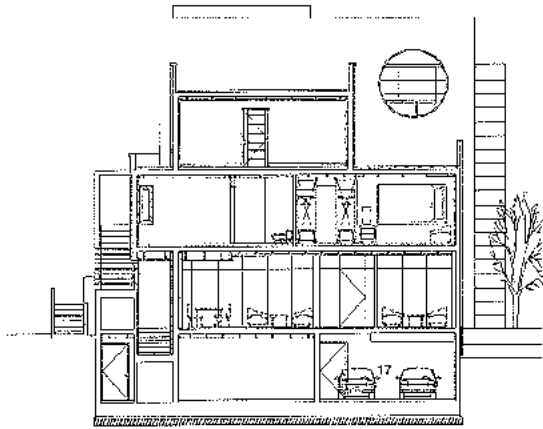
Location

사이트는 소위 요즘 뜨고있는 판교에서 조금 들어간 고거리
유원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낙생 저수지를 중심으로 개발된 이곳





유원지는 기존의 촌락과 더불어 들성들성 전원 주택들과 각종 음식점, 카페 등이 군집해 있다. 대지 바로 앞 도로건너엔 계곡이 흐르고 있으며 뒤로는 산이 감싸고 있고 멀리 광고산이 조망권내에 있다.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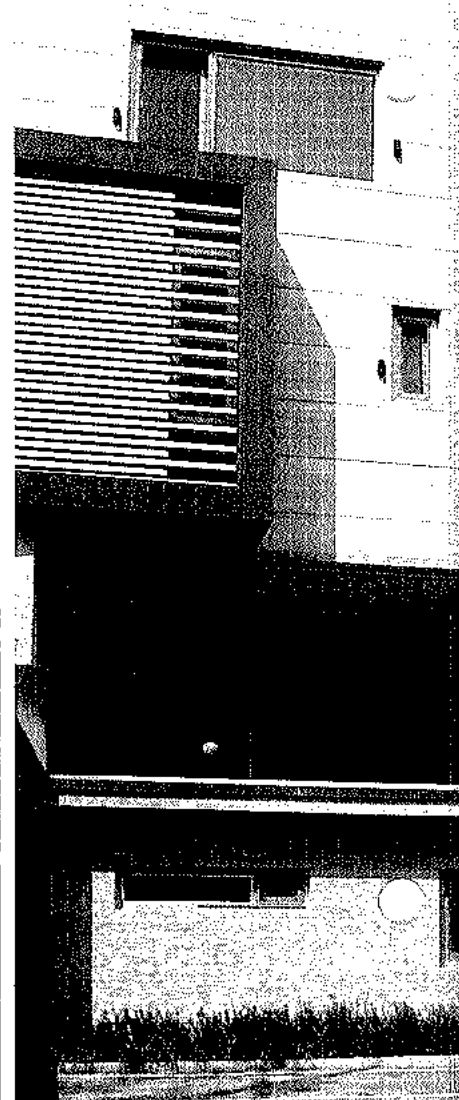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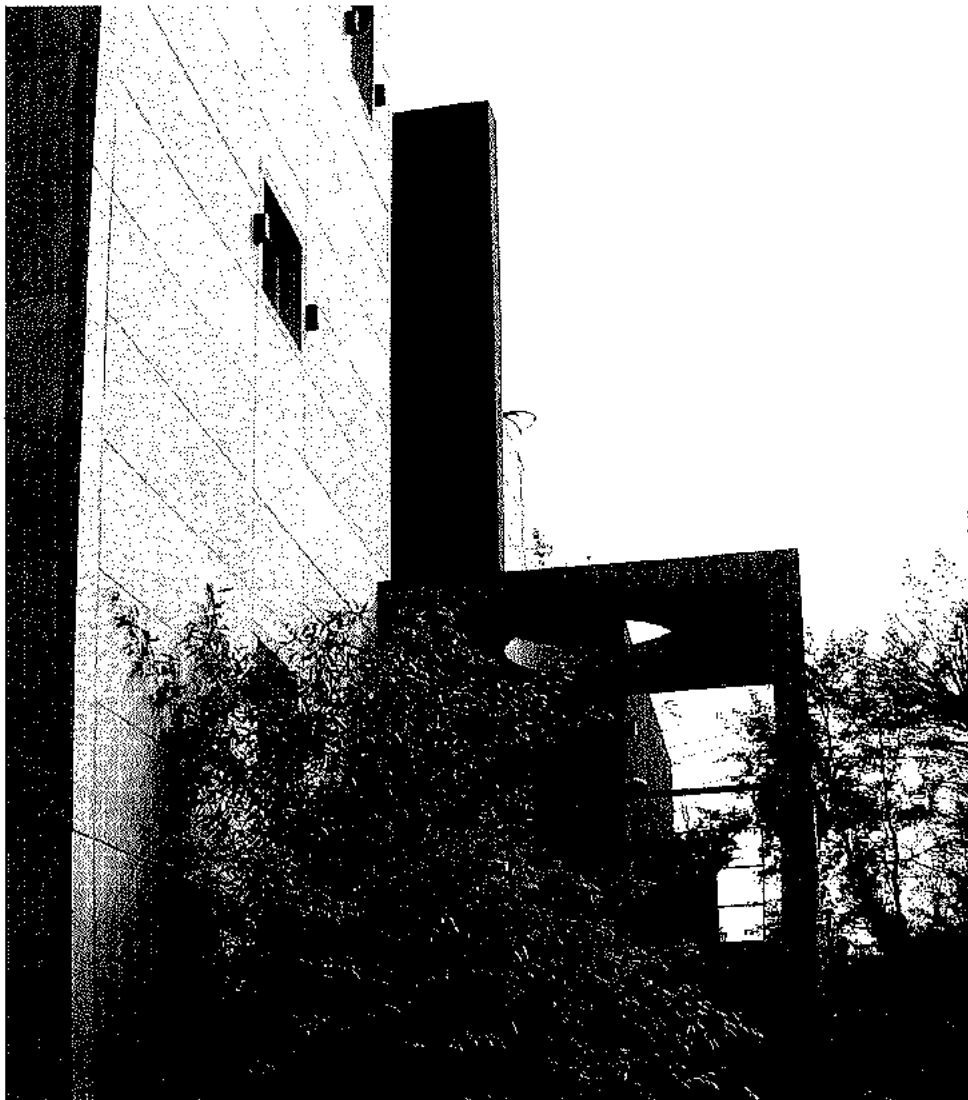
Contents

사진 작가, 플리워리스트인 부부와 광고회사에 다니는 딸, 군 제대를 앞두고 있는 아들, 이렇게 네 식구의 보금자리와 안주인이 직접 운영할 카페와 꽃꽂이 교실...

앞마당은 주차와 진입으로 이용되는 열린 공간, 뒷마당은 야외카페로 설정된 영역 구성. 지하층엔 꽃꽂이 교실 및 직원숙소 등으로 사용할 다목적실, 주택전용 주차장, 1층엔 카페, 2, 3, 4층은 주택

Concept

- 이 집의 모든 곳에 자연의 햇살과 바람을 담고싶다.
- 채움과 비움의 연계, 내부경관변화와 외부경관 차용



- 나뭇잎들의 스치는 소리 담기
- 자갈에 떨어지는 빗소리 담기
- 평면 동선의 완결성과 기능의 집약
- 위로는 하늘을, 앞으로는 계곡을, 뒤로는 산을 끌어안기
- 자연적 마당과 인공적 마당의 교감
- 차폐와 암시

단편적 생각의 나열로 이루어진 위의 소망들을 하나하나 담아낸다.

Pla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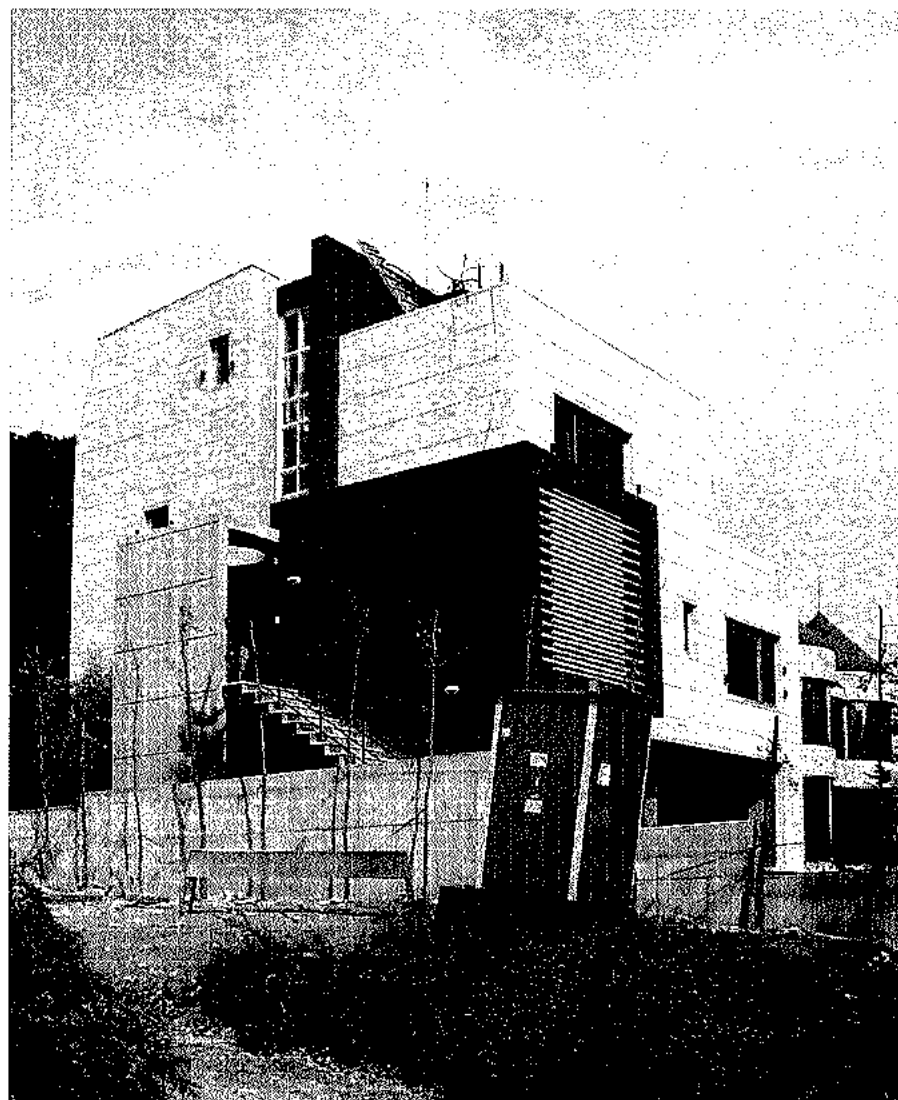
대지는 남북으로 긴 형상을 하고 있으며 도로에서 약 한 개 층 높이의 레벨차로 구배 지어있다. 서측으로는 나대지와 동측으로는 주택이 접해있다. 지하층레벨은 도로레벨과 동일하게 계획하고 상부의 카페와 주택은 후정의 레벨과 동일하게 계획하였다. 1층 카페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2층 주택으로 올라가는 계단과는 별도로 계획하여 각 용도별 동선의 분리를 유도하였다. 세 개의 커로 분절된 매스는 동측에 중정을 두어 가능한 모든 실에 자연의 햇살과 바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계획하였다. 주택의 2, 3, 4층에는 발코니를 두어 마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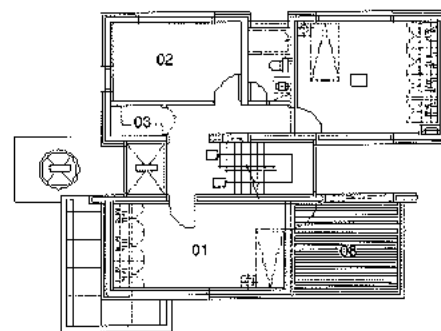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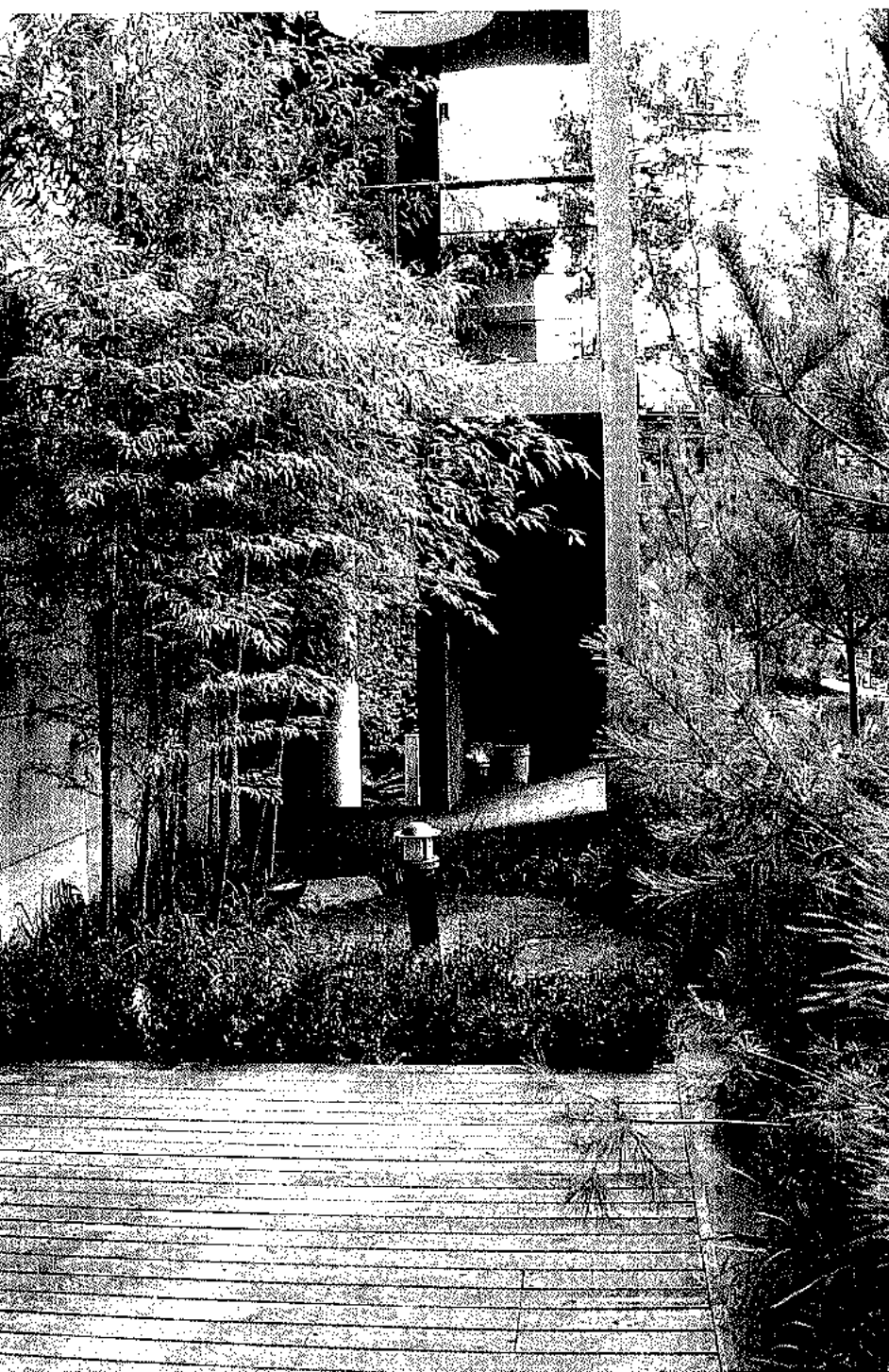
카페에 내어준 것을 최대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분절된 세 개의 매스는 실과 실 사이에 수직과 수평동선의 매개를 두어 공용면적을 최소화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대지면적은 넉넉한 편이었지만 자연독지지역인 관계로 건축면적의 제한이 다소 협소하였던 데 기인한다. 외부마감재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 재료자체의 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압출성형패널을 주 재료로 사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주변환경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였다.

Epilogue

설계를 시작하고 공사완료까지 1년 여의 시간이 흘렀다. 건축주와의 수많은 미팅과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하나 둘 풀어나가며 건축해준 달뜨는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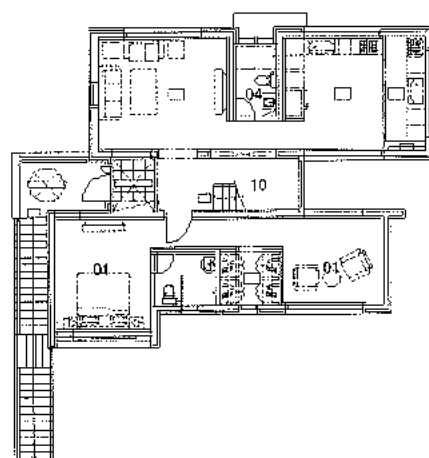
혹자는 달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달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속삭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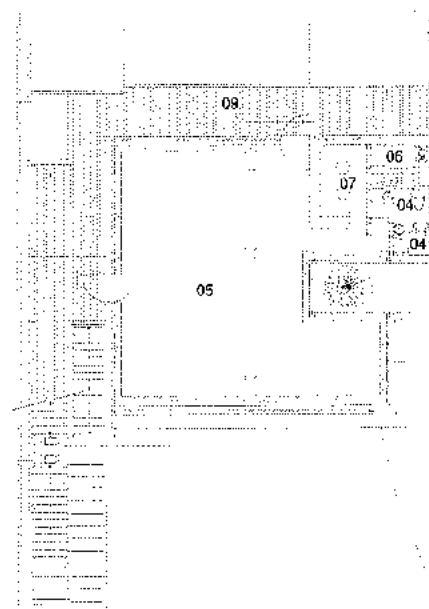


- 01. 방
- 02. 가족실
- 03. 창고
- 04. 화장실
- 05. 카페
- 06. 주방
- 07. 카운터
- 08. 발코니
- 09. 옥외데크
- 10. 계단실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신영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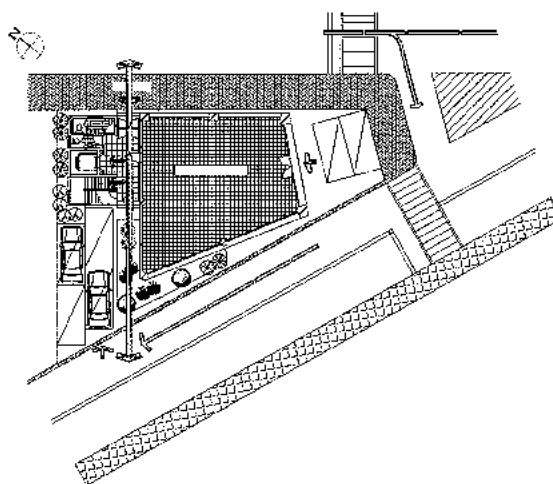
Sinyeong Building

김동수 / 신영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Dong-Soo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북 영주시 휴천동 497-20번지
지 역	일반주거지역
용 도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356.80㎡
건축면적	212.15㎡
연 면 적	1,182.50㎡
건 폐 율	59.50%
용 적 륜	331.43%
규 모	지상 6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드라이비트, T24mm 반사유리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설계소요

재료의 진실한 표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노출 콘크리트를 시도하였으나 시공능력의 한계로 인해 노출콘크리트에 덧칠을 하게 되었다.

바탕으로서의 노출콘크리트와 액센트로서 반사유리와 드라이비트의 조화를 추구하였으나 결과는...

배치 및 평면 계획

폭이 좁고 긴 마름모꼴 대지에서 시청 전면도로를 위한 전면에 업무 공간을 배치한 후면에 주차공간과 Core를 배치하므로 자연스럽게 초점으로 인식되게 배치하였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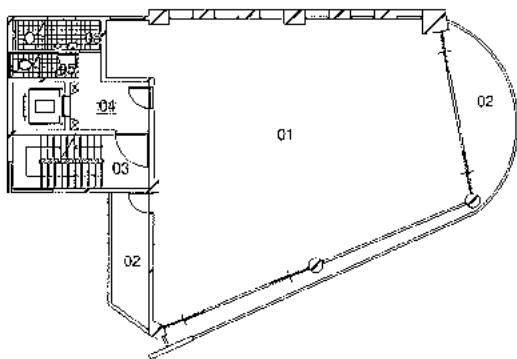
콘크리트와 유리를 대비시켜 도로에서 보는 입면에 변화를 주고 모서리 부분을 곡면처리하여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게 하였다.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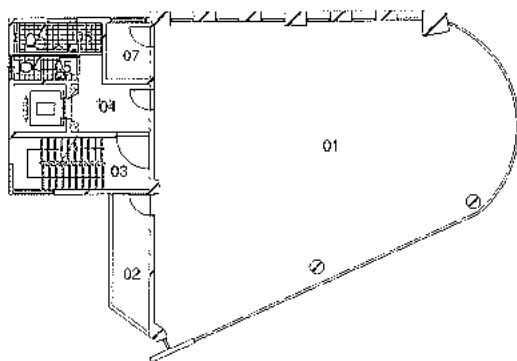
기초층까지 3.3m의 층고를 유지하고 점차 후퇴하여 옥상부분을 중첩되게 함으로 상승감을 가지게 하였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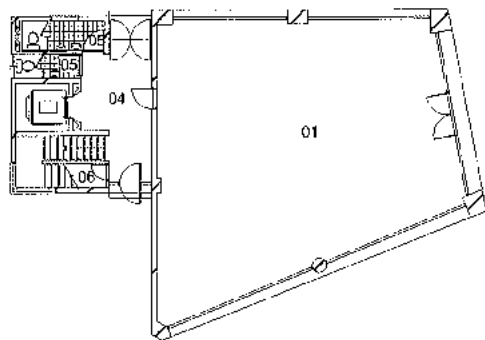


6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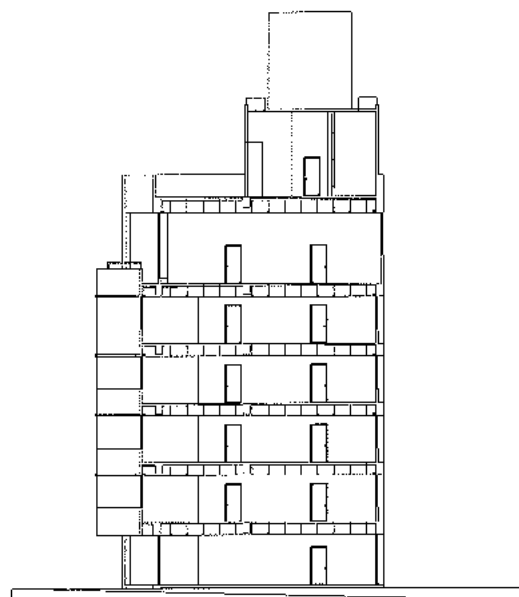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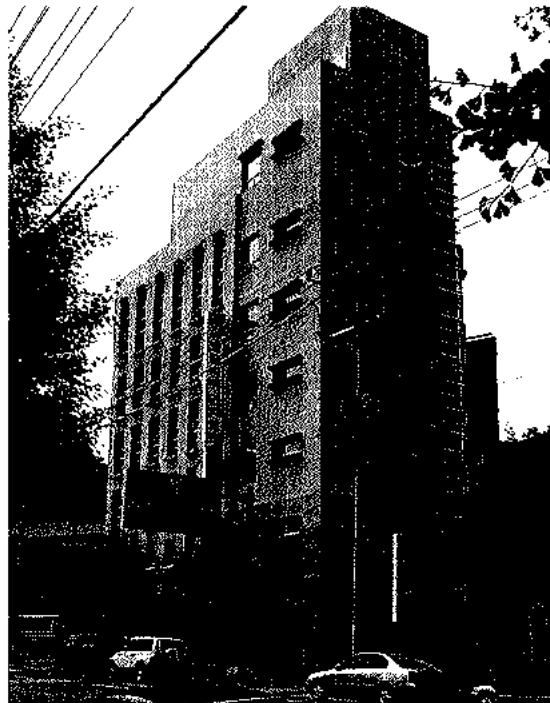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 01_ 근린생활시설
- 02_ 발코니
- 03_ 계단실
- 04_ 침
- 05_ 화장실
- 06_ 창고
- 07_ 텀비실



1층평면도



단면도

The Court House

The Court House

이상림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Sang-lee



Blending/Identifying

우선 8년의 시간을 안내해준 건축주와 시공사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김수근 선생의 작품에는 대지와 공간의 관계가 중요한 맥락으로 대두된다. 이 대지/공간 관계는 타 작품보다 주택작품에 가장 잘 나타난다. 많은 단독주택을 남기지도 않았지만, 그 중 남아있는 작품이 몇 안된다는 것은 특히 이런 이유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 점이다.

그 몇 되지 않는 단독주택 중에도 '창암장'은 공간 (Space Group)에 지금까지도 큰 의미를 지닌 작품이다. 그 1974년의 창암장으로부터 2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1995년에 두개의 단독주택 설계안이 공간에 의뢰되었다. 이 공간은 이미 김수근 선생의 작고 이후 오랜 세월을 넘긴 새로운 공간이다.

창암장 (1974)

순용이네 (가칭, 계획-2001.05, 완공 2003.11)

레용이네 (가칭, 계획-2001.05)

'순용이네', 그리고 '레용이네'가 새로 의뢰된 단독주택의 가칭이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창암장과 이 두 주택의 관계는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두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의외로 큰 의미와 부담을 공간에 안겨주었다.

김수근 선생, 창암장 건축주,

공간, '순용이네' 건축주

공간, '레용이네' 건축주

건축계획의 주체는 모두 공간이다.

세 건축주들의 관계가 세 프로젝트의 중요한 끈이다.

또 다른 끈은 계획대지.

'The Court House'는 '순용이네'의 준공명이다.

둘러쳐진 산과 흐르는 물.

잘 생긴 바위언덕과 수려한 소나무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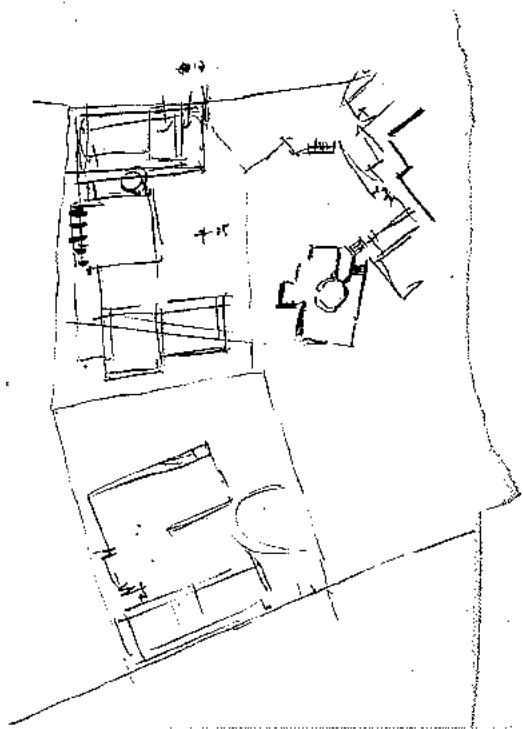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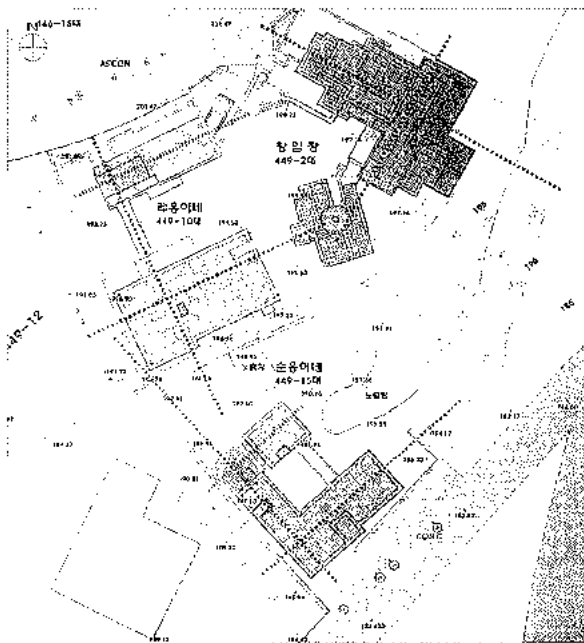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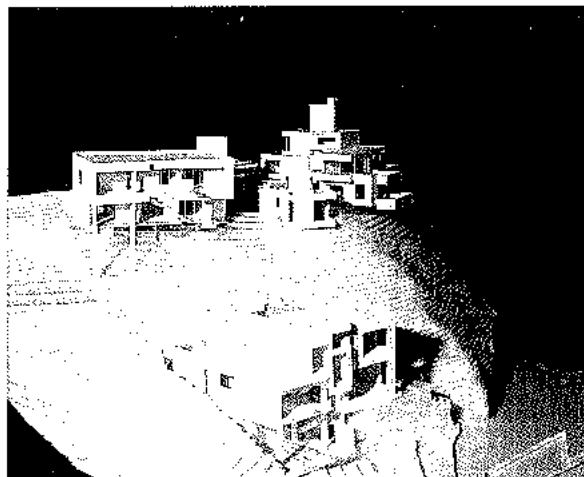
건축주와 건축가가 함께, '건축'을 위해 선택한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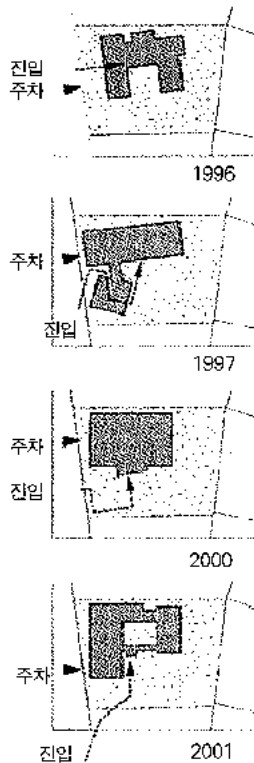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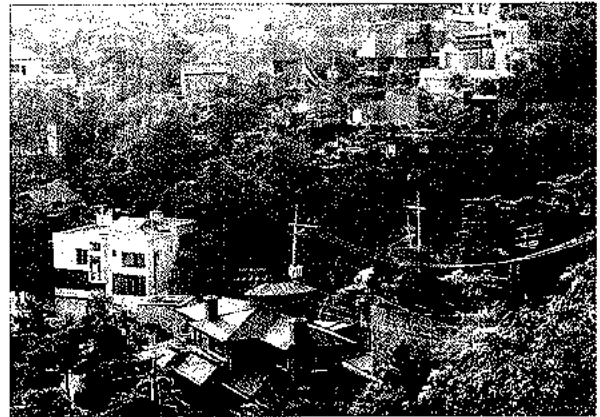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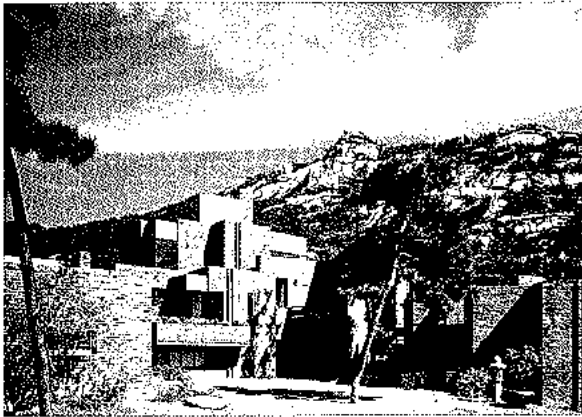
창암장이 계획된 곳이다.

20여년전 '그 건축주'의 자녀들이

그 땅에 새로운 주택을 요구한다.

그곳에서 성장한 새로운 건축주들이다.





'The Court House'는 이 두 주택 중 하나이다.
뒤로는 형제와 부모의 집들로 통하는 가파른 경사지를,
앞으로는 탁 트인 전망과 단아하면서도 풍광 좋은 천연환경
을 끼고 있는 곳이다.

'절제된 조형에 환경을 이끌어들이는 주택'을 건축주도 흥
미롭게 받아들여 서로 열린 내부공간과 자연 환경을 끌어
들이는 중정을 계획하였다. 필요에 따라 통합되고 분리된
공간들이 '빛'과 '환경'을 이끄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투명
한 중정'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지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새로운 주택의 건축주는 창암장 건축주의 2세대이다.

1995년 처음 설계 의뢰된 이후 두 주택은 다섯번에 걸쳐 각
각 새롭게 계획되었다.

그 다섯번의 재계획 이
외에, 건축주가 타 건축
가에 의뢰를 하기도 한
것을 다시 공간에서
2001년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하여 최종적으로
건축주의 만족을 이끌어
내었다.

두 계획은 비교적 순수
하게 시작되었다. 건축
적 욕심을 부리기 보다
는, 이미 대지 자체가 지
닌 장점들을 부각시키면
서 거주할 사람들의 요
구에 충족될 공간 구성
에 전념하는 것. 이 평범



한 공간구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대지레벨의 적극적 수용이 개념의 본질이었다.

한 건축가의 이야기를 보면, '현 건축가들은 건축이 그가 입지한 도시에 맥락을 같이 하길 원한다. 그리고 동시에 변화에 유연하도록 하고자 한다 (we want our buildings to fit into the existing context, yet to remain flexible and open to change).' 이는 도시맥락에서는 자신을 지우는 (disappearance) 것이며, 그 공간은 요구에 순응하며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identifying) 한다는 것이다.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는 없으나, The Court House'가 그랬다.

두 단독주택의 계획에 절대 필요했던 것은, 평범한 주변과 동질의 조형 맥락을 받아들이며, 사용되는 데 따라 유연한 공간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곧 건축주들의 특별한 건축관념을 수용할 수 있는 특안이었다.

창암장이 있게된 풍광 좋은 자연환경이 이전에는 바라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The Court House에서는 이끌어들이는 데 주안하였다. - 보고 느끼려 하지 않아도 이미 함께 있어 느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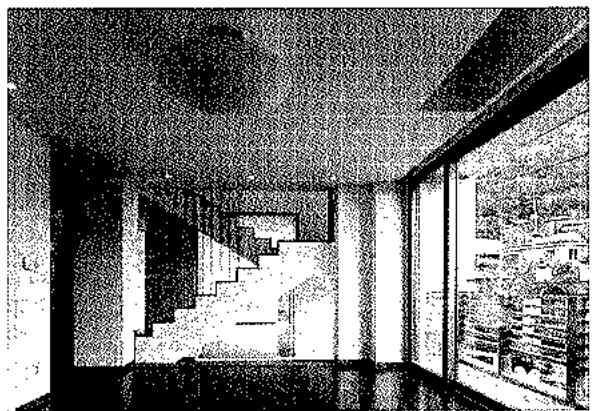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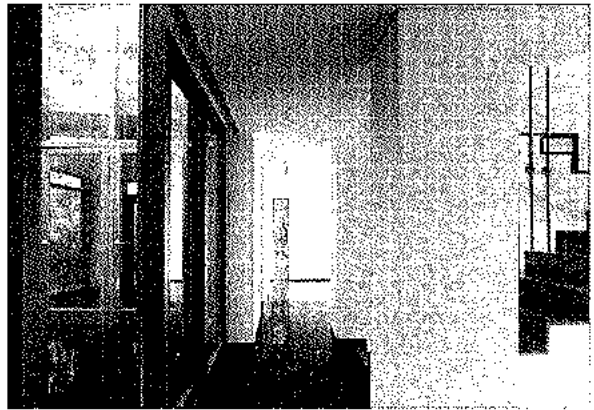
중정과 이를 둘러싼 복도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 있는 시선의 끝은 외부의 자연이다. 거실과 식당의 커다란 창 또한 멀리 북악스카이웨이의 팔각정까지 열린 경치를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대지에 강하게 자리한 노출암은 투명한 브릿지 공간을 통하여 중정으로 유도된다. 이 '이끌어들임'이 단순한 조형에 독특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된다.

두개의 주택 중 '순웅이네'는 대지가 가진 제약이 '레옹이네'보다 심각하였다. 우선 대지의 면적도 그리 넉넉지 못했지만, 대지의 대부분이 평창동 지형 특성으로 원형보존지역으로 묶인 것이다. 더욱이 그로인해 건물의 배치가 도로에 면하게 되어 전면을 내부공간이 드러나보이도록 개방할 수가 없었다.

주변의 건축적 맥락의 수용과 그에 따른 형태적 제약속에 제안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의 필요가 이와는 다르게 '레옹이네'의 계획에서는 진입레벨과 건물이 배치되는 레벨차가 심하여 이를 자연스레 극복하기 위해 진입레벨이 주거의 상하층의 중간에서 시작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물의 전면이 조망을 끌어들이도록 획기적으로 개방되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드러나는 것은 '레옹이네'의 계획이 'The Court

House'보다 더 주택으로서 혁신적이고 표현하기 따라서는 매력적일 수 있었다.

두 주택 모두 완공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초반부터 건축주



개인적 이유로 보다 매혹적으로 여겨졌던 '레옹이네'는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고, 'The Court House' 또한 여러문제로 거의 3년이 다 되어서야 준공을 하게 되었다. 보다 매혹적일 수 있었던 것이 완성되지 못한 아쉬움보다, ... 지금 더 크게 아쉬운 것은 세 주택이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드러날 수 있었는데, 미완에 그쳤다는 것이다.

궤 번 (軌辯-orbital talk)

1974년 창암장이 계획된 시기와 그 후 'the court house'가 계획된 시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30년이라는 시간적/시대적 차이가 있고, '공간'만의 변화도 있고, ...문화와 환경의 발전도 있고, 무엇보다 '영향력'과 '입지'의 차이가 있다.

창암장, ... 건축가 김수근과 건축주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당 시대에, 두 사람은 같은 분야는 아니었지만 큰 '영향력'을 지닌 이들이었고, ... 각자의 분야에서 사회적 입지 또한 굳건히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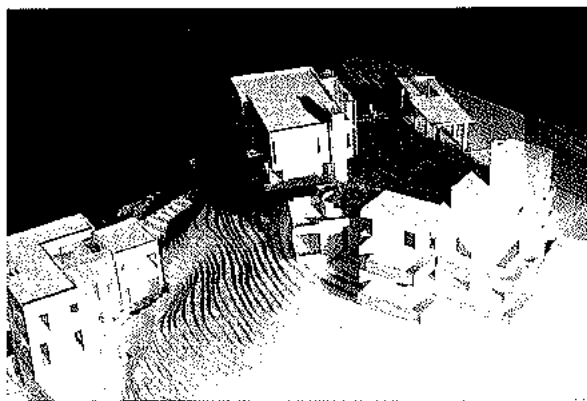
architecture, power, 그리고 politics, ...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견고한 끈을 지니고 있다.

이 시대에는 이전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고 economic power가 이를 대신하는 듯하기도 하다.

그런 정치/권력의 건축과의 역학적 관계는 아직 큰 변화가 없이 성립은 되지만, ...

건축가에게 그러한 영향력과 연관된 것이 아직 남아있는 자...



대 관 안 내

대한건축사협회

전시장

건축과 문화와의 만남을 위한 전시공간

Architect's Gallery

건축사협회 회관 1층에 문을 연 아키텍트 갤러리는 60여평(198㎡) 규모의 현대적 감각의 전시공간으로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최신의 조명시설과 이동식 중간벽체를 설치하여 전시규모 및 특성에 따라 원하는 공간을 개성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대관료(1일 7만5천원, 부가세 별도)로 건축인은 물론 관련단체나 학생,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분야 외에도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전시공간입니다.

건축인은 작품활동을 알리는 공간으로, 일반인에게는 건축과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대 관 문 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종무팀(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2번출구 150m지점)

Tel _ 02-581-5711~4 Fax _ 02-586-8823



공간 클럽 - 07

Space and Rooms

이재훈 /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과 교수

by Lee Jae-Hoon

건축공간에 대해 막연히 동경하며, 좋은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을 기억해본다. 그다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어찌보면 건축주의 요구와 구조, 기능, 설비, 건축비의 문제에 매달려 좋은 건축공간이 가져야할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가에게 꿈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본 적이 없는 나만이 만들어낸 건축공간일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건축가의 꿈이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건축인이 건축적 삶을 사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래, 건축공간에 우선하여 형태적 유희나 재료의 표현, 프로덕션의 즐거움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건축이 존재하는 고유한 영역은 결국 공간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된다.

젊은 시절 건축공간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잊혀져가는 건축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일으키고자 공간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건축공간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던지려고 한다. 더러는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소주제를 통해 건축공간을 전혀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주>

목 차

1회

- a. 공간은 하나인가요?
- b. 공간의 증거
- c. 공간은 없다

2회

- a. architectonic space
- b. 노자의 공간개념
- c. 5차원공간

3회

- a. 누구의 공간인가?
- b. 얼어붙은 공간
- c. 서랍속의 공간

4회

- a. 공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 b. 논리로서 공간을 이해한다.
- c. 공간지능지도

5회

- a. 안티 중성의 공간
- b. 시간을 넣은 공간
- c. 공적공간과 사적공간

6회

- a. 공간의 밀도
- b. 공간의 전이
- c. 공간의 위계

7회

장면으로서의 건축공간

8회

- a. 쉬운 공간만들기
- b. 게임으로 보는 공간개념
- c. 새로운 공간만들기

9회

- a. served space & servant space
- b. 공간의 종류
- c. 공간의 극

10회

- a. 공간의 경계
- b. 공간의 관계
- c. 공간의 모듈
- d. 공간의 바레

11회

- a. cyber space
- b. space syntax
- c. spatial behavior

12회

- a. 공간속의 기동
- b. 시나리오 있는 공간
- c. 창으로 본 공간

13회

- a. 공간계획
- b. 공간디자인
- c. 공간문법

장면으로서의 건축공간

space in a scene

20여 년 전에 살던 집을 방문하여, 마당에서 벌어졌던 사건과 함께, 마당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떠올린다. 마당의 단차이, 흙바닥, 먼지, 화초, 화분, 큰 나무, 건물의 현관문, 대문, 널린 빨래, 그리고 마당 쓸던 장면, 친구와 얘기하던 장면, 과일 먹던 장면, 그리고 그와 함께, 구름낀 날씨, 화창했던 날씨, 비오던 장면 등등.... 사람에 따라 다른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에 대해 상상속에서 그 장면을 연상해 낼 수 있다.

혹시 사진이라도 한 장 있다면, 그 장면들은 보다 깊이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다. 친구와 얘기하며 어떤 주제로 다투던 모습과 그 친구의 표정, 비가 오는 가운데 우산 받치고 마당에서 빨래 걸다 하나를 떨어뜨려 난감해하던 모습, 색 색깔로 피어난 채송화를 만지작거리며 손가락에 물들이던 모습, 상상이 깊어지면 현실과 과거를 넘나들며, 현실을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한 장면들은 분명 입체적일 것이다. 사진을 보지만 사진을 상상하는 사람은 사진 속에 숨겨진 사건과 장면을 함께 보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는 하나이지만 기억을 함께 보고 있는 것이다. 친구집에 놀러가 사진을 보는 것은 오래된 관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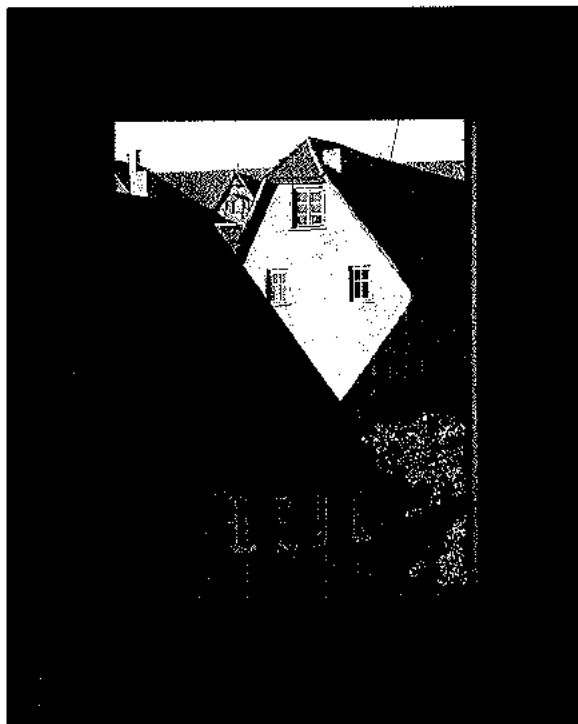


그림 1. 천박으로 보이는 모습

다. 자신의 과거경험을 사진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공유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사진을 통해 많은 것을 보지만 타인은 사진속의 경험을 잘 전달받지만은 않는다.

장면으로서의 건축공간은 그러한 것이다. 한번쯤 그 장소를



그림 2. 드넓은 광장 풍경



그림 3. 빛이 들어오는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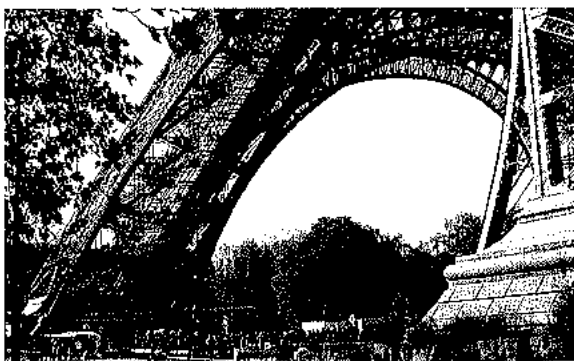


그림 4. 에펠리의 하부



그림 5. 빛이 비추이는 MIT 공관 서면

다녀온 사람에게는 그 장면을 통해 그곳에서의 경험이 되살아난다. 비록 사진속의 장면과 동일한 위치에 서있지 않았더라도 입체적인 경험으로서 사건과 함께, 그 장소를 만들고 있던 건축적 상황이 연상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장소가 의미 있었던 곳이라면 그 장면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곳을 다녀오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단지 사진 속에 보이는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공간과 형태의 대비가 강렬하다거나, 공간의 깊이가 보인다거나, 공간 속의 빛이 효과를 가진다거나, 중심공간을 느낄 수 있다거나 등등의 미학적 경험에 한정될지 모르겠다.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다. 아직 건축경험이 적은 학생들이 미학적 공간을 통해 건축공간을 간접체험하고, 가보고 싶은 건축공간의 데이터로 저장되어 기억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왜곡된 사진 장면에 의해 건축적 가치를 찾기 힘든 건물들이 사선을 끄는 건축잡지에 등장하게 만들고, 그 건축가가 훌륭한 건축가인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한다. 해외 경험이 전혀 없던 시절, 건축작품 사진집을 통해 해외의 유명한 건물들을 보고 동경해보기도 하였으나 막상 현지에 가서 직접 그 건물들을 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감동을 받지 못한 경험이 많다. 장면으로 미리 익혀진 건물은 그러한 한계를 갖는다.

이 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 건축공간의 장면을 통해 기본 적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의미 있었던 공간을 상상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함이며, 기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미학적 유혹으로 한번쯤 가볼 수 있는 공간의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1. 동경포럼

동경에 위치한 극장 콤플렉스 빌딩인 동경포럼의 대홀안에 있는 기둥의 모습이다. 7층의 건물이지만 주층 위로 솟아 배모양의 4-5개층 높이의 아트리움 구조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강렬한 이미지를 준다. 미지의 세계로 출항할 배모양의 천정면을 받치는 두개의 거대한 기둥은 존재의 중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히 보인다. 동경포럼의 거대한 아트리움과 고층의 연결브릿지, 빼대 지붕 하부의 푸른 하늘은 건물 안의 사람들에게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2. 물

미국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교외에 위치한 쇼핑몰의 하나이다. 긴 내부의 길 공간, 물에 연결된 상점들, 노점상과 같은 조그만 중간 중간의 상점들, 그리드형 바닥패턴과 아크릴 조명 벽장식은 단조로운 느낌도 주지만 천정에 떠있는 애드벌룬은 낮과 밤에 따라서 분위기를 변화시키며 쇼핑하는 사람들에게 붐 뜬 마음을 연상시킨다. 도시공간과는 달리 한적한 곳에 위치하며 별도의 인공 가로공간을 만들어야 했다.

3. 교토역

10여 층의 높이로 확산되는 역삼각형의 공간은 피라미드를 엮어 그 공간을 빼낸 것 같은 강한 인상이다. 기차 역사로부터 시작하였지만 다양한 용도공간과 도시의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장대함은 관찰자의 시야를 압도한다. 동선이나 기능의 연속성은 없으나 꼭대기까지 사선으로 놓여진 계단은 도시 공간의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림 3. 동경포럼



그림 7.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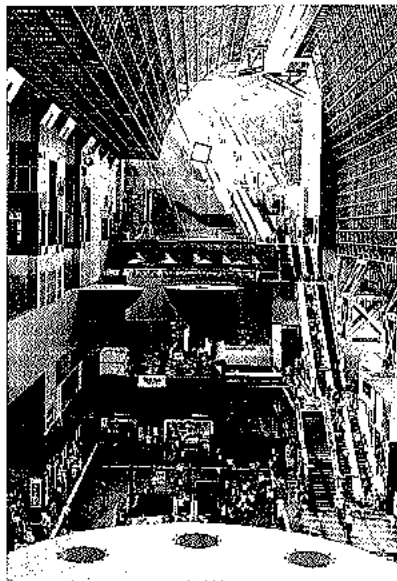


그림 8. 교토역

4. 도산서당

안동에 위치한 도산서원 안의 도산서당의 앞마당 모습이다. 한쪽으로는 담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원을 넘어 산으로 연결된다. 마루에 앉은 사람의 시선 통제를 위해 조그만 담장이 있어 부분적으로는 가리고 부분적으로는 오픈된 양상이 애교스럽게 보여지는 부분이다. 그것이 학자들에게 의식의 이분법을 주었음은 모르겠지만 공간의 여백과 담장의 밀도가 공간을 만드는 입장에서 서로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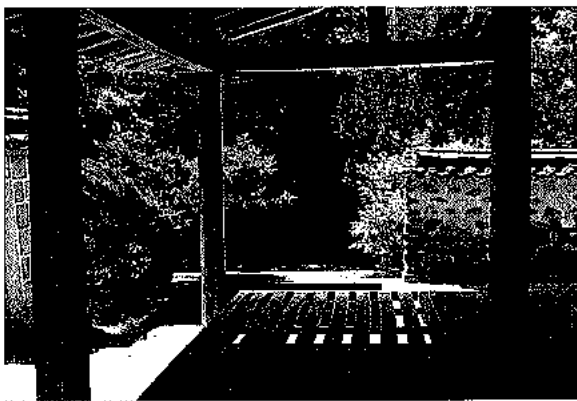


그림 9. 도산서당

5. 시사이드

미국 플로리다의 작은 도시 펜사콜라에서 30분쯤 떨어진 곳에 시사이드라는 휴양도시가 있다. 트루만쇼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이 마을은 미국 서부시대 초기의 길 개념으로 짜여진 마을구조와 개개의 건물을 통제하는 마스터플랜에 의해 영화세트 같은 인상을 준다. 잠깐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픈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장소이다. 인접한 멕시코만의 바다로 연결되는 길은 해변보호법에 의해 조그맣게 나있는 통로로만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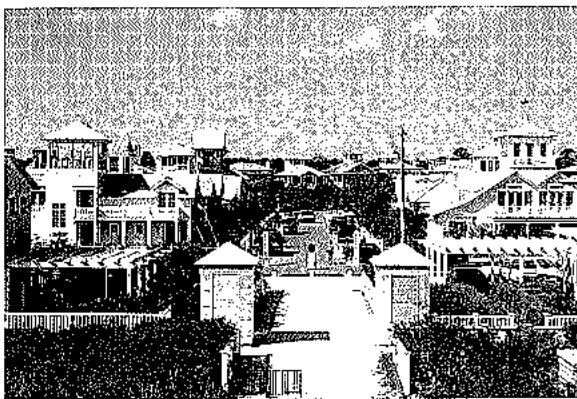


그림 10. 시사이드

6. 부석사

아무런 기대도 없이 범종각 밑의 기둥사이를 걷다보면, 계단위로 한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모습이 있다. 안양루와 무량수전이 하나의 셋트가 되어 보여지는 장면이다. 사선으로 보여 지는 긴 기단위에 넓은 창공을 바탕으로 날아가는 듯이 펼쳐진 안양문과 그 뒤를 감싸는 무량수전의 장대한 전경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우아한 모습이다. 이 모습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량수전은 안양문의 좌측으로 약간 치우쳐 배치되어 있어 두건물이 만드는 전경은 시각적으로 강조되어 보여진다.



그림 11. 부석사

7. MIT 베이커 하우스

알바 알토의 MIT 기숙사 건물 앞 잔디이다. 건물이 곡면으로 되어있고, 입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은 없으며 시각적으로만 보여지는 잔디마당이다. 길로부터 기숙사 개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벽돌벽의 붉은 색조를 띄는 곡면의 벽체와 초록의 잔디밭 외부공간이 만들어내는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MIT 채플과 함께 곡면의 벽돌벽이 만드는 우아한 맛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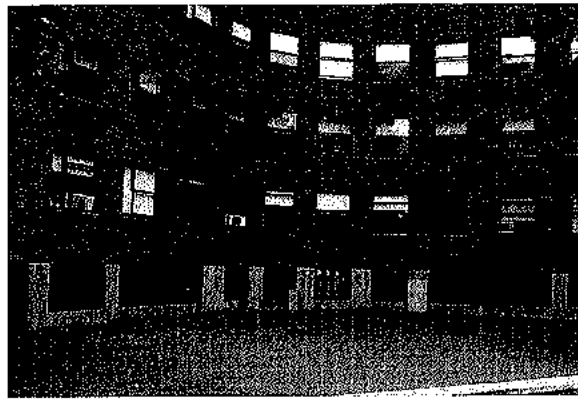


그림 12. MIT 베이커 하우스

8. 나라 전통주거지

일본 나라의 호류지(法隆寺) 옆에 보존 전통주거지가 있다. 현대적으로 개조한 건물도 있고, 어울리도록 지은 현대 건물도 있지만 몇몇의 건물은 원형 그대로 사용되며 일반에게 공개된다. 그 주택중의 하나로, 방과 외부공간이 적절히 얹히며 공간이 관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세장한 대지구획에 의해 필연적으로 공간의 층차적 구성이 이루어졌으며, 이곳에서 공간의 깊이감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림 13. 나라 전통주거지

9. 영암댁 안채 출입구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의 양반댁인 영암댁은 사랑채와 안채의 구성이 전형적인 양반가옥의 형태를 띄고 있다. 바깥으로부터 안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옆으로 난 출입문으로 들어서야하는데, 그 문의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도록 그자 모양의 헛 담장이 쳐져있다.



그림 14. 영암댁 안채 출입구

건축적 요소가 목적을 갖겠지만 그 시대의 중요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헛 담장은 문화가 변화된 현대적 건축공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역사의 아이러니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가벽은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지 궁금하다.

10. 서양미술관

르코르뷔제가 설계한 최초의 미술관이며, 일본에 지은 유일한 건물인 서양미술관은 노출콘크리트의 부분적 활용과 PC 공법, 모듈의 철저한 적용, 미술관 자연채광을 위한 조명 코리도 등의 기발한 기법, 그리고 사진기술의 응용 등 1959년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건물로서 평가된다. 사진에 보이는 중앙홀은 12m X 18m X 8.9m(높이)의 장방형 공간이지만 경사진 램프가 3중으로 겹쳐있고, 2층 발코니의 돌출과 후퇴, 1층의 셋백, 진입 축의 꺾임, 그리고 중앙의 2개의 기둥과 대형 삼각형의 천창의 구성이 서로 서로 물샐틈없이 짜여진 듯한 느낌이다.

11. 파이스트 광장

싱가폴에 있는 기존의 주거지의 길을 이용하며 보행물로서 리노베이션한 사례이다. 시간으로 축적된 역사 도시의 자원을 현대적인 경제적, 기능적 요구에 맞춰 조정하고 있다. 노란색의 기존 주거의 외부를 내부 공간화하여 활용하며, 철판이프 구조는 기존 건물의 형태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능에 대응하기 쉽고,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강재요소와 어울리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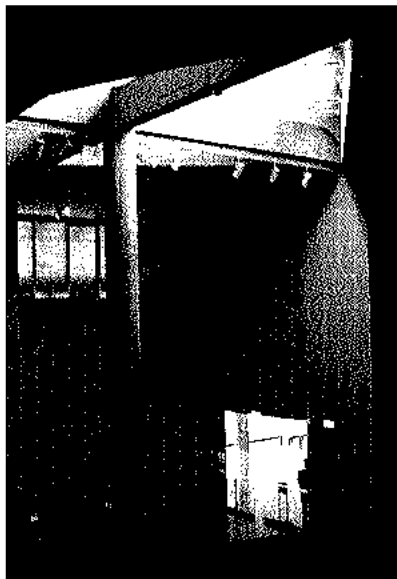


그림 15. 서양미술관



그림 16. 파이스트 광장

12. 홍콩 첵랍콕 공항

공항의 내부모습이다. 부드러운 빛을 투과하는 곡면 모양의 천정 구조를 통해 반복의 구조모듈을 만들어내며 대형의 내부 공간을 만든다. 사진은 그 한 모듈을 찍어 마치 천정이 나비날개의 대칭된 모습처럼 연상되도록 하였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나비의 모습은 공항의 지붕모양으로 응용될 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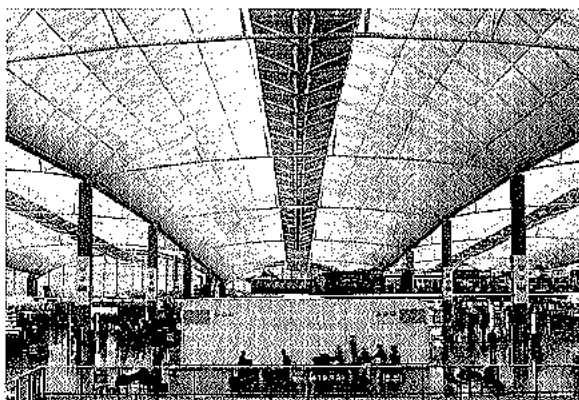


그림 17. 홍콩 첵랍콕 공항

13. 파리의 도시블록

에펠탑에서 찍은 파리 도시블록의 모습이다. 블록형 주호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여진다. 파리의 주요지점을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시선축을 만들면서 블록들은 가로에 면하여 남겨진 부분들을 채우고 있다. 블록의 내부에는 중정을 만들어낸다. 일정한 두께를 갖는 블록은 오랜 시간을 두고 규범화된 파리의 문화적 전통을 보여준다.



그림 18. 파리의 도시 블록

14. 지리산 쌍계사

쌍계사의 돌담과 그 사이에 나있는 통로이다. 통로는 문도 없이 벽이 끊기며 연결된다. 게이트로 표현되는 문이 있느냐 아니면 문이 없더라도 벽만 없다면 다른 곳에 갈 수 있

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세계에 갈 수 없다면 문에 대한 정의와 의미가 분명하게 주어져야 하지만, 막히지 않은 곳으로는 아무 곳이나 갈수 있다면 보다 자유롭게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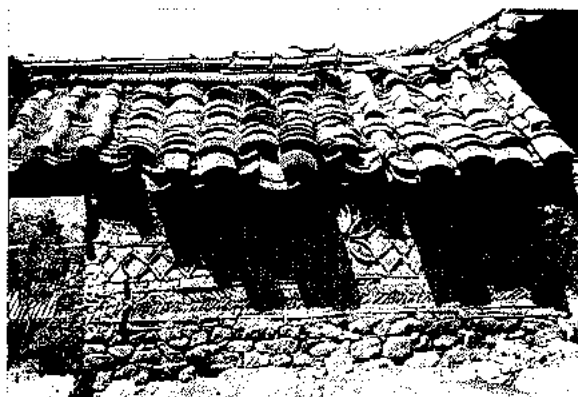


그림 19. 지리산 쌍계사

15. 백베이

약 100년전에 형성된 보스톤의 백베이 지역이다. 기존의 구시가지의 무질서에서 벗어나 찰스강을 매립하면서 생긴 평탄지에 직교그리드 체계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낸 곳이다. 서울과 비교하면 압구정과 같은 곳이다. 세장한 가로망의 앞뒤로 형성된 대지에 들어선 건물들은 가로로 건물의 전면으로 한 가로형 건물이다. 반지하층과 1층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어 있는 출입구는 가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림 20. 백베이

16. 로텐부르흐

도시의 남쪽 고성의 모습이다. 중세의 모습을 간직한 고대 로텐부르흐는 성곽으로 둘러싸여 보존되는 독일의 전통 마을이다. 유럽성의 첨탑과 돌벽, 경사지붕, 아치형

문등이 과거를 암시하는 가을의 분위기에 잘 어울려 보이는 모습이며, 문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들의 뒷 모습과 어우러져 어디론가 돌아가고 마는 인간의 속성이 표현되고 있다.



그림 21. 호텐부르흐

17. 베르사이유 궁전의 정원

궁궐의 뒷부분으로 넓은 잔디와 긴 장방형의 연못, 그리고 주변에 기하학적으로 배치된 나무들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조 의지를 알려주는 듯하다. 삼각형으로 전지된 나무들은 직교와 사선의 줄을 맞춰 도열하듯 배열되어 시선축을 잇고 있으며, 직교하며 놓인 정원과 호수 역시 사선의 축으로서 공간의 확장성을 설명해준다. 파리시내의 도시구조에서 보이는 시선축이 임의적이지 않은 연관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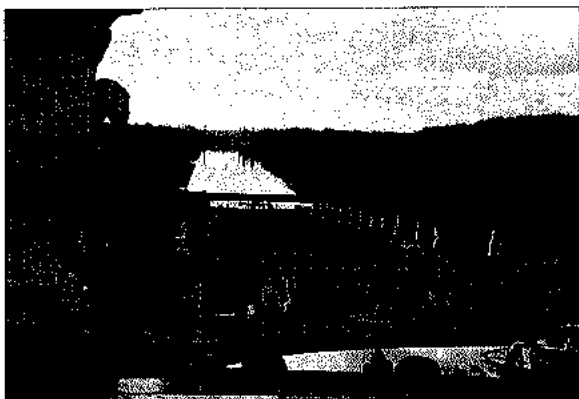


그림 22. 베르사이유 궁전의 정원

18. 주장

동양의 베니스로 불리우는 蘇州 인근에 위치한 周莊이라는 곳의 모습이다. 소주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반면, 주장은 크게 알려져 있지 않아 옛 모습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배가 다니는 운하가 마을 곳곳을 지나도록 되어 있으며, 그것과 얽혀 육지의 좁은 보행공간

간이 그물처럼 짜여져 있다. 물과 건물의 연결 방식, 물과 길의 연결방식에서 길과 건물의 연결방식을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준다. 보존된 옛 집들이 많아 중국의 고전 건축을 보기에도 좋은 곳이다.



그림 23. 주장

19. 병산서원

안동의 하회마을 옆에 있는 병산서원의 모습이다. 마을에서 떨어져 있어 한적하면서 작은 경사를 오르면서 서원의 전형적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사진은 서원마루에서 만대루라는 누각을 보며, 그것을 관통해 낙동강과 앞 산을 보여준다.

묘자형의 마당과 사방이 둘러있는 만대루는 바람과 시선이 흐르는 건축공간의 특징을 느낌으로 전달해준다. 그리고 한국건축의 특징이기도한 이와 같은 효과는 건물 밖에서 미리 예견되지 않는 점이 또한 특징이다. 작은 경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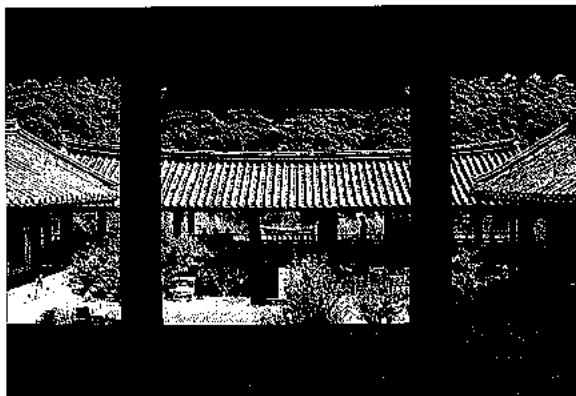


그림 24. 병산서원

20. 오클랜드 미술관

샌프란시스코에 인접한 오클랜드에 있는 케빈 로쉬가 설계한 미술관이다. 건물의 주된 부분을 지하로 넣고 지붕은 잔디와 나무로 가꾸어진 정원으로 처리되어 있다.

지금은 나무가 더욱 크게 자라 공원의 느낌을 한껏 주고 있다. 도심지 외곽에 위치하여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경관요소로만 사용되는 아쉬움이 남는 곳이다.



그림 25. 오글랜드 미술관

21. 하이델베르크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구도시 가로 모습이다. 역사속에서 누적된 건물들의 연속된 벽면과 길의 끝에 보이는 하이델베르크 성의 잔재가 도시의 정체성을 높여주고 있다. 원재료의 색인 빨간 지붕으로 일체화된 도시의 풍경과 중심되는 성령교회.

그리고 산길의 하이델베르크 고성아 만들어내는 도시의 풍경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역사 도시의 장관을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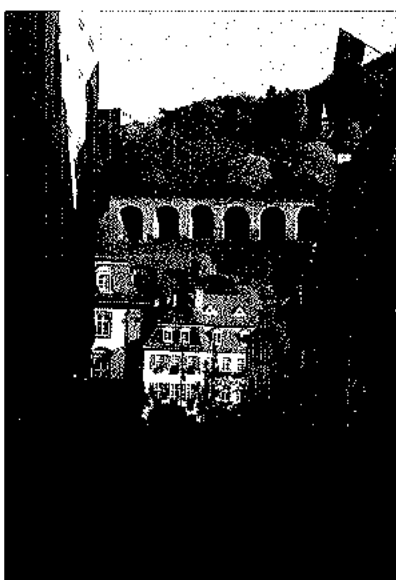


그림 26. 하이델베르크

22. 드골공항

파리의 드골 공항안의 탑승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천정의 모습이 마치 콩코드를 연상시킨다. 촘촘한 철제 프레임의 그물 구조로 된 천장에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슬라브로 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한 공항의 모습에서 이미 비행기를 타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직설적이지 않으면서도 이미지 연상에 성공한 사례로 생각되며 그 과감한 형태에 매료된다. 유선형의 형태는 공항 밖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23. 커넬시티

후쿠오카의 커넬시티(운하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복합건물이다.

호텔, 사무실, 백화점, 영화관, 문화시설, 쇼핑센터가 후쿠오카의 하천을 본 따 만든 인공하천을 끼며 조성되어 있다. 인공하천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유동치듯 곡면화된 건물벽면이 띠를 이루며, 사각형의 일반적인 도시건물과는 다른 맛을 준다. 도시속의 작은 도시로서 MXD(Mixed Use Development)도시개발 방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24. 라이프치히 역사

구 동독의 라이프치히 역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역이다. 종착역으로서 열차와 보행자공간이 동일레벨로 연결되며 거대한 콘코스를 형성한다. 내부공간은 지하공간과 함께 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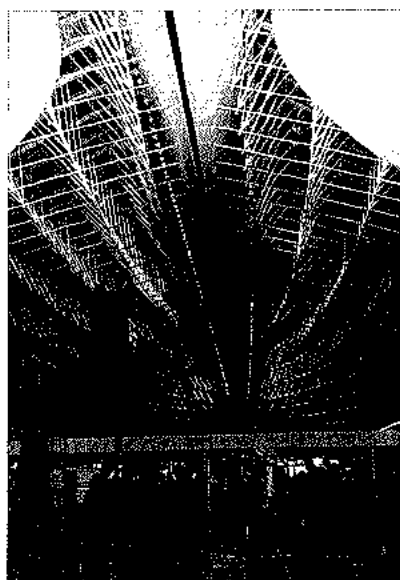


그림 27. 드골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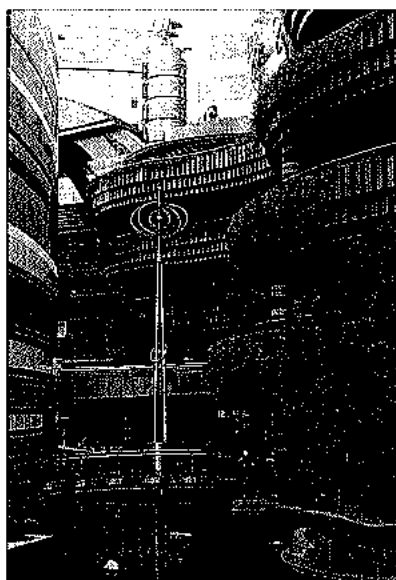


그림 28. 커넬시티

평공간으로 리모델링되어 있으며, 아치형의 대형 지붕이 쇼핑몰과 콘코스를 덮고 있다. 기차역의 크기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던 공간으로부터 다른 세상으로 떠나려는 여행자에게 세상의 거대함을 미리 인식시켜주는 듯하다.



그림 26. 라이프스타일 역사

25.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중국 重慶에 있는 구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건물이다. 지금은 청사 박물관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지만 해방전 마지막 중국에 있었던 임시정부 청사 건물이다.

김구 선생의 유품과 광복군의 체취를 엿볼 수 있기도 하지만, 푸른기가 나는 전돌 모양의 벽돌을 사용하여 5층 높이의 경사지에 세워진 4동의 건물은 건물사이에 형성된 좁은 길의 분위기를 음산하면서도 짜여진 공간으로 느껴지게 한다. 임시정부청사로 사용되기 이전에는 여관 건물이었다는 설이 있으며, 해방후에는 50여호의 중국인

들이 거주하는 주호로 사용되다가 국교가 수립된 1990년 이후 발굴되어 1995년에야 복원 일반에게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26. 이튼 몰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이튼 몰이다. 대규모의 상업화된 내부 몰 공간으로서 특징을 보여준다. 한쪽벽면으로는 주차 공간이 있으며, 다른 한쪽은 사무실 공간이 상층부를 이루고 1층 및 지하층, 지하 2층으로 쇼핑공간들이 배열되어 있다. 보행물은 상하로 뿔려있으며 커다란 나무가 가로수처럼 심겨져 있어 언뜻 외부공간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캐나다의 추운 겨울이 우리나라의 명동과 같은 길을 내부화된 쇼핑몰로 만들어낸 것으로 보여진다.

27. 유태인학살 기념관

리베스킨트가 설계한 베를린의 유태인학살 기념관이다. 옛건물의 구관으로 진입하여 지하공간으로 연결되는 신관은 유태인학살의 잔혹함을 상징하는 어둠과 긴박도 그리고 창이 건물을 관통하는 듯한 기둥과 보의 무작위한 관입과 인류의 미래를 암시하는 찢어진 틈으로부터의 빛의 화살이 일관된 주제로서 인식되는 건물이다. 공간을 느낌으로서 건물의 주제를 인식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건물 중의 하나이다.

28. 효고 현립 미술관

일본 고베에 있다.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몇 안되는 대형



그림 30.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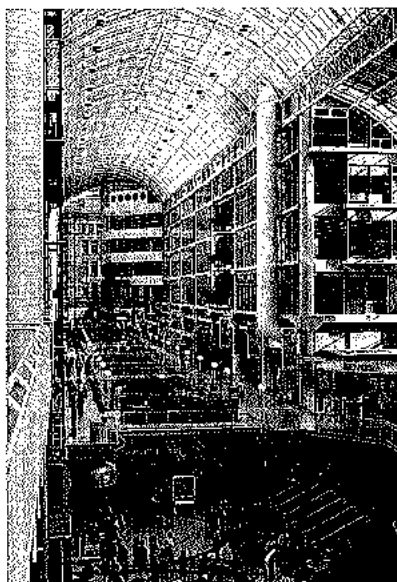


그림 31. 이튼 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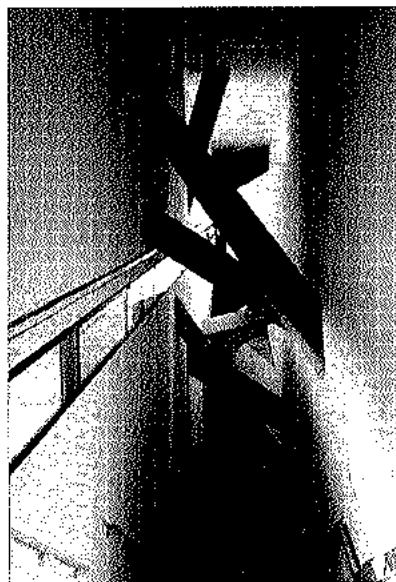


그림 32. 유태인학살 기념관

건물중의 하나이다. 차갑게 느껴지는 단조로운 실내공간이
 엿보이기도 하고, 상하공간이 오픈된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
 으로 안도 다다오의 아가자기한 맛이 보여지지 않는 건물이다.
 건물 동 사이의 휴게공간에서 안도가 좋아하는 시각적
 효과의 공간을 볼 수 있다. 추상적 기하학의 원형의 선과 공
 간으로부터 올라오며, 대형 벽면의 투시도적 공간속에 층층
 이 구성된 수평 매스와 수직적인 매스의 대비가 시각적 초
 점을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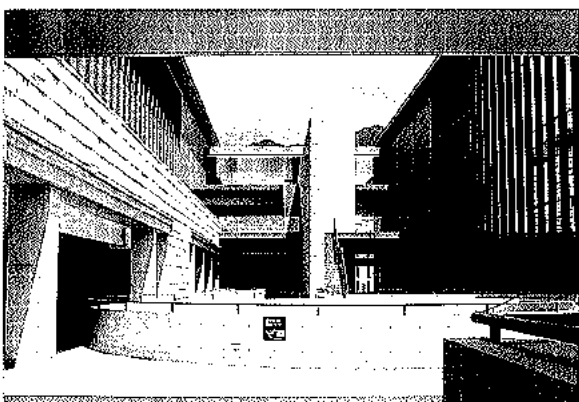


그림 33. 요고 한림 미술관

29. 소크 생물 연구소

미국 샌디에고에 루이 칸이 설계한 소크 생물 연구소
 실험동 안쪽 통로 공간이다. 소크 연구소는 콘크리트 벽
 면으로 둘러싸인 중정에서 태평양으로 바라보는 전경이
 감동적인 곳이기도 하지만, 연구동 안쪽으로 노출콘크리

트 벽면의 수직과 수평의 조합속에서 스며드는 빛의 방
 향에 따라 만들어내는 벽면의 질감변화가 은은한 맛을
 자아낸다.

30. 콜롯세움

로마의 콜롯세움 원형경기장 객석 사이의 통로 공간
 모습이다. 2천년을 견뎌온 아치형태의 벽돌구조가 강인
 함을 주면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유도한다. 구조체의 시
 간흐름과 사람들의 움직임의 시간흐름이 교감을 일으키
 는 장면이다. 현대건축의 스타디움에서 볼 수 있는 경기
 장과 객석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2천년 전의 이곳에서
 볼 수 있다

31. 폼페이의 가옥

제누스 화산의 폭발과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낸 폼페이의 한 가옥의 모습이다. 출입구를
 들어서면 장방형의 연못이 있는 홀을 지나 실내 기둥이 있
 는 내부 공간으로 들어간다. 로마인의 생활습관과 공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이 잔재는 르코르뷔제의 스케치에서 재
 현되었으며, 그의 건축 표현에 실내기둥의 출현을 암시하는
 장면이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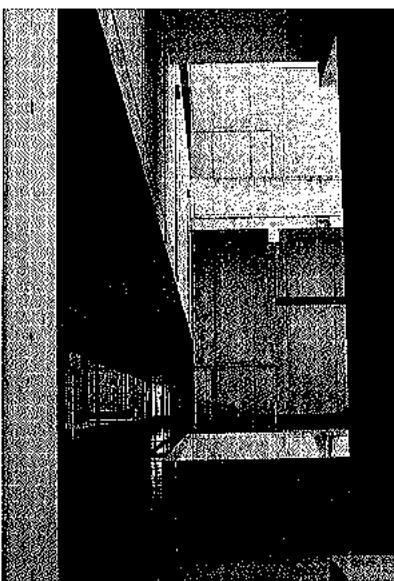


그림 34. 소크 생물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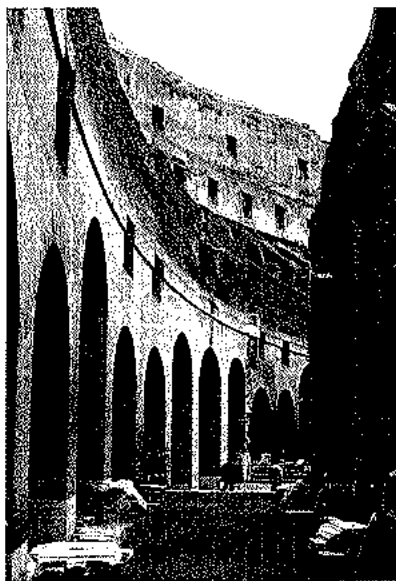


그림 35. 콜롯세움



그림 36. 폼페이의 가옥

본 협회 현상설계를 바라보며

Observing the Institute's Design Competition

박영순 / 건축사사무소 상화

by Park Young-Soon

서울 서초동에 건축사협회가 들어선 지 20여 년 동안 많은 역할을 해온 건축사협회 회관이 구조노후화와 많은 갈등 속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 중요한 시기를 함께 하게 된 회관건립위원회 일원으로서 그동안의 프로세스를 협회생각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으로 짧게 정리하고자 한다.

혼란의 시기가 오히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일 수 있다고 하듯이 어쩌면 이번 기회가 많은 회원들에게 협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로 이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상설계를 신청한 76개 작품 중에서 마지막까지 제출한 작품은 20개뿐이라는 결과는 씁쓸한 뒷맛을 느끼게 할 뿐이다. 더 많은 회원들이 불꽃 튀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멋진 우리의 집>을 함께 고집어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일부 혹자는 현상설계에 참여하고 싶어도 회원들이 뱉어낼 엄청난 화살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변명 같은 말을 하기도 하고, 서로 너무 잘 아는 건축사들 간의 경쟁(?)을 우려해서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듯하다.

또 다른 이유는 20년 전 젊은 건축사 송광섭이라는 스타를 만들어냈듯이 모처럼의 기회를 젊은 후배 건축사의 등용문으로 인식하신 선배들의 양보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한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상설계에 더 많은 작품이 나오지 않은 결과는 협회가 충분히 검토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성이 있다 없다하는 문제를 떠나서 마지막까지 작품을 고민해주시고, 최종 작품을 제출해준 20명의 건축사에게 진정으로 찬사를 보내고 싶다.

회관건립 문제는 처음부터 8,500여명 전국 회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총회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터라 협회 관계자들이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 와중에도 시기적으로 더 이상 늦어질 수 없어서 발 빠르게 진행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많은 건축사들이 현상설계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공통적인 경우가 당선안 1등에 들어가지 못하면 한 달 이상 밤새면서 고민한 계획안이 더 이상의 토론이나 햇볕도 보지 못한 채 천덕꾸러기처럼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경우는 심사위원들의 너무 짧은 심사와 정에서 미처 계획한 건축사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건축 디자인 보다 도면 효과나 모형 등으로 평가되는 게 아쉬웠던 경험들을 토로해왔다. 이번 건축사회관을 현상설계하면서 우리끼리라도 서로에게 동반자역할을 하고, 끝마무리가 되었을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뜻을 회원 모두에게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작은 토론회를 갖기도 했지만 실제로 소수만이 참여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제시해주신 아이디어 몇 가지를 보면:

- 이번에는 제대로 시간을 갖고 회원 모두의 잔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 심사는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하거나
- 계획에 참여한 건축사가 자신의 작품을 제외해서 심사하면 좋겠다는 의견
- 충분한 임대면적의 확보로 회관이미지보다 경제적 부가 가치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 우리 회원 모두가 심사위원이 되어 전시작품에 한 표씩 표를 행사해서 집계하자는 의견
-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건축계 전반의 행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건축사협회회관이 중추적인 장소로 쓰이면 좋겠다는 의견
- 획기적인 작품으로 국내외의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등

깔아놓은 명석보다 앞, 뒤에서 더 많은 의견이 분분했지만 드디어 지난 11월 28일 20개 작품으로 이번 현상설계는 마감됐다.

전국 시도회원의 <많은 심사위원 참여>의 의견을 수렴해서인지 1차에서 55명의 심사위원이 선정되었고, 그 선정된 심사위원 중에서 그날 40명이 1차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역대 현상설계에 없었던 40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1차 심사위원들은 협회의 큰 잔치로 이벤트를(?) 구성이 되긴 했지만 심사과정의 합의점으로 도달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그런 점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심사위원이었기에 많은 분들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해주었고, 디자인 컨셉이 바뀌지 않는 한 충분히 가능성 있는 7개 작품으로 선정이 된 것이다.

일부에선 더 좋은 작품을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소수의 지명설계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회원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려고 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전문가다운 표현이 모자라는 작품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7개 작품을 더 가다듬고, 보충해서 최종 2차 심사를 해야할 것이다. 12월 말이면 2차 심사에서 당선안이 확정되고, 그 당선된 안으로 2004년 한해는 바쁜 공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본 협회는 다른 현상설계와 달리 깔끔하고 합리적으로 마무리 되길 바란다.

그러기위해서 1차와 2차에 제출된 스테디 모형과 도면은 전이나 책자를 통해 현상설계에 참여한 건축사의 계획의지도 심도 있게 다뤄서 제대로 된 결과물로 정리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나 단체에서 리더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알고 있다.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건 우리가 그 방향을 바라보려고 했는가 하는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대안 없이 툭툭 내뱉는 말들은 일을 그르칠 때가 더 많았다. 이젠 우리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주인의식을 갖고 협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건축사>라는 직업이 정말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요즈음에 비전 있는 미래를 제시해줄 수 있는 멋진 회관이 탄생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역사적으로 재창조되는 건축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작품을 내시느라 애쓴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

건축계소식 /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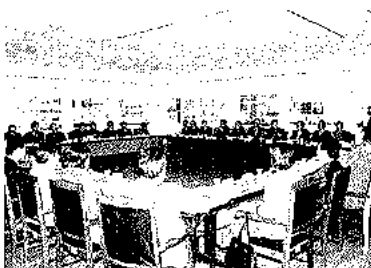
현상설계 / 72

해외잡지동향 / 86

건축계소식 archi-net

우리협회「회관재건축 현상설계」 1차 입상작 발표

1차 7개 작품선정, 최종당선작 12월 31일 발표



심사평경

우리협회 회관재건축위원회는 회관 재건축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총 20개 작품이 접수되어 지난 12월 3일 협회 1층 갤러리에서 본협회 고문, 임원, 시도회장, 건축3단체 추천, 회관 건립위원 추천에 의해 구성된 총 40명의 1차 심사위원회에서 표결에 의해 7개 작품을 선정했다. 최종입상작발표는 12월 31일 있을 예정이다.

〈1차 입상자〉

오근석문 호/(주)유진인내내설종합건축사사무소
하진수/(주)건축사사무소 수목씨에스티
이규환/(주)성문메타건축사사무소
이대형/(주)도연건축사사무소
조민석/단이건축사사무소
노형래/(주)전정종합건축사사무소
한 철/종합건축사사무소 수목에이엔에이(주)

전북건축사회 등반대회 개최



전북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0월 17일 인근지역 건축사회(전북, 충북, 경북)간 친목도모와 우의증진을 위한 삼도봉(전북 무주 민주시산) 등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총 105명(전북 30, 경북 48, 충북 27)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제13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

2004년 4월 30일까지 접수

김태수 건축여행 장학재단에서 해외건축 여행기금으로 미화 \$10,000을 수여하는 제13회 김태수 해외 건축 여행 장학제를 개최한다. 젊고 유능한 건축가에게 교육과 해외건축여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성된 이 기금은 수령자 본인이 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 목적이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만 35세 미만의 국내에서 건축학위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수상자는 포트폴리오 심사후 예선 통과자를 선정하고, 예선 당선자에

한해 여행목적 및 계획을 받아 2차 면접심사를 거친 후 최종 1명이 선발된다. 2004년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문의: 02-569-1536 www.tskaf.org

제22회 대한민국건축대전

대상에 「3Ds of Two Paths-보수동
현책방골목 거리문화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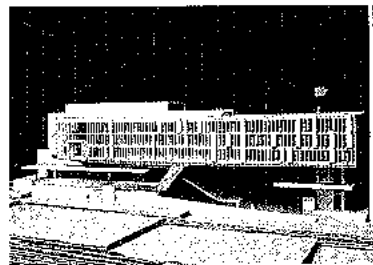
한국건축가협회에서 개최하는 올해 건축가축제가 지난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제22회 대한민국건축대전 일반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해 초대작가 전시회, 2003건축가협회상 수상작, 제8회 건축사진전 수상작 등이 함께 전시됐다. 올해 건축대전 일반공모전은 '도시의 찬미, 도시의 축제 (Celebration of Cities)'라는 주제로 치러져 총 2,079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1차심사와 2차 본심사와 공개심사를 거쳐 대상 1작품, 우수상 4작품, 특선 6작품, 입선 109작품 등 총 120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성재원(부경대)씨의 '3Ds 오브 투 패스-보수동 현책방골목 거리문화 만들기'가 수상하였고, 우수상은 윤성훈(홍익대)씨의 '컬처럴 인터록킹 (Cultural Interlocking)-낙산 역사박물관 및 시민문화시설', 이성혜(한양대)씨의 '멀티미디어 아트센터 계획안', 김영주(고려대)씨의 '공명(Resonance)', 주현근(국민대)씨의 '무비 팩토리(Movie Factory)'가 수상하였다. 심사는 강건희(홍익대교수, 심사위원장), 박항섭(경원대 교수), 권문성(이필리에17), 장용재(원도시간축), 최재희(블루스튜디오), 허서구(건축사무소 허가방)씨가 맡았다. 한편 제25회 한국건축가협회상에는 공순구 임채진 씨의 '국립춘천박물관', 박승홍 씨의 '서울신학대

학교', 정영선 조성룡 씨의 '선유도공원', 권문성 이경락 씨의 '안성맞춤박물관', 김인철 씨의 '펼쳐지는 집-성동구 행당1동 청사', 김상식 김용미 김현철 씨의 '한국소방검정공사', 우경국 씨의 '아크로스'가 선정, 전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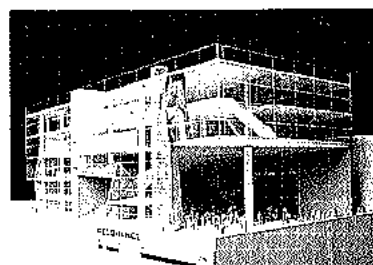
문의: 02-744-8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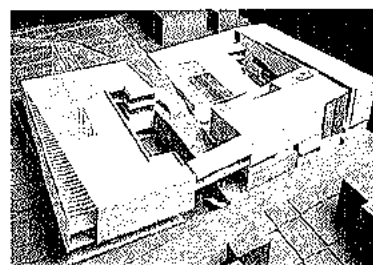
대상 / 성재원씨의 '3Ds 오브 투 패스-보수동 현책방골목 거리문화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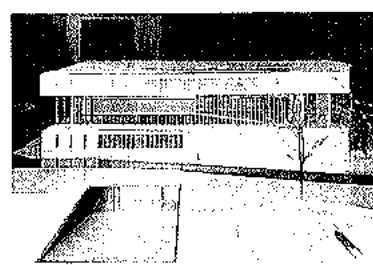
우수상 / 주현근씨의 '무비 팩토리'



우수상 / 윤성훈씨의 '컬처럴 인터록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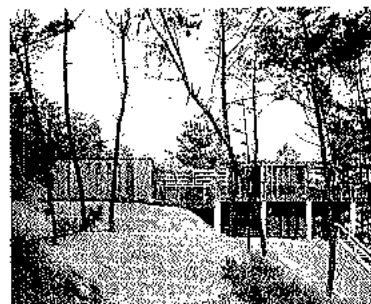
우수상 / 윤성훈씨의 '컬처럴 인터록킹'



우수상 / 이성혜씨의 '멀티미디어 아트센터 계획안'

2003 한국목조건축대전

대상에 「만리포입해연수원(일건 C&C건축)」



만리포입해연수원

사단법인 목재문화포럼과 산림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건축단체연합(FKA), 매일경제신문,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가 후원하는 2003한국목조건축대전이 열려 지난 11월 28일 임업연구원 산림과학관에서 수상작에 대한 시상과 전시가 사단법인 목재문화포럼 창립기념 심포지엄과 함께 있었다. 이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열려 총 27개 작품이 출품되었다. 1차심사에서 6개작품이 선정되어 2차 현장심사를 거쳐 만리포입해연수원(일건C&C건축/최관영+정동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본상에는 '북 카페 및 주택' (박철휘주현+김은미), '해남 공룡화석지 보호각' (금성종합건축/김홍식+김상식), '풍동주택-민마루4' (가외종합건축/최삼영), '난지천공원 휴게실' (솔토건축/장재소),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노뚝돌건축/이윤하) 등 다섯 작품이 선정되었고, 국민대학교 목조건축디자인센터는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심사는 원정수(간삼건축)씨를 위원장으로 김낙중(건국대), 김병현(창조건축), 김진희(국민대 목조건축디자인센터), 이진제(서울대 임산공학과)씨가 맡았다.

건축과 철학의 만남 - 철학아카데미 겨울강좌

12월 16일부터 8주 동안

살아 있는 사유를 펼쳐는 젊은 철학자들의 공동체 철학아카데미가 2003년 겨울강좌를 개설했다. 그 중 정만영교수(서울산업대학교)의 건축의 눈으로 본 철학/철학의 눈으로 본 건축은 근대 이후의 건축과 철학이 보다 직접적으로 서로에게 작용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양자간의 접점을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건축작품으로 내면화되었는가를 살펴볼게 된다. 12월 16일부터 8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 열릴 이 강좌는 건축적 사고의 틀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 www.acaphilo.or.kr

고건축 사진 공모 - 박재영 '도산서원' 수상



박재영 / 도산서원

지난 20여년간 한국의 고건축을 소재로 한 흑백사진으로 캘린더를 제작해 온 (주)기린산업이 주최하는 제4회 고건축 사진공모에서 박재영(바원건설)씨의 '도산서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김석환(터·울건축)씨

의 '병산서원', 장려상에는 소은선(주.아도무건축)씨의 '도산서원'과 피영준(창조건축)씨의 '도동서원'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들은 2004년 캘린더로 제작될 예정이다. 한편 2004년 제5회 고건축 사진 공모전의 주제는 '성(城)과 주변건축물'이며, 11×11 또는 11×14(인치) 크기의 무광 인화지 흑백사진으로 2004년 9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1점 200만원, 우수상 1점 100만원, 장려상 2점 각 50만원, 입선 9점 각 20만원 등이 주어지며 2005년 캘린더로 제작된다.

문의: 02-2106-7155

예술의 전당

도시환경에 디자인 III - 디자인이 있는 거리

2004년 1월 25일까지

오는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예술의 전당이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도시환경과 디자인 III - 디자인이 있는 거리'전이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해 간판과 디자인 전에 이은 세 번째 '도시환경과 디자인' 기획전시로 맹형재(건국대 제품.환경디자인학과)교수와 김명환(전서환경디자인)씨가 전시기획을 맡았고, 박석훈(건국대 제품.환경디자인학과)교수가 전시연출을 맡았다. 이번에 개최되는 전시는 도시의 공공환경을 구성하는 벤치, 휴지통 등 가로시설물의 현실과 문제점을 조망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연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디자인을 제시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거리의 가구들을 사람, 사물, 사회, 공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존재로 파악하여 휴식(사람-사물), 만남(사람-사

람), 질서(사람-사회), 이동(사람-공간)이라는 4가지 주제로 12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부대행사로 서초구 내 특정지역에 전시 출품작 중 일부를 설치하는 '아름다운 벤치가 있는 공간'이라는 이벤트와 갤러리 토크 등이 있을 예정이다. 12월 20일 오후 2시에는 '아름다운 거리를 위한 디자인(가칭)' 세미나도 있을 예정이다.

한옥문화원 건축강좌

'내 집을 지읍시다'와 '아파트를 한옥처럼' 주제로

2004년 1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옥문화원에서 '내 집을 지읍시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연다. 집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터잡기, 설계 등 한옥짓기의 모든 과정을 9명의 현장 전문가를 통해서 각 분야를 습득하는 자리이다. 강의는 이론과 현장강의가 병행된다. 내 집으로 한옥을 짓고자하는 일반인과 한옥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하는 연구자들과 한옥을 알고자하는 건축 및 인테리어 종사자들에게 입문과정으로 알맞은 강의이다.

또 한옥문화원에서는 2004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아파트를 한옥처럼'을 주제로 강의를 연다. 최근 주거 공간의 대부분이 아파트이며 한옥을 짓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으나 생활공간만이라도 한옥의 분위기를 내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하여 이 강좌는 선조들이 한옥에서 누려왔던 지혜와 격조를 오늘의 집 꾸미기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총 8명의 전문가에게 한옥의 다양한 강의와 현장강의가 병행된다.

문의: 02-741-7441

www.hanok.org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3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3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6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3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3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8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6-36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98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8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시 건축사회/(031)963-6902 · 평택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시 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시 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시 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시 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시 건축사회/(031)318-6712 · 안산시 건축사회/(031)460-9130 ·
 안양시 건축사회/(031)449-2698 · 외환부지 건축사회/(031)876-3458 ·
 천안시 건축사회/(031)805-0545 · 평택시 건축사회/(031)857-6140 ·
 오산시 건축사회/(031)375-8648 · 공주시 건축사회/(031)335-0140 ·
 광주시 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시 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시 건축사회/(033)531-8706 ·
 속초시 건축사회/(033)633-6083 · 영월시 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시 건축사회/(033)743-7293 · 춘천시 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94~6
 청주시 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시 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시 건축사회/(043)643-3568 · 충주시 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공주시 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시 건축사회/(041)934-3367 ·
 배재시 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시 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시 건축사회/(041)661-4551 · 홍성시 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시 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시 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시 건축사회/(063)852-3793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85-9944 · 384-7567
 목포시 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시 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시 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시 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강진시 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시 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시 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시 건축사회/(054)432-6668 ·
 문경시 건축사회/(054)533-1412 · 상주시 건축사회/(054)535-8915 ·
 안동시 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시 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시 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시 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시 건축사회/(054)244-6023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시 건축사회/(055)835-6870 · 거창시 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시 건축사회/(055)334-6844 · 마산시 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시 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 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 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시 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시 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시 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시 건축사회/(055)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시 건축사회/(064)733-5501

제14회 건축사진아카데미

2004년 2월 11일부터

청암건축사진연구소(대표 임정의)는 제 14회 건축사진아카데미를 2004년 2월 11일부터 4월28일까지 12주간 청암연구소(광진구 구의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참가인원은 선착순 12명이며 참가비는 30만원(학생은 20만원)으로 입금(외환은행 024-18-29934-0 예금주 임정의) 후 메일로 자기소개서를 보내면 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이론과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기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문의: 02-444-7088.

www.freechal.com/imfoto,
 imfoto@hanmail.net

[일정]

- 1- 건축을 보는 눈
- 2- 건축사진의 작업과정
- 3- 빛과 공간의 이해
- 4- 인공광과 자연광의 비교
- 5- 현대건축 촬영실기(고건축과 현대건축)
- 6- 각종모형촬영 이론과 테크닉
- 7- 인테리어 촬영 이론과 테크닉
- 8- 고건축사진의 표현방법
- 9- 고건축 촬영실기 답사 (1박2일)
- 10- 흑백사진 현상,인화실기
- 11- 건축과 프레젠테이션
- 12- 포트폴리오제작 및 총평

* 건축담사는 추후 결정되며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詩〉

“정한 수” 찬가

서인수/명진 건축사무소

기초를 튼튼히 갖추주는 정한 수여!
 동서남북 正眼함으로 확인하게되니
 기본구조가 철두철미하게 세워지네.

뚜렷한 방식으로 정하는 정한 수여!
 走행된 기준으로 질적 개선을 하니
 모미 있게 구성되어 본보기가 되네.

디테일을 섬세하게 하는 精한 수여!
 기술이 精密해 설계를 새롭게 하니
 다방면으로 창출되어 아름답게되네.

고요히 마음을 다스라는 靜한 수여!
 그대와 함께 靜觀하니 명안이 되고
 통찰력이 뛰어나게되어 고결해지네.

정기가 넘쳐서 악동하는 精투 수여!
 수많은 수행 끝에 확실히 鼎立하니
 새로운 착안으로 멋진 작품이 되네.

지혜를 압축시켜 빛내는 晶한 수여!
 단계별로 마스터하고 晶相하게되니
 그대가 明見萬里하여 인도하게되네.

ps. “정한 수”란 팔자가 확연히 청조/청시하는 수(壽)의 신 개념으로 단계별과정을 체험하고 원숙해야 비로소 頂上에 도달한다는 것.

중국서안CBD마스터플랜 / 72

부산디자인센터 / 76

천안대학교 · 천안외대 복지관, 체육관 / 78

자양1동청사 / 80

KT은평지점 / 82

은백고 · 구촌초등학교 / 84

중국서안CBD마스터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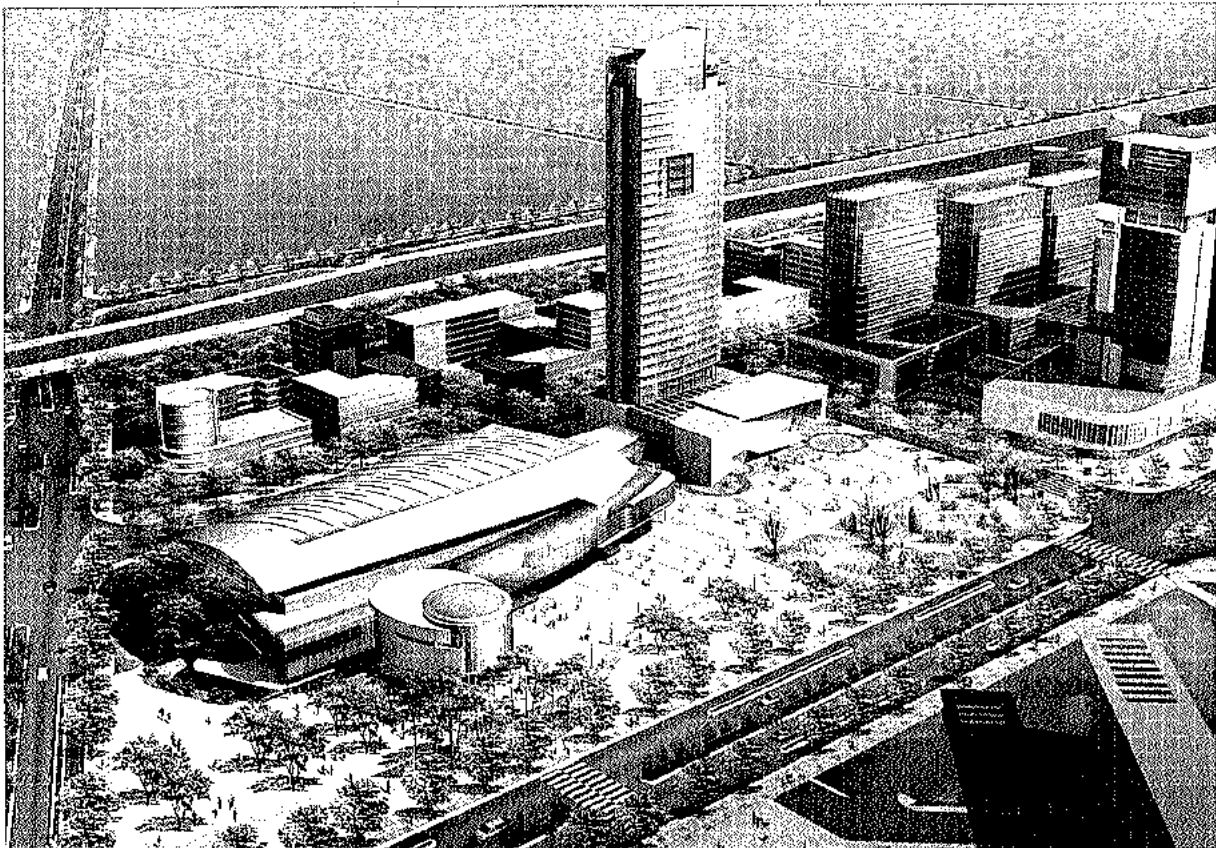
Xi'an Central Business District Masterplan

▶ 당선작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정영균) + 양우현(중앙대) + 김도년
(상운문화대)

이 현상설계는 과거 1,000년 동안 중국의 수도였던 역사적인 도시 서안에 CBD (Central Business District)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제 지명현상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현상일정은 2003년 7월 26일 현상 발표 및 답사를 시작으로 9월 23일 계획한 프리젠테이션과 당선안 발표가 있었다. 서안시와 언론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이 계획안은 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의해 당선안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중국 서안시 고신구 관리위원회에서 발주한 이 Master Plan현상은 한국의 희림 종합 건축

사사무소를 포함하여 일본의 Kisho Kurokawa Architect & Associates, 홍콩의 Ho & Partners Engineers & Architects Limited 의 3개 회사가 초청되어 경합을 벌였다.

대지위치	중국 서안
용도	상업, 업무시설
대지면적	1,537,816.18㎡
연면적	상업/업무 2,440,892.64㎡ 주거 748,518.40㎡ 전체 3,189,411.04㎡
용적률	상업/업무 4.35% 주거 2.16% 전체 2.07%
규모	상업/업무 최고 45층 주거시설 최고 3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프로젝트	디렉트 : 권기재 디자이너 : 최준성
설계팀	이규상, 최병기, 최문석, 정낙일, 상미향, 강정호, 김재철, 류무열, 류제희, 노재원, 이정하, 김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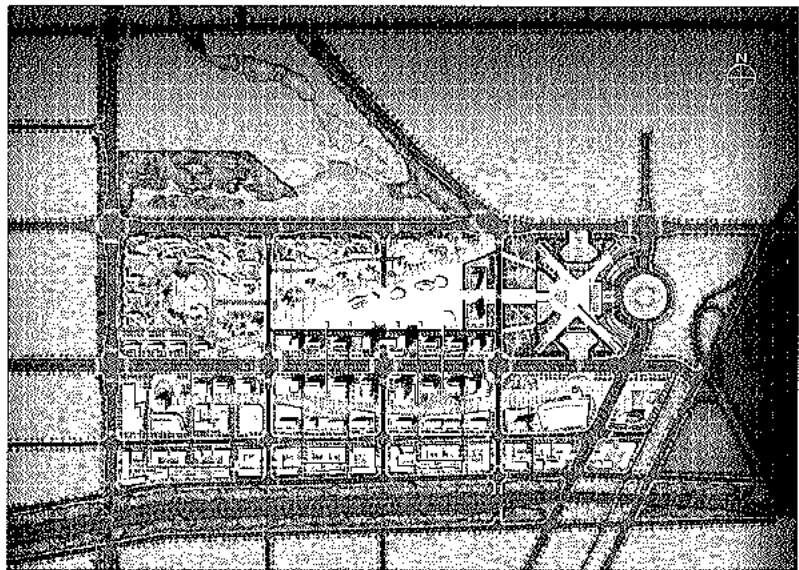


계획대지는 서안중심가에서 남서쪽으로 10Km, Shanxi 올림픽 센터의 남쪽에 있다. 주변지역은 첨단산업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계획부지는 그 첨단산업개발 지역의 핵심으로서 서안시 전체 도시 발전을 이끌도록 요청되었다. 그래서 국제적, 현대적 수준의 교통과 상업, 오락과 휴식, 사무와 주거가 하나로 어우러진 CBD를 제안하였다. 계획대지는 동서로 약 2.1Km, 남북으로 900m에 이르며 전체 대지면적은 195.7만m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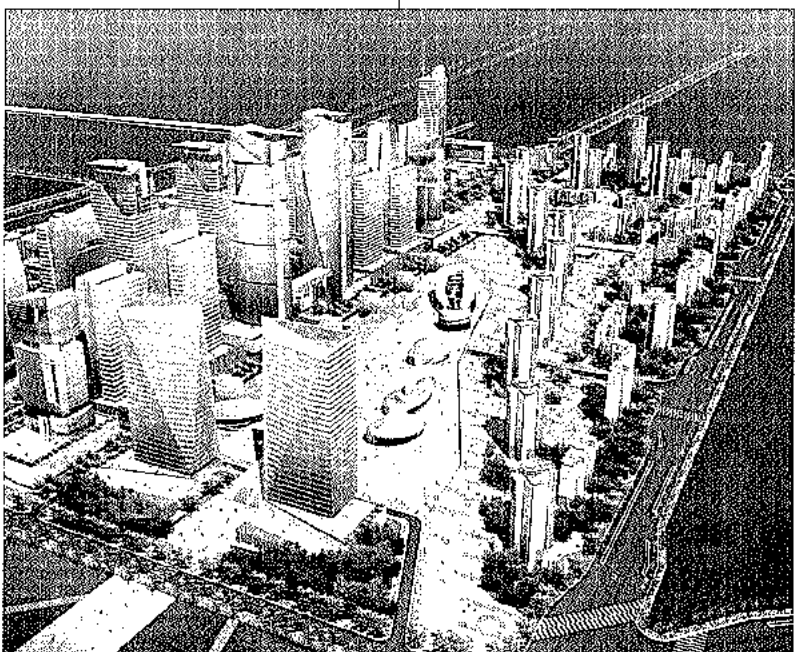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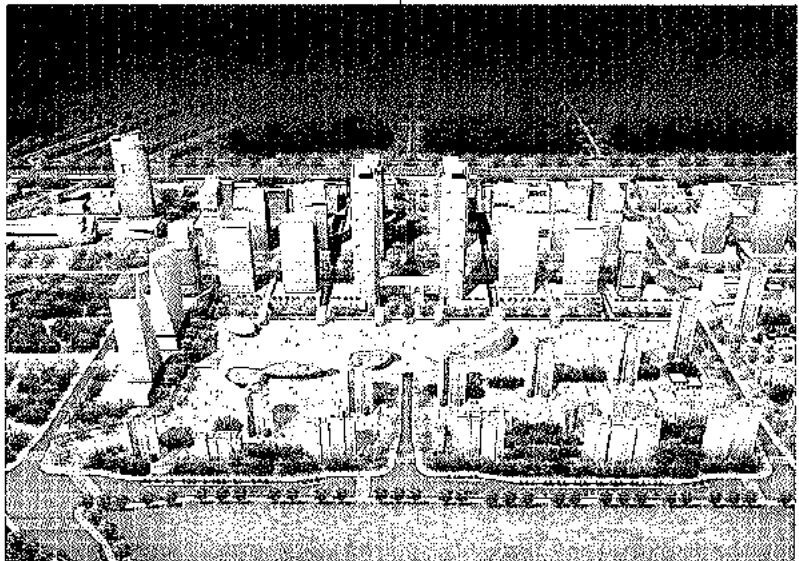
서안은 진시황의 찬란한 유적들과 Silk-Road의 시작점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관광도시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 3위의 교육도시이자 중국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첨단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또한 80년대 중반 "홍등", "붉은 수수밭"을 감독한 장이모 감독 등 중국 "제5세대 감독"들의 활동거점이자 중국 최초의 영화제작관련 주식회사가 설립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서안의 역사적, 산업적, 문화적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서안을 중국의 중심도시이자 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미래도시의 Vision을 담고자 하였다.

이 계획안에서 제시하는 서안의 미래도시상은 중국의 중심부에서 서방으로 뻗어가는 뉴실�크로드의 국제적, 역사적 관문도시 (Gateway City),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발산되는 첨단정보교류도시 (Information City)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 (Ecological City)이다. 첫째, 관문도시로서 도시의 활력을 일으키며 새로운 도시의 이미지를 인지시키는 일련의 랜드마크들을 계획하였다. 둘째, 첨단산업의 연구개발부터 업무, 최종전시에 이르는 기능적인 정보의 흐름과 보행자의 동선이 일치하는 Network를 계획하였다. 셋째, 생태적 도시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체도시가 적절한 위치와 크기의 공원과 녹지의 띠로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Master Plan계획에서의 주요 컨셉은 첫째로, 서안의 축적된 역사의 발현을 경험할 수 있는 오행광장 X-Park와 3개의 주요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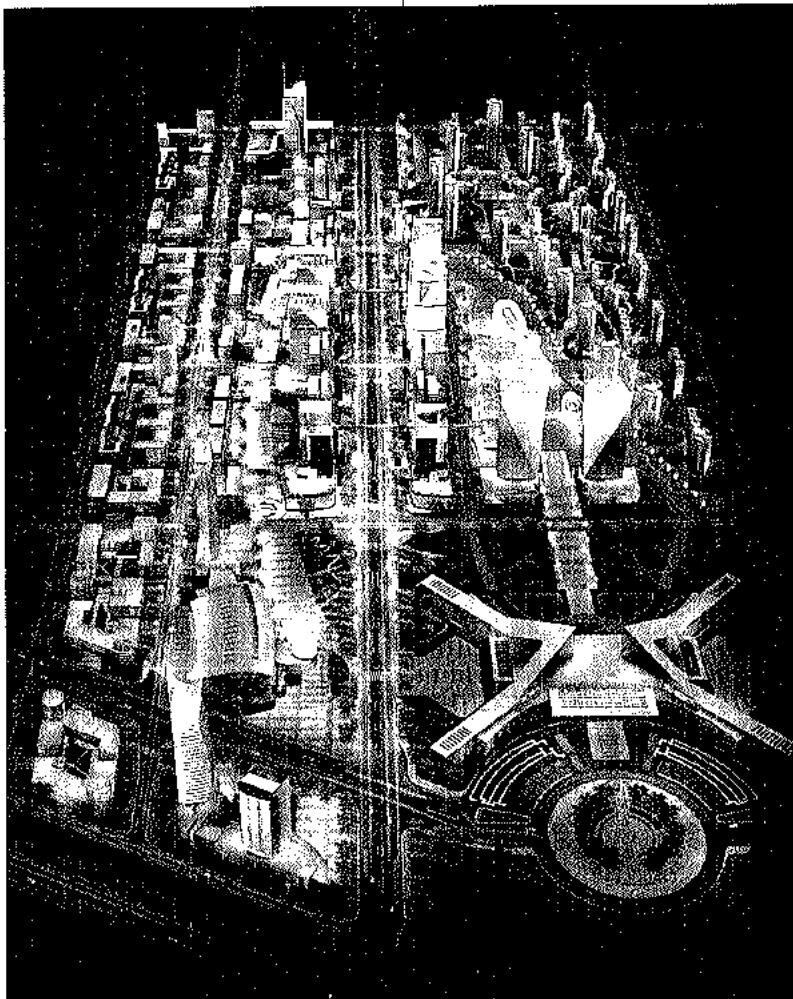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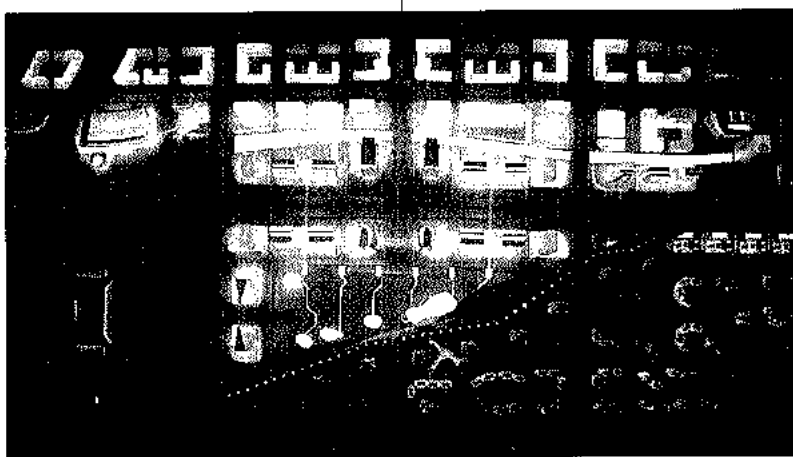
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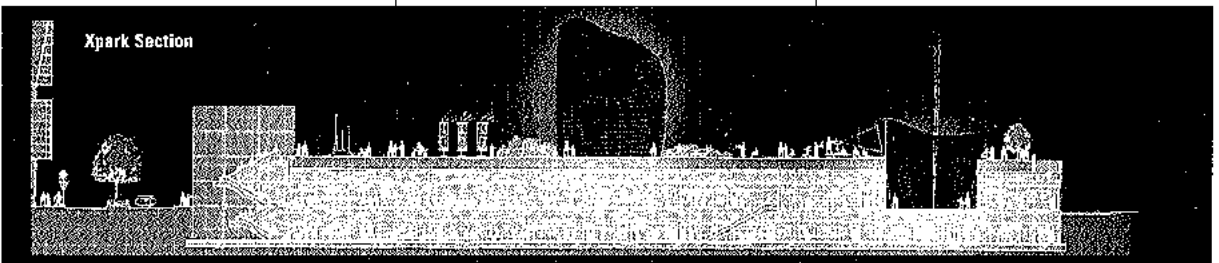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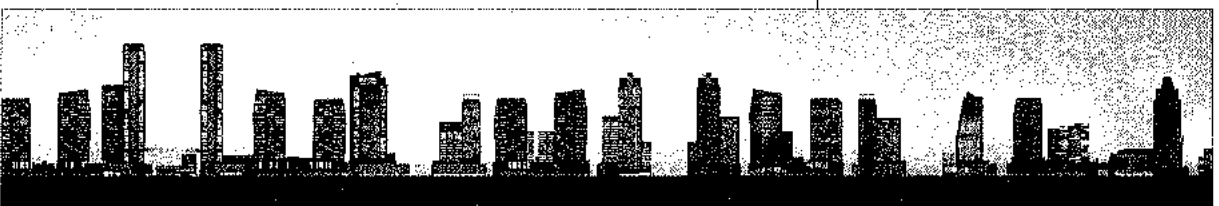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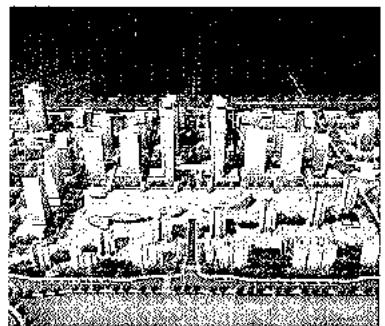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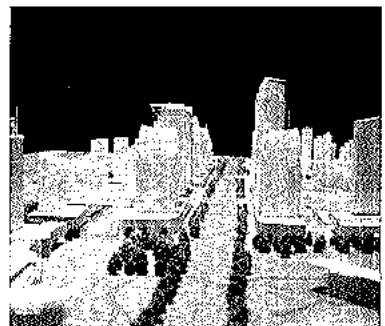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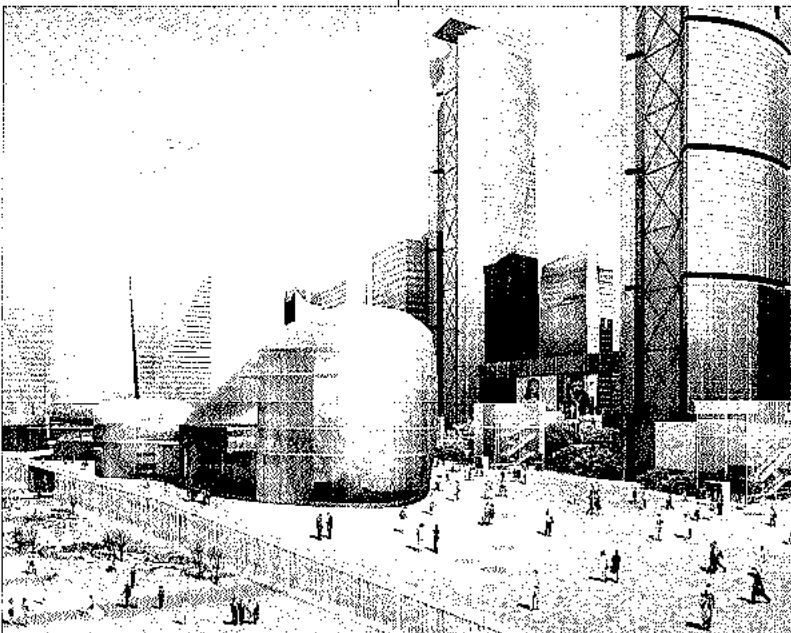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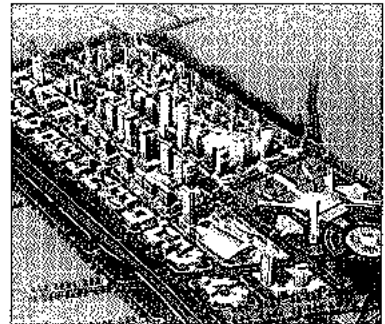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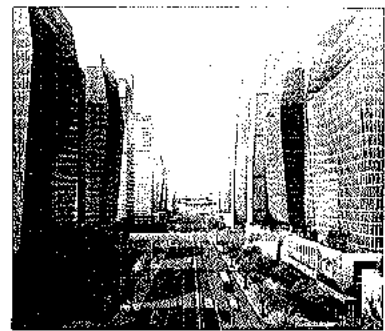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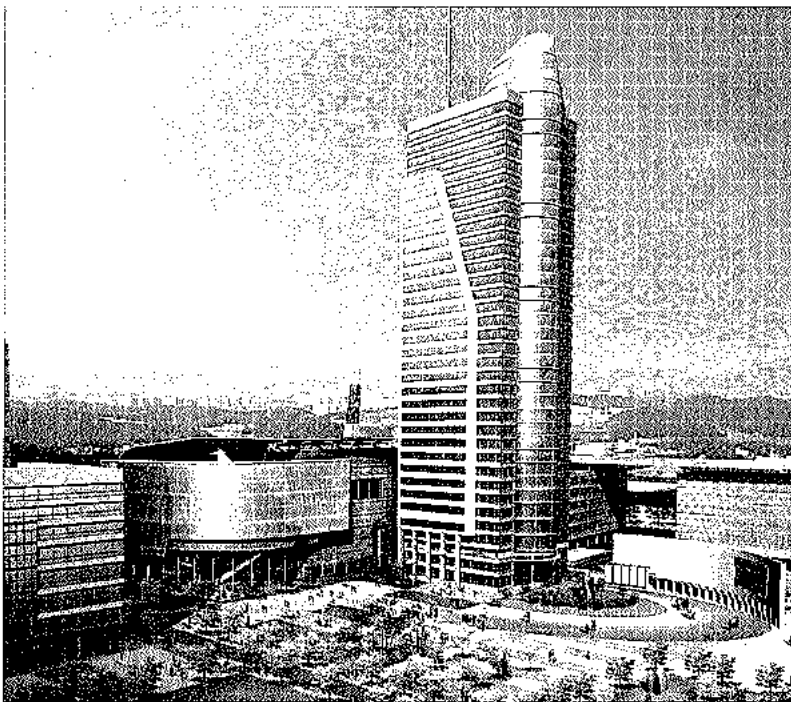


을 설정하였다. 서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X-Park은 고대 중국의 5행 이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디자인 하였으며 미래적인 비정형적인 형태와 전시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영화 Matrix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가상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문화를 즐길 수 있다. 3개의 축은 지진선을 따라 문화의 축으로서 형성된 보행자전용의 테마길(Theme Street)과 금융과 업무의 축인 넥시안 대로(NEXI) AN Boulevard)와 IT산업과 상업의 축인 새비단길(New Silkroad)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로, 첨단기술(Hi-Tech)이 자연(Eco)과 만나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단지와 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건물들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 하였고, 아름다운 도시경관(Sky Line)을 이루도록 형태, 층고, 용적률, 재료 등이 고려되었다. 자연적인 녹화공간들은 Hi-Tech적인 유리외 금속재료의 건축과 조경요소들 속에서 반복되며, 이는 수평적인 가로와 공원에서 미래적인 비상하는 형태의 커튼월 건물내부의 로비, 중간층의 옥외 Sky Lounge와 고층 Community 공간 그리고 옥상정원에 이르는 수직적인 녹지의 띠로 연결된다. 셋째로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는 도시를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개개의 다른 Zone들이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체계와 보행자도로들, 브릿지들이 제안되었다. 특히 특색 있는 소규모 상점들과 대형쇼핑몰로 구성된 새비단길(NEW Silk Road)은 24시간 활력있는 도시 서안을 잘 드러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휴먼스케일을 일으키는 가로와 건물저층부 높이제한, 고층건물들의 셋백들이 제안되었다. 전체단지에 연속되는 건물저층부의 상업시설들은 건물외피에 주요한 디자인 요소로 계획되는 첨단미디어 광고판(Sinage)들과 더불어 활력 있는 공간들을 창출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이번 현상공모전을 통해서 중국과 고도(古都)서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고,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생

각하고 새로운 도시의 Vision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길지 않은 빠른 일정 속에서 많은 좋은 Idea들이 기획되었고, 좋은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앞으로 이 계획안이 설계되기까지 난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한국의 건축을 대외에 알릴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할 것이다.





부산디자인센터

Busan Design Center

▶ **당선작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정영균 · 임동건) + C&T종합
건축사사무소(박현섭 · 최창립 ·
유효종)

부산시는 부산디자인센터 건립을 위한 현상
설계를 실시하여 지난 9월 4일 (주)희림중
합건축사사무소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
했다. 2등안은 일신건축(이용흠), 3등안은
건원건축(김종국)과 상지엔지니어링건축
(허동윤)의 안이 선정됐다.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
타내

지역지구	일반상업지구/창의지구
용도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5,403㎡
건축면적	2,247.57㎡
연면적	18,915.08㎡
건폐율	41.60%
용적률	226.28%
규모	지하 2층, 지상 8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외부마감	알루미늄패널, 복층유리
내부마감	화강석 및 카펫타일
구조	크로스구조
설비	한일염아씨
전기	나라기술단
조경	희림건축
토목	아남건설엔트
설계팀	이병구, 전민영, 윤종호, 최지영 (희림), 한대희, 박근환, 정형식, 권명아 (C&T건축)

부산시는 '센텀시티'라는 첨단디지털산업,
위락, 쇼핑, 관광단지 육성을 청사진으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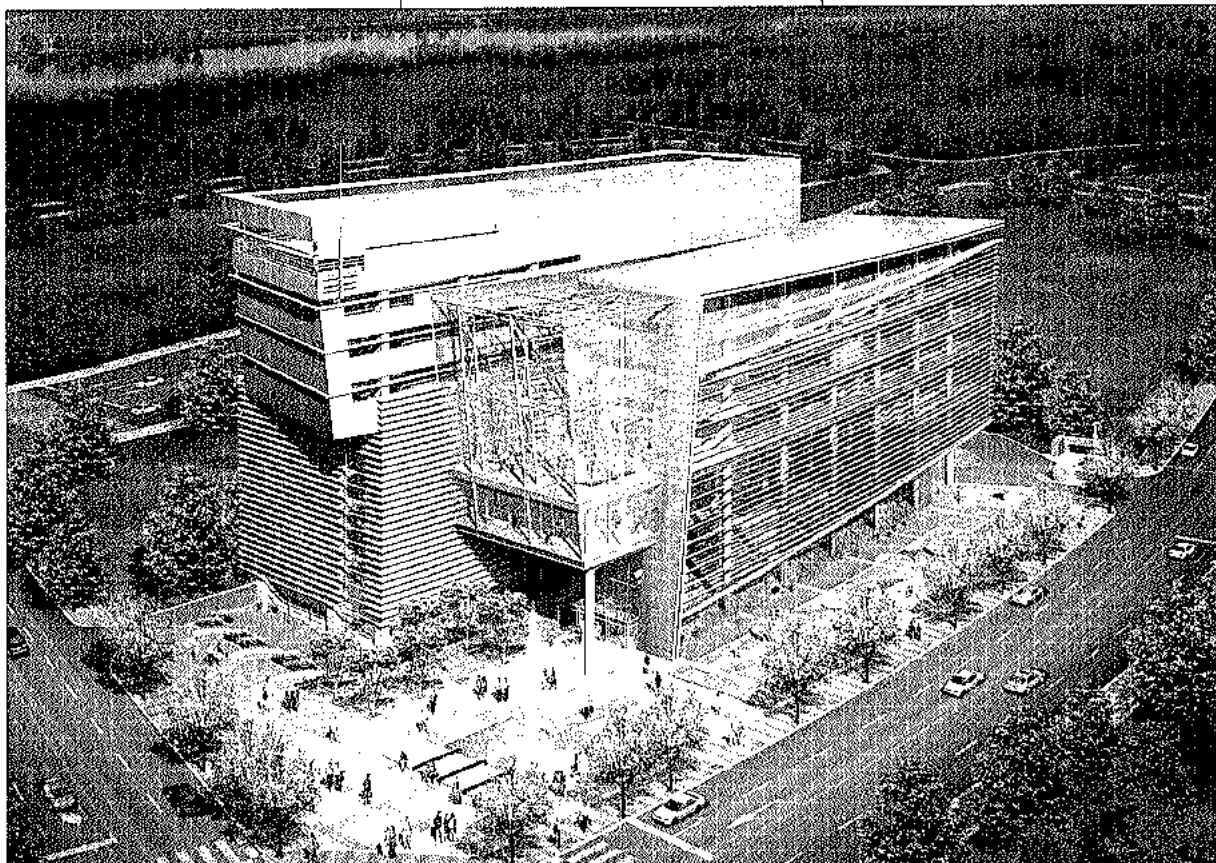
해운대구 우동일대의 개발에 착수하여 도로
및 기반시설작업이 진행중이다.

이에 부산시가 추진한 '부산디자인센터현상
설계'는 앞서 말한 센텀시티의 위상에 걸맞
는 프로그램요소와 디자인이 요구되어진 설
계경기로 연면적 18,128㎡(5,500평) 지
상 8층 규모가 요구되어졌다.

파도를 상징하는 WAVE를 디자인 모티브
로 하여 밀려오는 새로운 '즉 21세기 동북
아 중심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요소 및
변화의 물결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명실상
부한 도시의 중추시설로서의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내, 외부 디자인에 주력하였다.

형태적으로 바다를 상징하는 에메랄드빛 유
리매스에 역동적인 사선을 도입하여 후면부
의 솔리드한 형태와 결합하여 솔리드&보이
드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사선요소의 적극적
사용은 파도가 그리는 역동적인 모습과 바다
와 인접한 부지 특성에 걸맞는 형태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산의 대표
적인 이미지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매스 사이에 투명 유리로 감싸여진 대형
아트리움을 두어 컨벤션, 패션쇼장등 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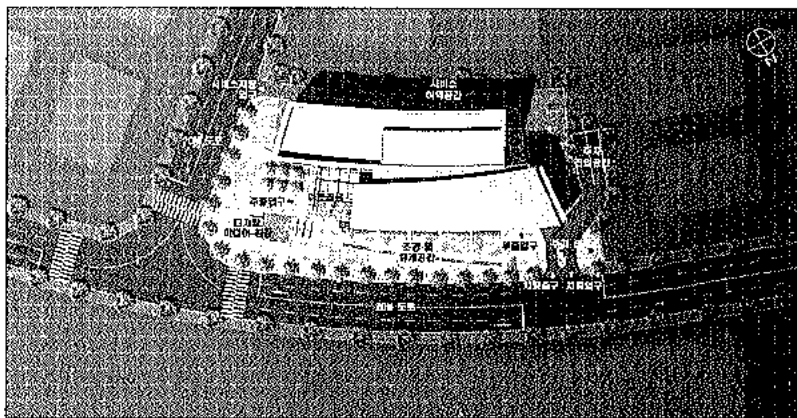
프로그램들의 로비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내부공간의 VOID역할을 수행한다.

내부 프로그램으로는 외부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관람, 집회시설, 벤치센터와 같은 임대시설, 그리고 정보, 교육 및 행정시설로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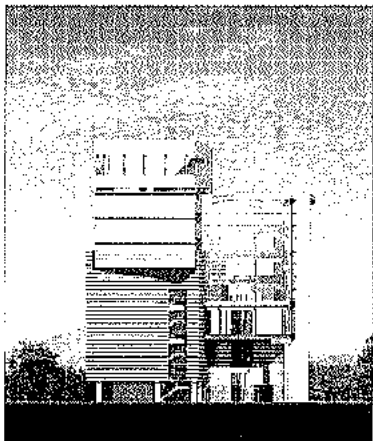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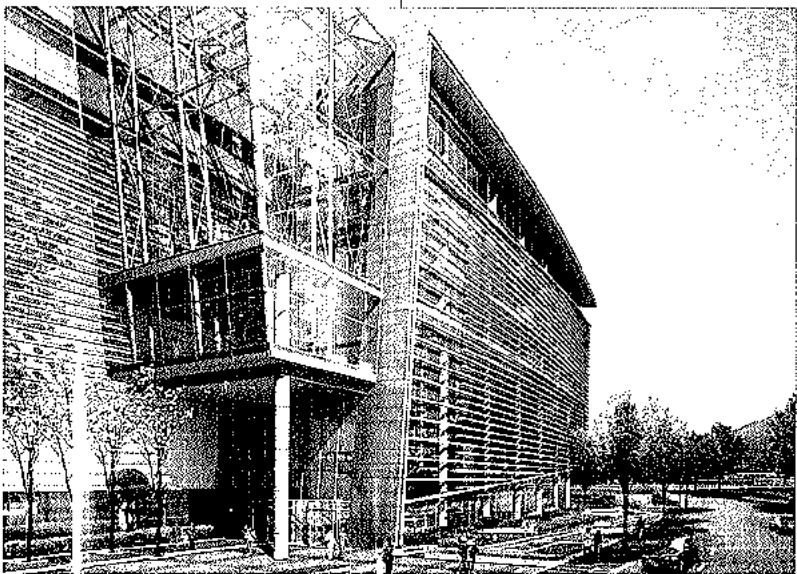
관람, 집회 부분으로 전시장, 컨벤션, 패션쇼장, 연회장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시설들은 외부인들의 사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저층부에 배치하였고 대형의 로비공간을 전시공간과 연계함으로써 각종 전시회 및 신제품 발표회를 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층부분을 양분하여 벤치센터 및 행정존을 구성하여 적절한 지원 및 관리가 용이하게 배치하였다. 아울러 장비실(모직물장비실, 시제품제작실등) 등 소음 및 진동 발생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에 배치함으로써 쾌적한 내부환경을 조성하였다.

외부공간을 살펴보면 로비와 연계하여 마스의 배치에 따라 길게 늘어선 외부공간은 엄격한 보차분리를 통해 안전하고 조용한 외부공간으로 형성하고 각종 수공간과 다양한 식재공간을 마련하여 내부 이용객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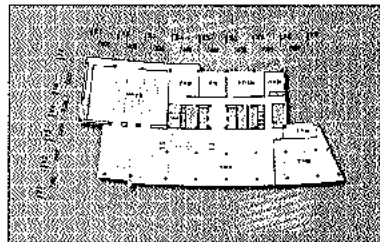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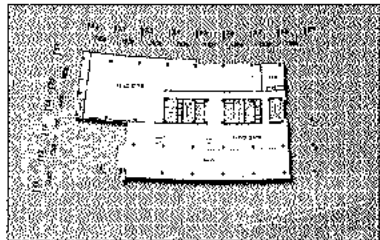
외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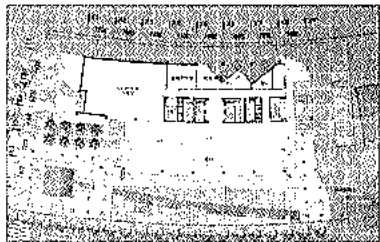
외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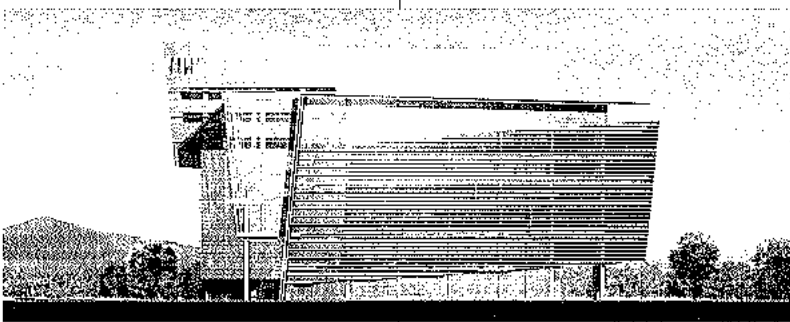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천안대학교 · 천안외국어대학
복지관, 체육관**

Welfare Center and Gymnasium,
Cheonan College of Foreign
Studies & Cheonan University

▶ **당산작 / (주)모인마당건축사사무소**
(양성하)

대지위치	충남 천안시안서동 115, 393번지
지역지구	도시계획지역내
용도	교육연구시설(체육관, 기숙사)
대지면적	22,500㎡
건축면적	12,253.88㎡
연면적	56,440.63㎡
규모	지하 2층, 지상 12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436대
외부마감	T30 화강석 버너구이/ T24 컬러 복층유리, T12 강화유리(S.P.G)

PROPOSE

본 프로젝트는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적합한 기능과 더불어 미래 지향적인 캠퍼스 구축을 위한 상징적 조형성이 요구되었으며, 기존대학 캠퍼스의 환경 및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였다. 또한 주변의 자연환경과 공간의 확장성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캠퍼스의 분위기를 증진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였다.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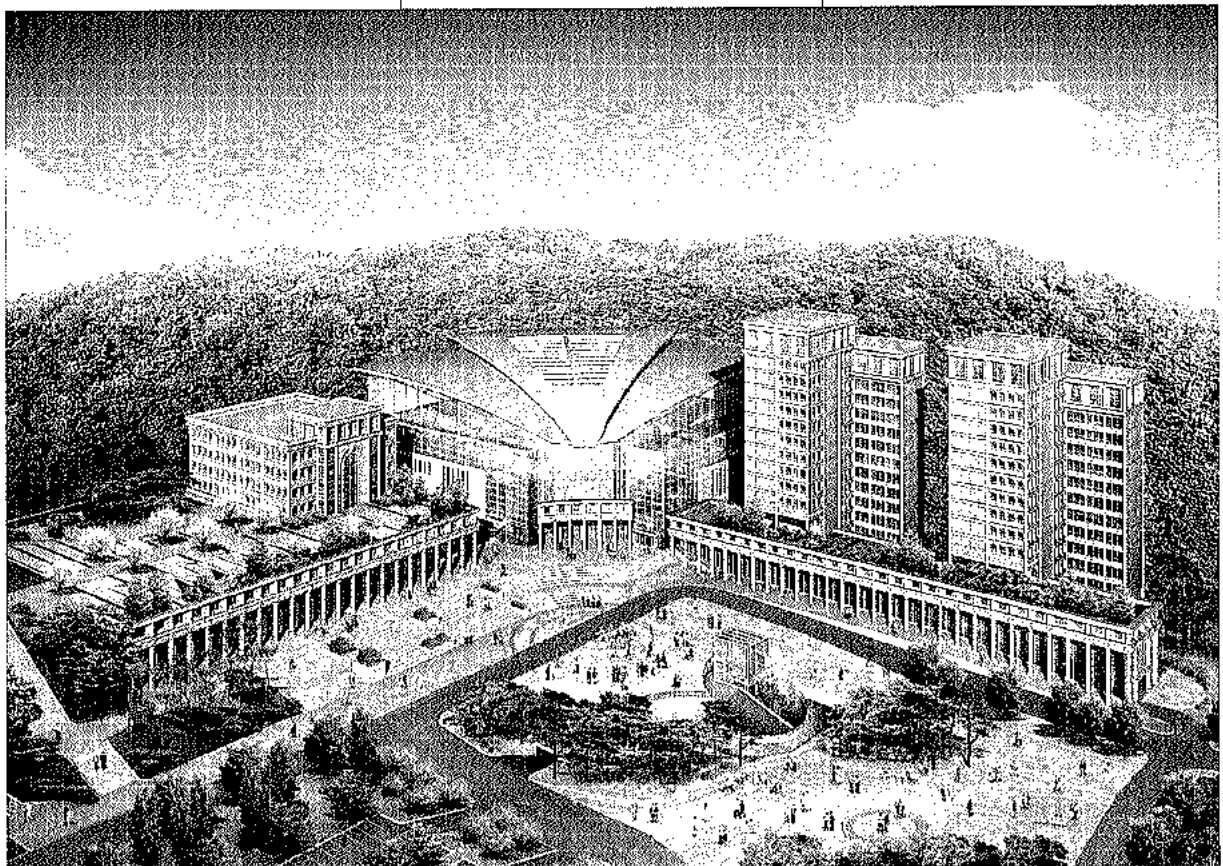
계획대지는 경사진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보면 캠퍼스 남쪽 끝단에 위치하며 캠퍼스 전체를 조망함과 동시에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캠퍼스의 종점역할을 해주고 있는 곳이다.

PLAN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학교의 중심축과 도로형상에 따른 축을 중심으로 각 기능의 건물들을 배치하여 기존 건물들과의 조화를 고려하였고, 주위의 녹지공간 및 자연형상에 순응하면서 다양한 옥외공간과 보행로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녹지공간과 각 기능의 영역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연속적인 흐름이 구성되도록 기숙사동, 체육관동, 강의동을 주위에 분산배치함으로써 외부에서 각 기능으로의 접근성을 양호하게 처리하였고, 경사진 대지의 활용으로 각 기능의 위계에 따라 시설물을 배치하였다.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한 단면계획을 함으로써 각 레벨에서의 접근성 및 인접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외부의 열주공간과 내부 공간의 홀 구성으로 각 기능에 대한 연속적인 흐름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저층부의 건물을 연결하여 외부에서의 강한 인지성을 부여했고, 주위 외 자연적인 요소에 대한 시야확보와 각 기능의 영역성이 확보되도록 건물들간의 OPEN공간을 형성하였다. 강의동은 기존 예술대학과의 CONTEXT를 유지하고 추후 증축될 박물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되었으며 체육시설과 강의하는 공간에 대한 영역을 수직으로 분리함으로써 소음 및 시간대 사용에 대한 동선 흐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였다. 강의동 내부에 자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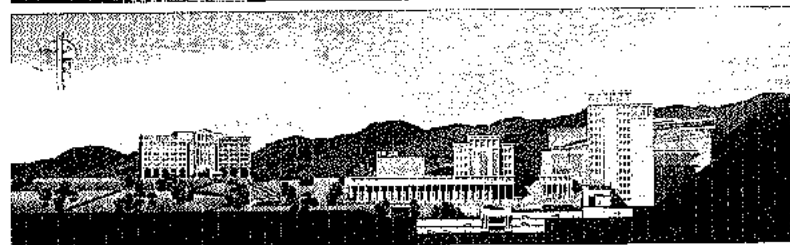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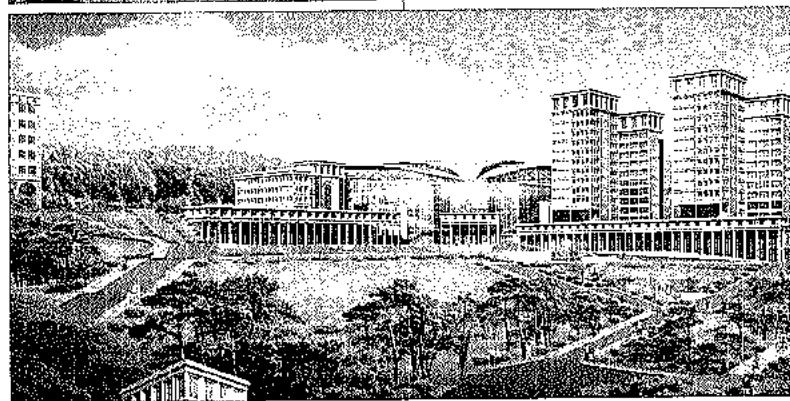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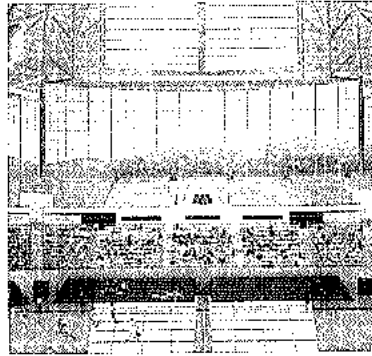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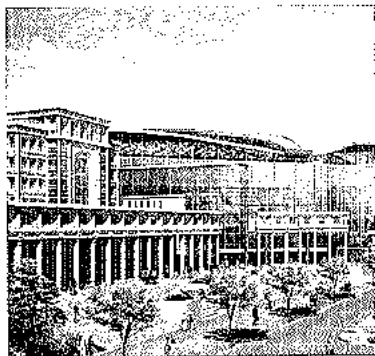


인 요소인 중정을 돕으로써 내부공간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탈피한 내외부 공간 흐름의 연속성을 부여하였다. 체육관은 5,000여석 규모로 체육관람 기능뿐 아니라 대집회 시설로의 기능을 겸하도록 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이용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주위의 자연과의 조화와 상징성을 위해 천창과 전후면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외부공간으로의 시각적 OPEN과 VOID한 공간을 적용하였다. 두개의 축을 설정한 주계단으로 타 기능과의 연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관람석 각 레벨로의 접근을 고려하여 동선흐름에 대한 명확한 축을 구성하여 원활한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기숙사는 수용인원 500인 정도의 2인1실과 최상층에 외국인 전용 숙소를 구성하며, 주광장과 도서관에 대한 조망의 간섭과 PRIVACY 확보, 남향배치에 중점을 두었으며, 외국인 전용을 위한 별도의 코아와 영역을 확보하여 동선을 분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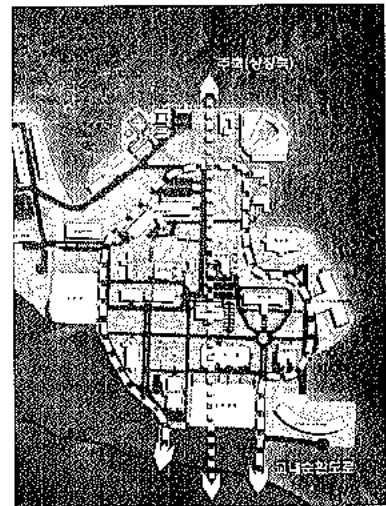
켰고 기숙사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저층부에 배치하였다. 중앙광장 하부에 주차장을 계획하여 각 기능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하였고 대지의 레벨을 이용한 자연적인 요소의 내부도입, 자연채광, 환기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차장에서 외부를 인지하도록 하였고, 이어따른 중앙광장의 영역계획으로 기존건물에서의 동선유입과 학생들의 이벤트 장소로서의 장소성을 가지는 장소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PI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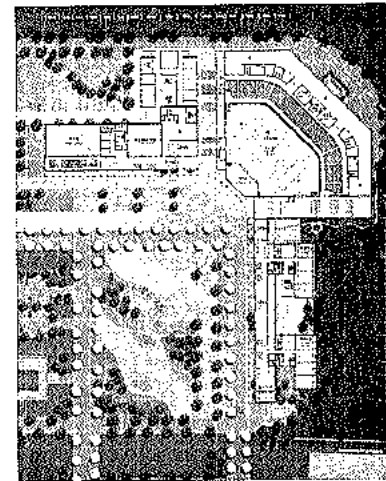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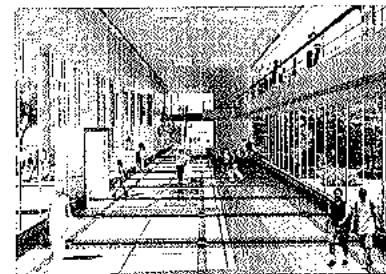
강한 안상의 저층부 열주를 통해 캠퍼스의 연속성을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매스의 분절에 의한 사이공간들을 통해 자연과 캠퍼스의 전이공간을 형성시켜 자연과의 특별한 대화를 경험하도록 유도하였다. 그것이 시지프스의 모습일지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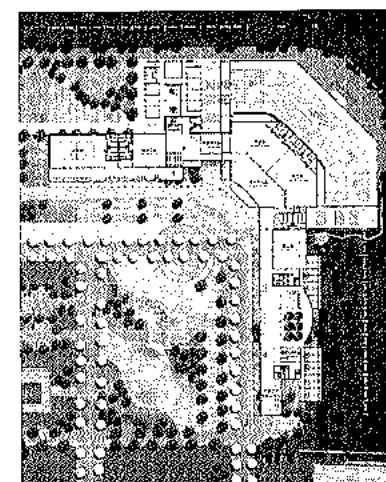
입단면도



배치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자양1동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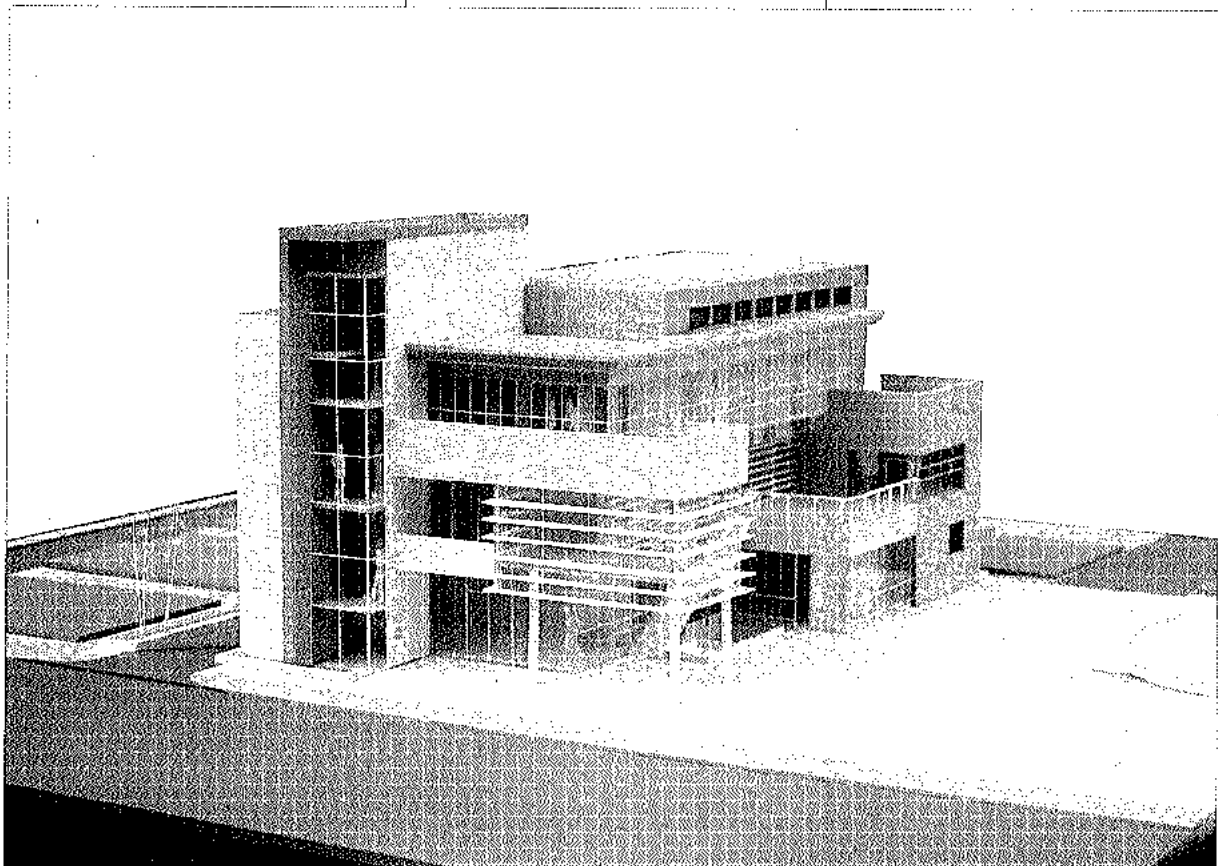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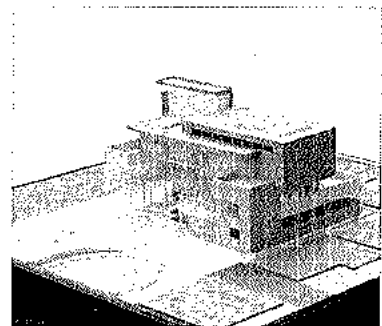
Jayang 1-dong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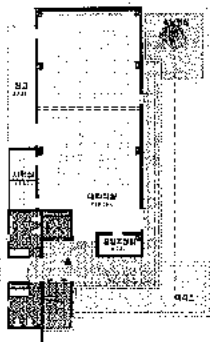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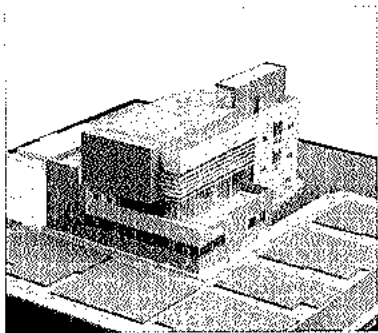
▶ 당선작 / MEPU도시풍경디자인
건축사사무소(성기문·류주희)

대지위치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30-1외 4 필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675.7㎡
건축면적	404.04㎡
연면적	1,380.15㎡
간폐율	59.80%
용적률	139.40%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미감	무기질세리믹패널, 알루미늄합패 널, T24복층유리
설계팀	치유성, 손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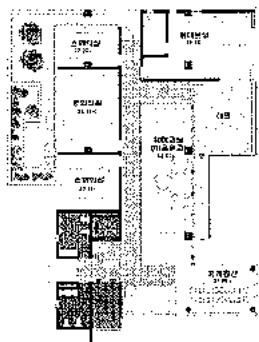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매개체로서의 공공복지시설로서, 그리고 경작된 기능으로서의 공간을 탈피하여 인간의 삶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친근한 시설로서, 공원을 향해 열려있는 옥외데크, 옥상정원 등 다양한 외부공간 조성으로 친근한 접근을 유도하며 풍부한 경험을 만드는 청사가 될 것이다.

저층주택군으로 이루어진 자양동 일대는 열악한 외부공간, 문화시설의 부재로 조금은 혼잡하고 여유가 없는 동네이다. 청사가 들어설 대지는 남측으로 자미장공원에 접해있어 공원과 연계된 청사로서 그 지역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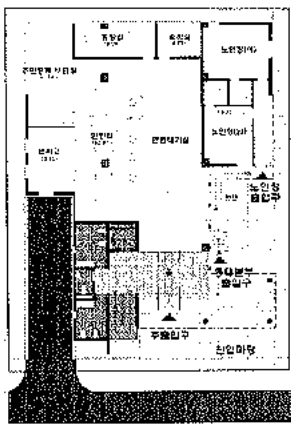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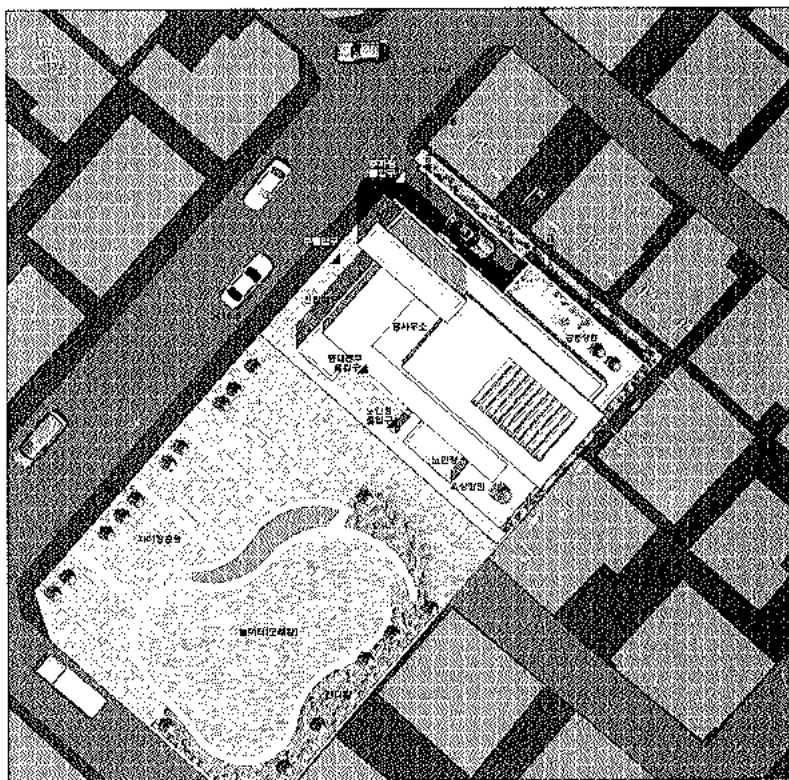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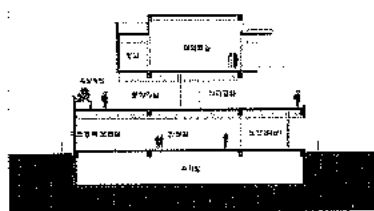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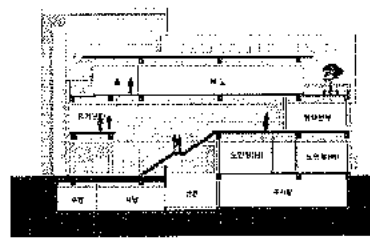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바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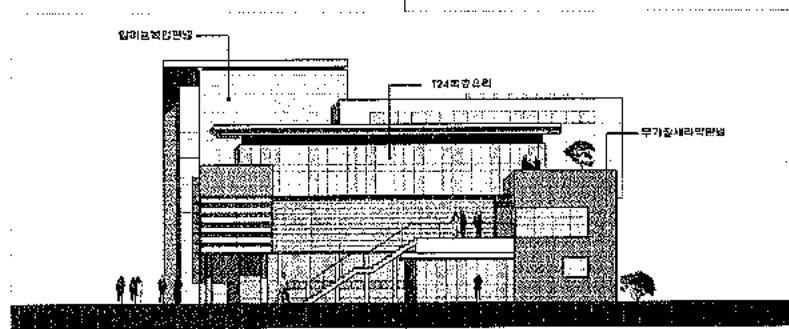
종단면도



횡단면도



정면도



측면도

KT은평지점

KT Eunpyung Branch Office

▶ 당선작 / (주)단우건축사사무소
(최명철 · 심우근) + 김정곤
(건국대)

대지위치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8,334.00㎡
건축면적	사무동-1,111.46㎡ 기계동-1,344.00㎡
연면적	사무동-5,129.44㎡ 기계동-7,001.00㎡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화강석, 질라복층유리, AL, 쉬트

설계팀 박기선, 최현영, 김인철, 유철환,
김민보

KT(한국통신)의 설계경기를 처음 접한 것은 아니었지만, Space Program을 보면 언제나 낯설다.

낮선 실명들...시험실, 동도, 케이블원실, 기관실, 전자교환실....

어떤 용도의 실이고, 무엇을 위한 공간인지.....

어느공간과 어느공간이 서로 관련이 있고, 연관이 없는지를.....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공간을 풀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닌가.....

KT 은평지점 증축 및 보수설계 경기 설계 경기명(名)이다.

이번경기는 다행(?)히도 기계동은 존치하

고, 사무동을 철거후 증축하는 것이다.(낮선 실명에 대한 생각은 안 해도 되니까...)

대지는 주택과 12m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대지안의 기존 건물은 지어진지 몇십년이 지나 걸은 낡고, 허름해 보였다.

과제는 사무동을 철거하고 증축했을때 주변과 잘 어울릴수 있느냐이고, 증축건물과 어울리는 기계동의 외장리모델링이 계획의 다 른속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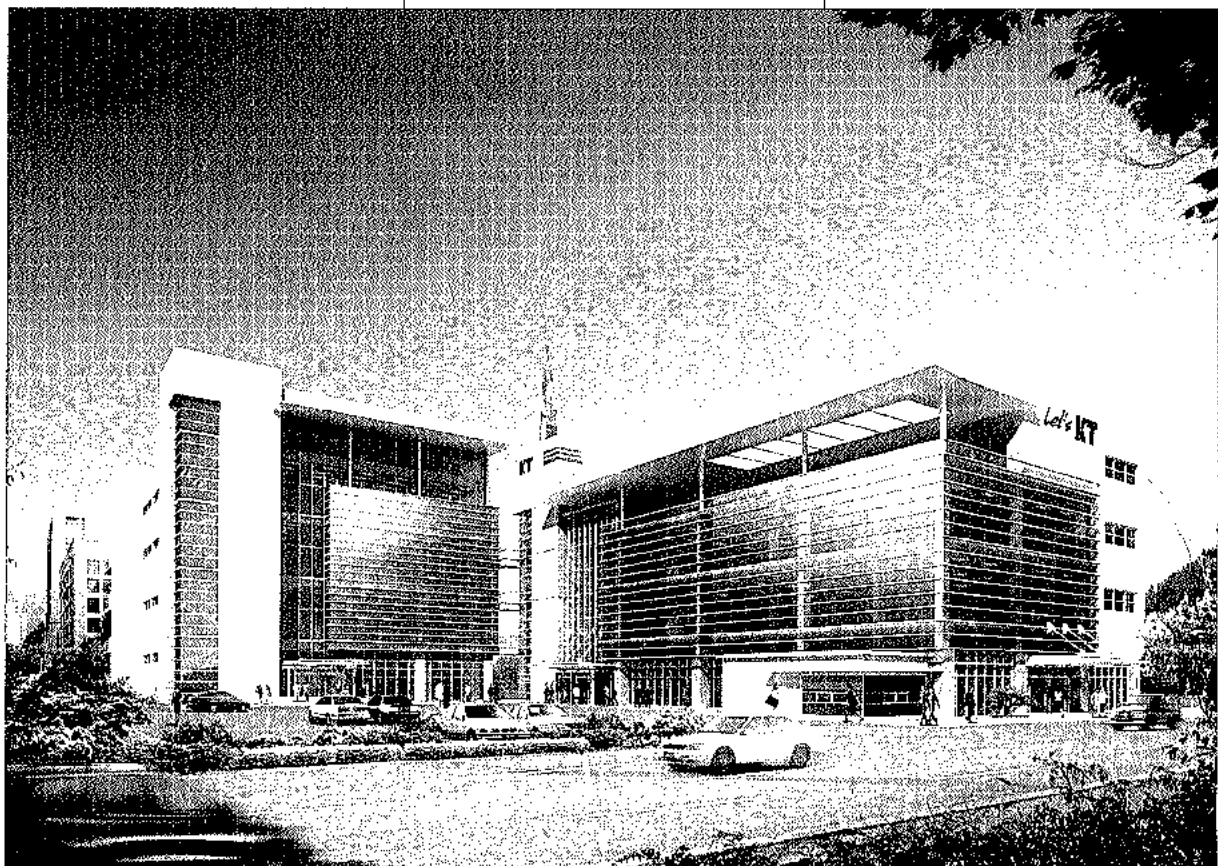
먼저 사무동의 배치를 잡아야 했다.

증축건물인 사무동의 위치는 쉽게 정해졌다. 현 건물을 철거후 그 자리에 짓는 것이었고, 북측과 서측으로 통상구가 있어 그 시설을 피해 배치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공간구획과 형태만 정하면 되었다.

공간구획은 주어진 프로그램에 맞추어 지하층은 전면 주차장, 1층은 프라자와 현장 요원실, 2,3층은 사무실, 4층은 식당, 복지시설로 공간을 나누었다.

식당 남측으로 외부 공간을 두어 직원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외부형태는 몇가지 조건을 만들어 구성토록 했다



외부재료는 회강석, 유리와 약간의 메탈쉬트로 구성한다.

돌마감이라 무거울수 있는 느낌을 남측에 전면 유리로 마감하여 무거움을 조금이나마 없애도록 한다.

남측에 전면 커튼월창으로 하여 충분한 빛과 개방감을 준다.

동측은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의 출입구가 있어 전면처럼 보이도록 한다.

서측면과 북측면은 외부에서 크게 보이는 부분은 아니다. 채광과 환기역할을 할 수 있는 창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자칫 허전해 보일수 있는 4층 외부공간을 아늑하게 해줄 수 있는 메탈 마감의 캐노피를 설치한다.

사무동의 모든 조건의 요소는 준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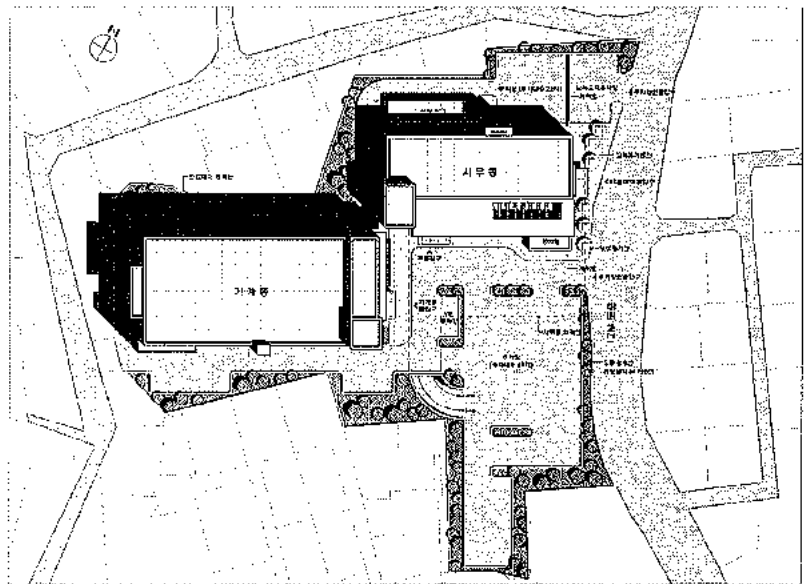
이제 조심스레 요소를 끼워 맞추어 형태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주어진 면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말이다.

여기에 기계동의 입면을 같이 고안하여 사무동과 적절히 잘 어울릴수 있는 재료로 같은 건물인양 보이도록 하면 되었다.

머칠동안의 고민은 여러 가지 안을 낳았고 그 중 2가지가 조건에 맞았다.

외부형태는 2안이 비슷하게 처리 되어 질충안을 만들 수 있었다.

상부 캐노피에 대한 2가지 안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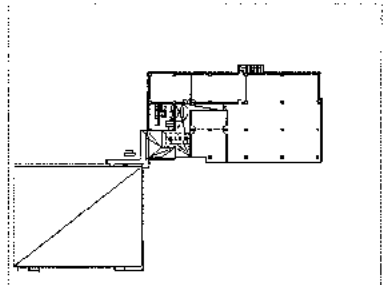
배치도

4층 위로 띄워서 루(樓)와 같이 보이는 안과 4층 상단에 붙여 차양처럼 보이는 안이다. 두가지안 모두 무리있어 보이지 않았다. 두시도로 두가지 안을 출력, 검토하여 루형식의 캐노피가 전면에서 높게 보이는 것이 좀 불안하게 느껴져 안정감이 없어 보였다. 결국 캐노피는 차양처럼 걸렸다. 그리고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 직사각형으로 구멍을 뚫었다. 20여일만의 고민은 끝났고, 결과물은 제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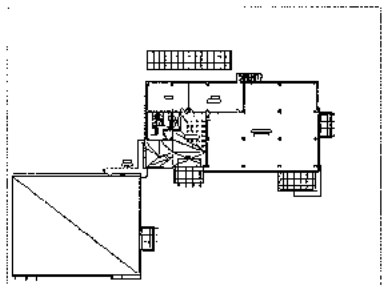
그리고, 이제 그 고민덩어리는 그 대지에 세워질 것이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좀 더 다듬고, 가꾸어야 하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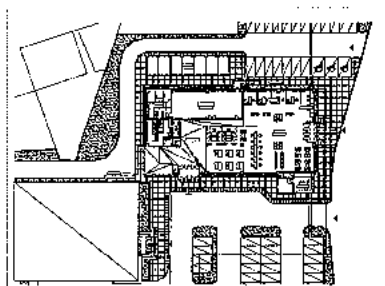
2년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건물은 운명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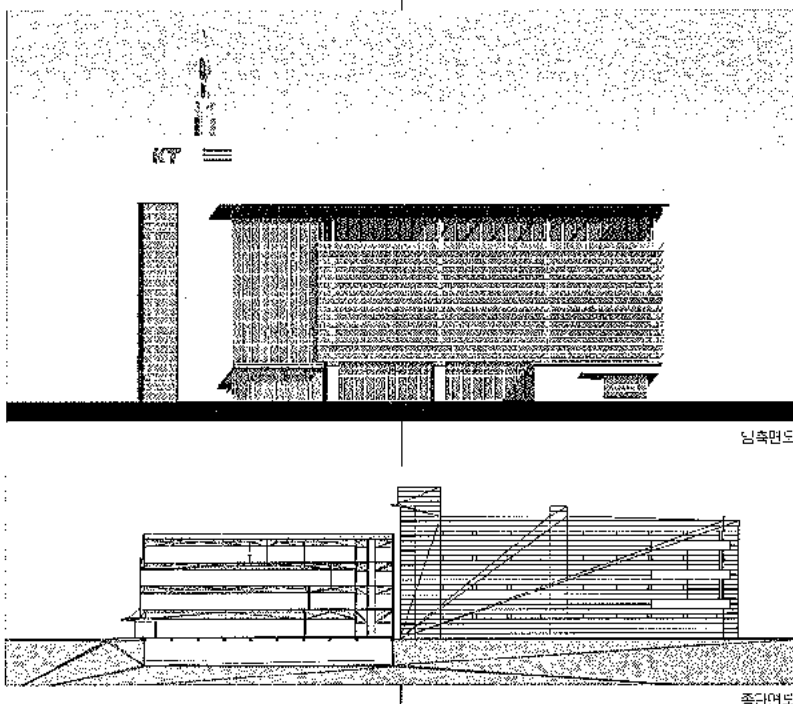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남측면도

종단면도

은맥고 · 구촌초등학교

Unmak High School · Guchon
Primary School

▶ 당선작 /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 (조도연)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41-1 번지외(15필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교육연구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지면적	14,853.00㎡
건축면적	3,511.47㎡
연면적	17,547.59㎡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체육관)
주차대수	92대(장애인지자 3대 포함)

설계팀 김현주, 김수희, 신무경, 유복재,
윤형덕, 박임호, 천승진

푸른 숲을 가진, 도시 속의 공원같은 학교.....
자연을 보라,
만물을 지어내면서도 간섭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날으면서도 소유하지 않으며
허면서도 기대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로지 머무르지 않으므로 영원히 작용한다.
-노자의 도덕경 중에서-

CONCEPT - 1 (녹지축을 경계로 매스앙 하기)

경사지의 빈 틈에 성격이 다른 두 학교를 채
운다. 지형을 최대한 보존한다는 명제 아래
높은 경사지는 학교의 뒷배경으로 남기고
낮은 대지에는 운동장과 마당을 배치하여
개방된 시야를 확보한다. 성격이 다른 두 학

교는 높은 경사지로부터 대지를 녹지축을
경계로 각각의 영역을 확보하고 필요에 따
라 일부를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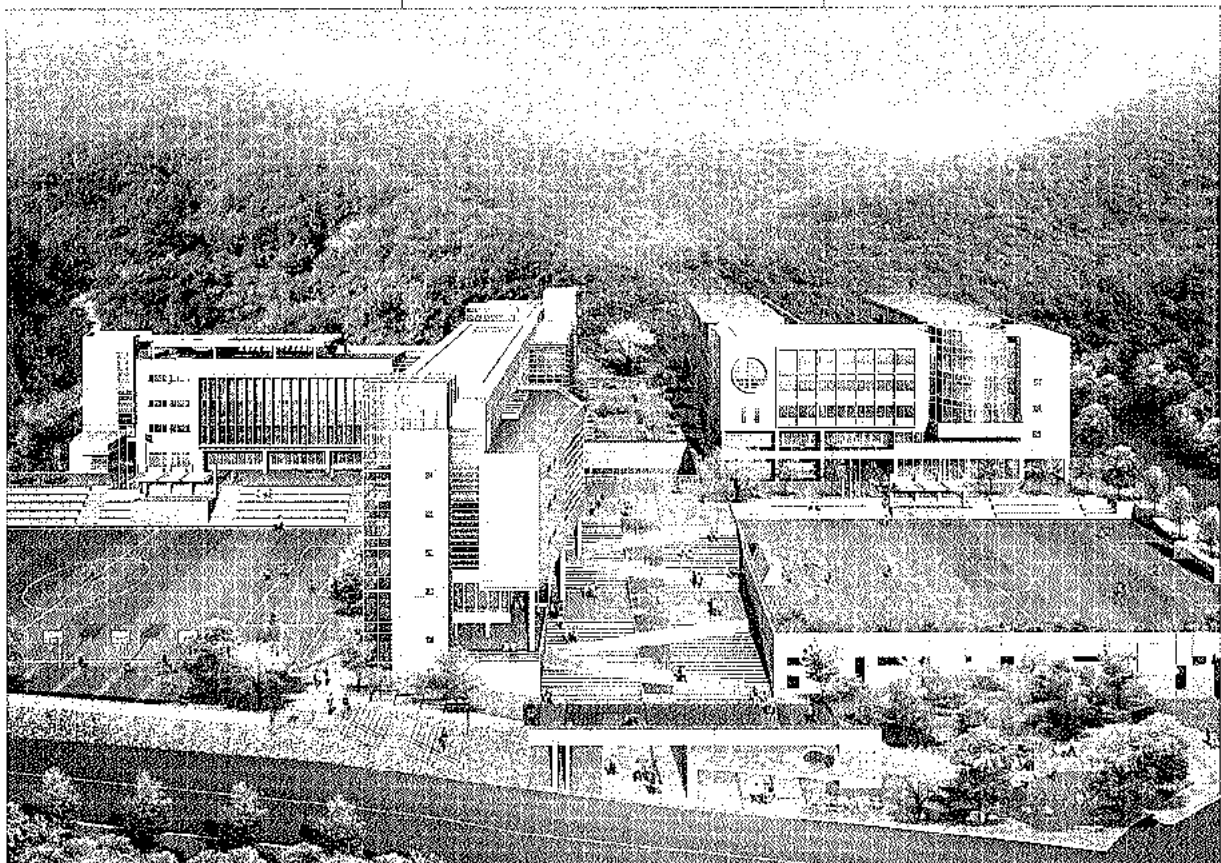
CONCEPT - 2 (경사진 대지에 순응하는 연속된 공간.....)

기존의 경사지를 그대로 두고, 학교의 진입
마당은 시작된다. 대지 경사를 이용한 계단
을 따라 오르면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 열
린 마당이 펼쳐진다. 아래로 쉼터가 내려다
보이고, 건너편엔 잔디 마당과 아름다운 정
자나무가 학교와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정자 마당에 올라 이 언덕의
옛 기억을 회상한다.

CONCEPT - 3 (자연 속의 학교, 학교 속 의 자연.....)

지역주민에게 제공되었던 녹지는 학교라는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건축행위로 인해 훼손
되어지고, 자연과 주변지역의 흐름 또한
단절되어진다.

훼손된 대지를 학교의 내부와 외부공간에
재구성하여 주변지역에 개방함으로써 자연



의 흐름을 회복시키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써의 기능과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제공한다.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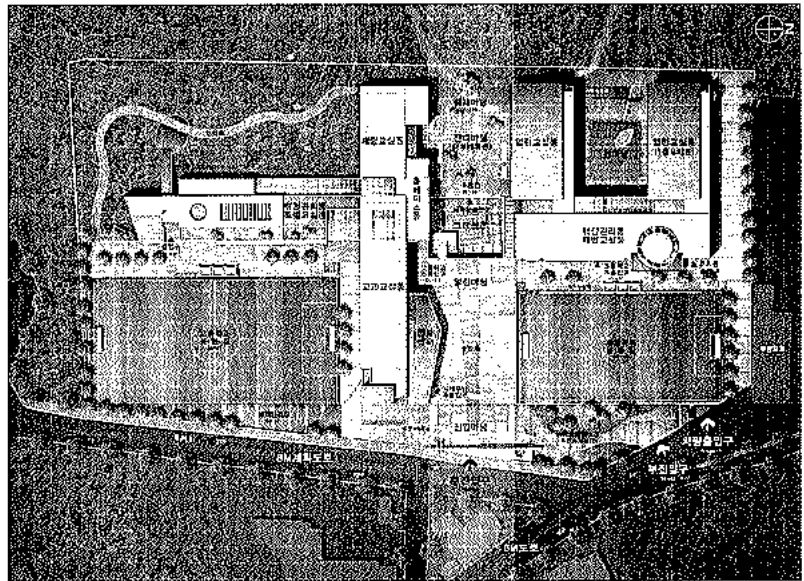
교과동의 남향배치: 고등학교의 교과영역별 교실과 초등학교의 열린 교실은 남향으로 배치하여 자연 채광에 의한 일조와 환기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소음 완충 공간 계획: 대지의 동측에 접한 8M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의 전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완충공간(운동장)을 배치하여 교사동을 최대한 이격시켰다.

대지 성·절토랑과 옹벽의 최소화: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진입부와 운동장 교사동의 레벨을 설정함으로써 경사지의 특성과 식생을 최대한 보전하며 대지의 성·절토랑과 옹벽의 설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녹지축에 의한 영역의 분리: 녹지축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초등학교 영역을 분리하여 배치하고, 축상에 체육관과 수공간, 미당의 공용공간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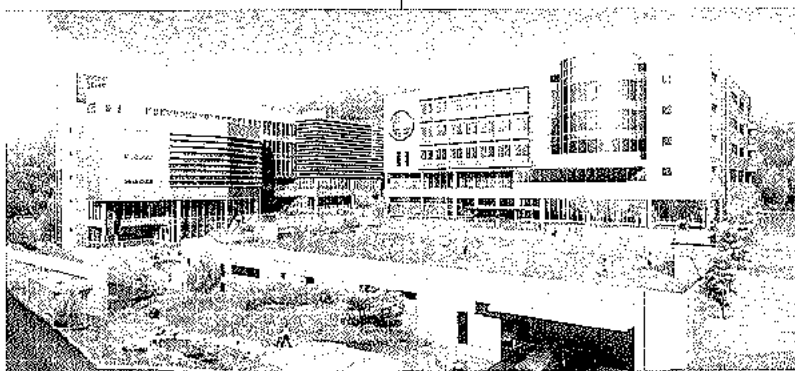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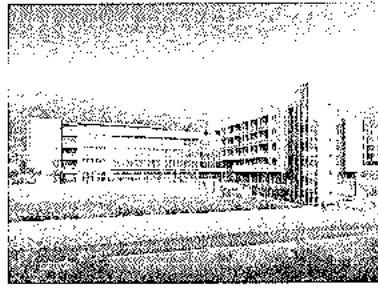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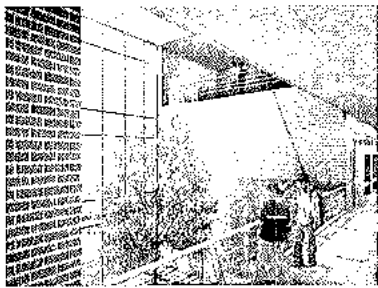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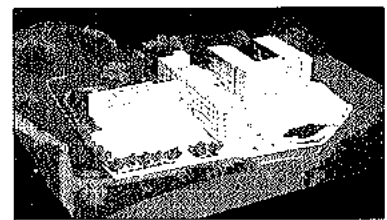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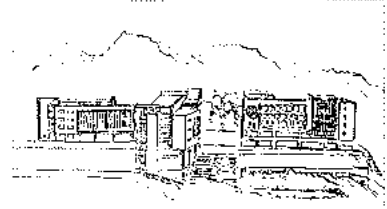
지역주민 이용시설의 블록화: 사회교육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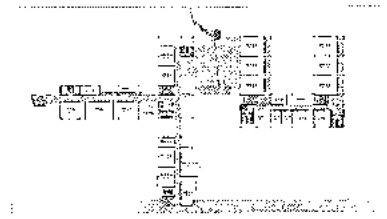
배치도

설로써 컴퓨터실과 도서정보실, 멀티미디어실 등의 정보센터는 별도의 출입구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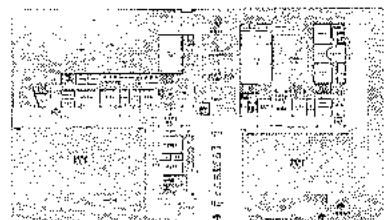
생태학교계획: 생태계의 이해와 그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 공간으로 학교의 외부공간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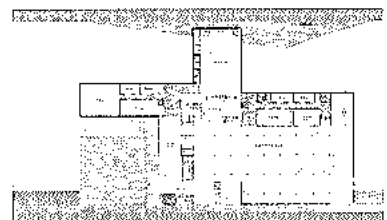
서측, 남측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u

신건축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cord

a+u

2003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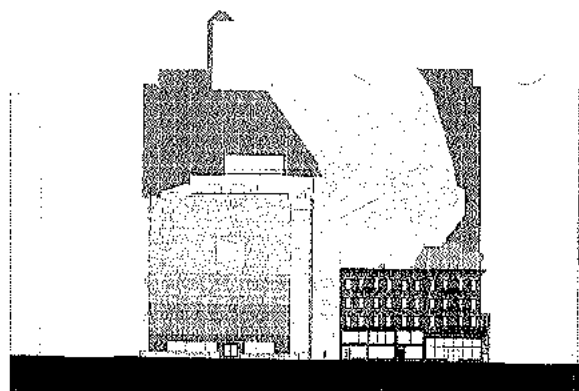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OMA의 특집이 마련되었다. 특이한 점은 준공된 작품들에 대한 소개가 아닌 계획안들에 대



한 소개이다. 이는 그들이 최근 수행하고 있는 도시의 거대 프로젝트들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 놓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제목에 표시된 Experience는 그들이 비록 당선작이 아니더라도 각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아이디어를 상징하는 것이다. 휘트니 미술관 계획을 비롯한 4개의 프로젝트에서 그들이 프로젝트를 위해 행한 스터디와 작업의 과정들이 상세하게 소개되었으며, 현재 공사 중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졌다.

■특집:OMA/ Experience

2003년 9월, 시카고, 일리노이공과대학에서 OMA가 설계한 매코믹 트리뷴 캠퍼스 센터의 오프닝 세리모니가 이루어졌다. 1998년 설계경기에서 당선된 이후 5년의 세월이 지나고, 드디어 완성에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고대해 왔던 OMA의 빅 프로젝트의 완성이었다. 이것을 필두로 세계각지에서 그들의 건축이 줄이어 완성된다. 수많은 난관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해 나갔던 성과인 것이다. 또한 최근 몇 개의 빅 프로젝트의 설계경기에 당선되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그들이 항상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프로젝트에 전념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부터 실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디자인에서 얻어진 아이디어의 단편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확실하게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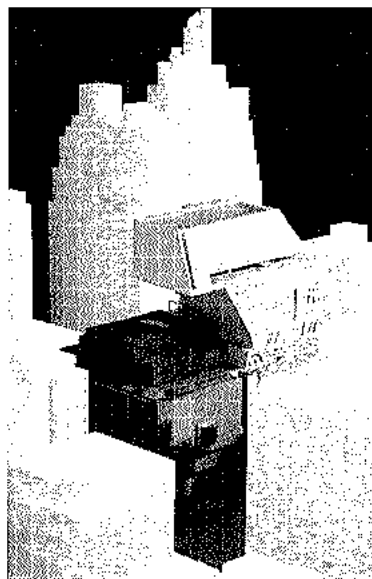


휘트니미술관 확장 계획 프로세스 개요도(계획 A, 2001~)

영되어 간다. 이번 특집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현시점에서 실현되지 않은 프로젝트에서도 아이디어의 단편을 강하게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휘트니미술관 확장 계획 프로세스 회고록(계획 A, 2001~)

뉴욕의 휘트니미술관 확장계획은 메디슨 에버뉴의 아이콘인 마르셀 브로이가(Marcel Breuer) 설계한 미술관의 바닥 면적을 배가 시키는 것이다. 확장을 위한 부지는 브로이어의 건물과 그 바로 남쪽에 인접하는 휘트니미술관이 소유한 「브라운 스톤」을 포함한다. 이들 「브라운 스톤」은 역사지구내에 위치하여 경관보존위원회(LPC)에 의한 보호규제하에 있다.



휘트니미술관 확장 계획 프로세스 회고록(계획 A, 2001~)

OMA에 내려진 지사는 비록 LPC가 「브라운 스톤」의 철거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년의 근대미술관의 증축과 같이 계획안에 표현된 구성이 상실되는 역사보다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구건물의 철거가 허가된 예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즉 LPC가 그 건물의 철거를 허가할 정도로 훌륭한 제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한편 이 「브라운 스톤」은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예술(작품)이 자신의 스케일에 맞는 공간에서 전시된다는 것이었다. 대규모로 확장된 상설전시를 위한 면적은 기존의 건물 속에 마련된다. 2차대전 이전의 작품은 「브라운 스톤」에서 수용하여 기존의 웨스트 8번가의 휘트니 미술관을 상주시킨다. 브로이어 건물 속에 수용된 2차대전 이후의 작품은 그들이 탄생된 거대한 스케일의 전시스페이스에 설치되었다. 새로운 증축부분에는 다양한 특별 전시 스페이스와 「경험공간」을 수용하였다. 「경험공간」은 레스토랑, 도서관, 샵 등 오늘날의 현대미술관에는 어디에도 존재하는 부분이다. OMA는 3개의 「경험공간」이 예술품의 전시에 이용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 제안은 그곳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해보고 싶은 장소로서, 「브라운 스톤」과 함께 아티스트에게 주어졌다.

새로운 증축의 물리적인 형태는 부지의 상황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그 상황이라는 것은 「브라운 스톤」의 뒤편에 위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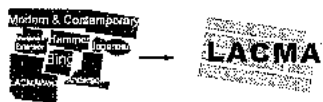
는 놀라울 정도로 비좁은 땅, 메디슨 애버뉴측의 상업지구와 동측의 주거지역과의 사이에서 단차를 만들어 내고, 경사진 조닝규제, 그대로 두어야 하는 브로이어의 건물, 그리고 보호규제를 받고 있는 「브라운 스톤」인 것이다. 새로운 증축은 협소한 대지로부터, 기존의 건물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닝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져야 했다.

새로운 건물은 콘크리트로 지어지게 되었다. 콘크리트는 그 형태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경제적인 소재였다. 콘크리트는 2개의 목적에 적합했다. 그 하나는 건물의 외벽재로서이며, 다른 하나는 부지를 두 개로 나누고 있는 브로이어에 의한 경계벽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이다. 창들에 의해 레이스 모양으로 이루어진 입면디자인은 오브 애럽(Ove Arup)에 의한 구조 분석을 통해 탄생된 것이다. 개구부는 외벽에 가해지는 응력이 가장 적은 곳들, 혹은 프로그램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만들어졌다. 브로이어의 건물, 「브라운 스톤」, 그리고 새로운 증축이라는 각각의 건물들은 개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키(key)가 되는 레벨에서는 명쾌하게 엮여져 있다. 레벨 3에 있는 새로운 로비는 모든 건물과 협조적인 관계에 있으며, 방문자가 감상의 도정(道程)을 선택하는 출발점이다. 새로운 건축은 부속동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복합체의 중심으로서, 부지 전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 LACMA/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2001~)

판게아(Pangea)

한때 모든 대륙들은 하나로 뭉쳐있었다. 그 후, 대륙은 분열되었다. LACMA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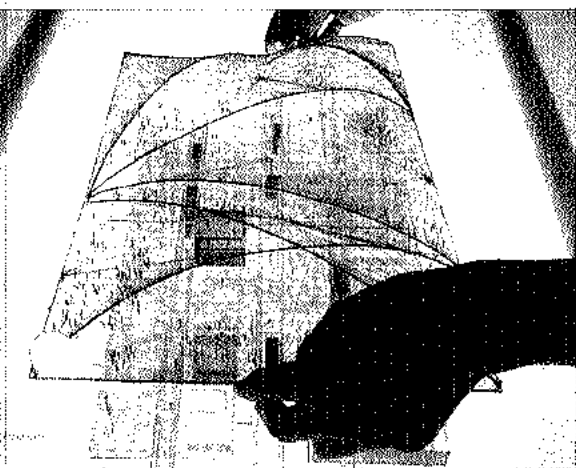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판게아(Pangea)

OMA는 이렇게 흩어지게 된 「대륙」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제안하였다. 거의 유토피아적인 상황을 상상해줄길 바란다. 여기서는 모든 예술가들을 속박하는 역사가 단지 한 개의 시간에 녹아 들어가는 이야기로서 전달되며, 같은 시대에 발생하여 자율적이면서 영향을 주고 받고, 수렴되어가는 순간이 떠오르게 된다. 「근대」에 어떻게든 맞추어가고 과잉되고 피로한 상황이 수십 년 지속된 후,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고가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OMA가 제안한 LACMA의 계획안은 1965년부터 차례 차례 조금씩 증축되어 현재 여러 동으로 쪼개어져 있는 LACMA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그것은 기존의 건물들을 통로로 연결시키는 계획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저층부만을 기반부로 활용하고, 그 상부는 철거한 후 새로운 하나의 거대한 마스를 올리는 것이다. 역사적 건물의 파피일 수도 있으나, 그 흔적을 남기면서 새로움을 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음은 이러한 개념에 대한 OMA측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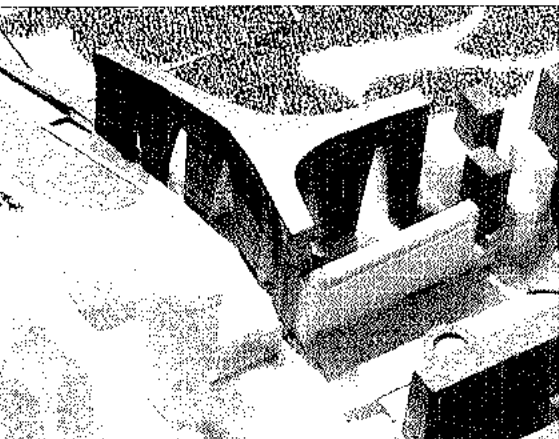
부지 안에서 지금도 증식을 계속하고 있는 LACMA는 로스앤젤레스의 축소판이다. 일점집중형(一點集中型)이 아닌 확산 배치형이라는 점에 의하여 미술관으로서도, 부지로서도 그 잠재성이 모두 드러나 본 적이 없다.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면서 비평적인 집단에 저항하고 명쾌한 컬렉션을 회피해 왔다. OMA의 제안은 전 시장소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컬렉션을 하나의 전체로서 정리하는 것이다. 또한 진부한 건물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LACMA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에 힘을 모으는 것이다. 통일된 하나의 전체 속에 복수(複數)의 통로를 설치하고,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여 중형무인으로 작품사이를 파고드는 큐레이션에 의해 전시를 하는 것. 통합체로서 LACMA가 보다 효율적인 장소로서 기능하고, 예산을 아끼면서도 공원을 보다 도시에 개방적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잘 짜여졌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판게아(Pangea)

는 감각, 즉 수십 년간 이 미술관에서 부족했던 바로 그 '존재감'의 회복이 OMA가 제시한 계획이 지향하는 바인 것이다.

▶ 헤이그 코닝겐 율리아나 광장 복합시설
헤이그 중앙역은 다소 매력적이지 못한 간선철도의 터미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서 깊은 역사적 도심부와 근대적인 지구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에, 고층 빌딩 프로젝트들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활기가 불어넣어지려 하고 있다. 도시 자체는 넓은 녹지대에 면하고 도로가 교차하는 역의 좌우로 넓게 펼쳐져 있다. 점포, 주거, 그리고 오피스 공간 등을 모아놓은 총면적 10만 평방미터의 복합 시설이 역과 녹지대의 경계에 끼워 넣어진다. 역 상부에 있었던 오피스 부분의 외관은 가능한 한 유지시키는 것으로 했다. 요구된 계획의 면적은 이러한 입지의 제약을 고려하면 한 두 개의 타워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역과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고려하고, 적절한 공공생활을 형성하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타워를 세우는 방법은 배제되었고 그 외의 다른 형태를 모색하게 되었다. 다양한 각도로부터 스타다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일관성을 다소 잃고 있는 주변 일대를 조직해 나가고, 동시에 역에게는 존재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들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서 나온 건물은 3개의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다이나믹한 형태를 띤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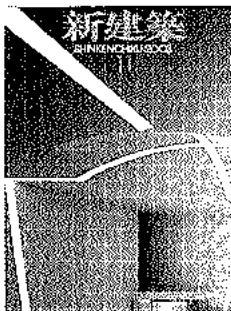
헤이그 코닝겐 율리아나 광장 복합시설

현재 역의 홀과 공원과의 사이에 둘러싸여진 광장이 만들어진다. 거기에는 거대한 공공도로가 몇 개씩 통과하고, 보행자의 흐름을 재촉한다. 이들 통로는 약 60m의 높이에 만들어져 도시의 다양한 경관을 만들어 낼 것이다. 세 번째 동은 초기 계획의 단계에서는 공원 내부까지 뻗어가도록 되어있었으나, 일부 행정상의 이유로 인해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OMA는 이 원치 않는 확장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기로 하였다. OMA는 앞으로의 계획의 추진 방향만을 제시하기만 한 것으로, 이는 건물의 다이내믹한 면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신건축

2003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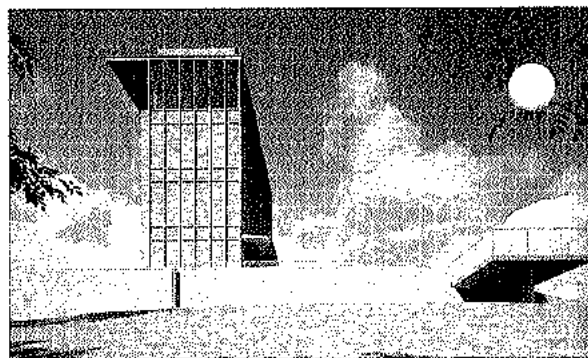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안도 타다오의 '이시카와현 니시다 키타로 기념 철학관'과, 쿠마 겐코의 'ONE 오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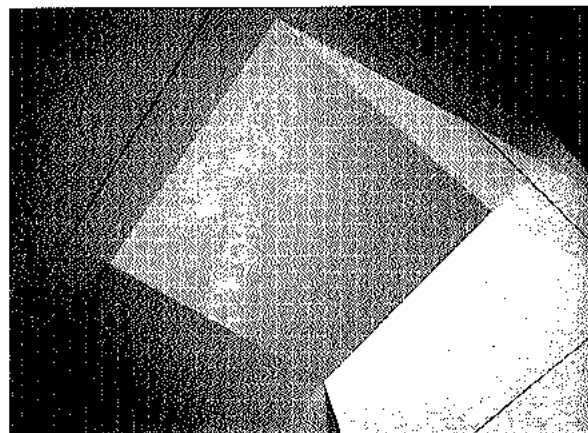
테산도' 등과 Aconci Studio의 'United Baboo Store' 등 인테리어 작품들이 근작으로 소개되었다. 연재물로는 환경과 디자인을 다룬 연재물의 이름 번째 글인 '민가사상과 환경공생-현대건축이 잃어버리기 시작한 사상과 수법을 생각 한다'가 게재되었다.

▶이시카와현(石川縣) 니시다 키타로(西田 幾多郎)기념철학관 (설계:안도 타다오 건축연구소)

철학자는 여행을 통해 배우는 자와 그렇



이시카와현(石川縣) 니시다 키타로(西田 幾多郎)기념철학관



이시카와현(石川縣) 니시다 키타로(西田 幾多郎)기념철학관

지 않은 자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니시다 키타로는 후자의 속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라 할 수 있다. 한 장소에 머물러 있어도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것으로, 세계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여행이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준 것이 그의 철학이다. 부자는 '철학의 杜, 안의 약간 높은 언덕에 위치한다. 니시다 철학에의 사상의 여행은 이 아름다운 정원을 걷고 배회하며 진행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어프로치로부터 초월하여 바라보게 되는 건물은 풍경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직립한 투명한 유리의 상자와 그 옆에 낮게 깔린 직방체의 유리상자라는 두 개의 단순한 볼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리라는 소재의 다용성(多用途性)이 인공과 자연과의 대비를 부드러우면서도 긴장감을 가진 채 엮어낸다. 전시동으로부터 지하통로를 통해 연결되는 '공의庭'은 4면을 벽으로 에워싸고, 하늘을 향해서만 열려진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어떠한 기능도 갖지 않는 바로 이

공간이 도시의 사상의 체현(體現)을 시도한 이 건물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이다.

▶ ONE 오모테산도(表參道), (설계: 쿠마 겐코 건축설계사무소)

쿠마 겐코(隈研吾)는 오모테산도라는 장소가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가에 대하여 계속 생각해 왔다고 한다. 그가 오모테산도에서 포착한 것은 자글자글거리는 느낌이었다. 그가 맡은 프로젝트는 동일한 그룹의 본사와 그 산하에 있는 4개 부티크의 복합빌딩이었다. 요점은 두가지였다. 하나는 사람이 사는 건물에는 독특한 작은 스케일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그와 같은 스케일의 공간은 아닐까 하는 점이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브랜드가 이너시티브를 갖게 되는 패션업계의 빌딩에서도 건축의 기본이 되는 형식성을 건축가는 주체적으로 발견하여 구축하거나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작은 스케일에 대해서는 공간의 스케일 보다는 자글자글거리는 느낌이라는 것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이와 같은 그의 생각은 건물 입면의 수직의 목재 루버에 표현되었다. 목재의 루버들이 이루어내는 자글거리는 느낌, 그리고 브랜드의 이름이 아니라 이와 같은 독특한 외관에 의해 만들어진 건물의 정체성. 유리 커튼월에 부착된 목재의 루버에는 이와 같은 의도들이 담겨 있는 것이다. (번역/강상훈)



ONE 오모테산도(表參道)

Architectural Review

2003년 10월

■ 공공 건물 특집

이번 호는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에 의해 지어지는 건물을 특집으로 다룬다.



노르웨이는 공적자본으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 일정 수준의 질을 확보하는 정교한 법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공공건물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장려하기 위해 젊은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공모제도를 시행한다. 독일과 핀란드도 모든 주요 건물들은 작품공모를 통하여 작품선정을 하며, 논란을 일으키거나 당시에는 인기가 없는 결과일지라도 우수한 건축가에게 일을 맡긴다. 스티븐 홀의 카이저마 미술관이 그 예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의 경우는 그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공공건축에 있어서 양질의 작품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영국은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라는 제도를 통하여 공공건축의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 정부는 신축 초기부터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자금으로 신축하여 그들로부터 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의 투입은 시설사용시점부터 적용되어 정부 입장에서 매우 저렴한 방법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설계자의 선정도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어 작품선정의 공정성이 지켜지기 힘들고, 따라서 공공성과 지역성을 드러내는 완성도 있는 건물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RIBA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페인의 방식을 또는 기타 유럽의 방식을 자국실정에 맞게 받아 들여야 한다. 대중에게 진정한 건축이 무엇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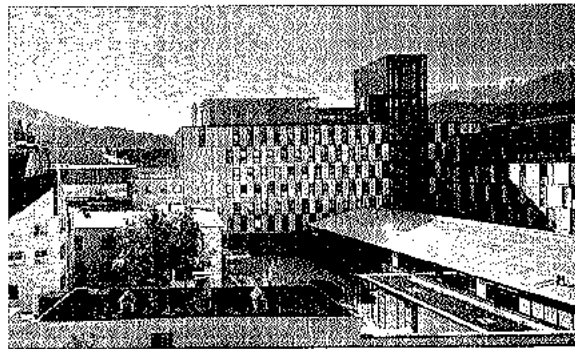


Koen van Velsen의 네덜란드 Media Authority Headquarter

지 보여주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조정되는 상업주의가 생산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전문가집단이 더 좋은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 Koen van Velsen의 네덜란드 Media Authority Headquarter

역설적이게도 첨단 기술과 전자를 다루는 곳이지만 그 건물은 자연과 관계에 있어서 더없이 기깝게 설정되었다. 기존에 있던 수목은 육중하게 캔틸레버로 뻗은 입구 상부의 지붕을 관통하여 자연은 건축의 일부처럼 보인다. 이러한 주제는 건물전체에 걸쳐 반복되는데, 낮게 걸려있는 지붕 매스를 파낸 부분은 아카시아가 식재된 중정이 형성되고 이를 통하여 건물 깊숙이 빛이 유입된다. 투명한 유리 스킨과 알루미늄 골강판은 주변의 나뭇잎들 사이로 투과되는 빛을 부드럽게 반사시킨다. 자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에 항상 변화하는 배경이 된다. 외부의 마감과 대조적으로 중정쪽 벽



Dominique Perrault의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시청

은 조적조위 백색 페인트위에 적, 청, 황의 몬드리안식 색면 구성을 하였다. 이러한 기법은 건물 내부에까지 이어져 시각적 표현이 되는 동시에 방향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 Dominique Perrault의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시청

민간 개발회사와 결합하여 인스부르크의 역사적인 중심에 시청과 상업단지가 복합된 단지로 개발되었다. 이는 구시청인 Altes Rathaus를 보수하고 새로운 시청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이외에 호텔, 쇼핑몰까지 포함한다. 거리레벨의 L자형 쇼핑몰이 구청사, 신청사, 호텔 등의 주요 시설을 연결한다. 유럽의 전통적인 갤러리아가 모델이 되었으며, 구시청사의 후면광장이었던 곳은 유리지붕이 덮여져서 새로운 공공공간으로 마련되었다. 7개층의 신청사는 흩어져 있었던 지역 관청부서들을 한 곳에 다 수용한다. 불투명한 유리 와 투명한 유리가 교대로 반복되어 체크보드 파사드를 이루는 하부 4개층에는 사무실들이 위치하고 그 상부에는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전면창을 가진 회의실이 계획되었다. 지붕도 유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속망이 바깥쪽을 감싼 형태가 마치 건물꼭대기에 새장이 얹혀져 있는 형상이다. 이 금속망은 파사드에도 주요한 표현요소로 사용되었는데 재료의 실험적 사용과 파사드의 겹침을 즐기는 Perrault의 수법을 잘 보여준다. 메쉬를 대나무 발의 현대적 형태로 해석하였는데 호텔의 입면에도 이 스틸 망이 사용되었다. 자유로이 슬라이딩되는 메쉬창은 비정형적 패턴을 만들어낸다.

그 밖에 ▶ Gullichsen Vormala Architects의 스웨덴 스톡홀름 주택 핀란드 대사관 ▶ The Manster Practices의 탄자니아 Dar es Salaam, 대사관 ▶ J.L.Camarasa and AMP Associats의 스페인 Benidorm, 시청 ▶ Toshiaki Kawai의 일본 교토, 보육원 ▶ Shafer-Agather-Sheel의 독일 Hamburg, River and Harbour Police Station등의

시설이 자세히 다뤄졌다.

■ 인테리어 - Groves Natcheva Architects의 런던 Health and Spa Sanctuary

발리의 스파에서 영감을 얻은 Calmia는 모던한 인테리어로도 열대의 스파 분위기를 잘 전달하고 있다. 삼은 1층과 반지하층으로 이루어지는데 음양을 모티브로 하여 두 층이 각각 완전히 다르면서도 보완하는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리에서 보이는 1층에는 스파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며, 그 아래층은 다양한 트리트먼트를 받을 수 있는 방들로 이루어져 있다. 상부층이 밝고 개방된 분위기라면 아래층은 다소 어둡고 미로와 같은 이미지로 꾸며져 있다. 상점층은 육중한 벽체들이 조합되어 마치 조각처럼 공간을 한정하기도 하고 자체가 디스플레이대가 된다. 근대 회화의 선구자인 Ben Nicholson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직각의 구조물은 중성적인 배경이 된다. 이 구조물은 외견상으로는 조적조처럼 보이나 저예산으로 인해 합판위에 4mm 두께의 석고로 대체되었다.

■ ar house- 조병수의 한국, 북포리 주택 인간의 개발과 농경으로 과거가 지워진 평평한 땅에서 건축가는 새로운 구조와 랜드스케이프를 만들기로 했다. 그 결과는 다소 논리적인 이름인 C자형 금속지붕주택이다. 거친 콘크리트 벽과 부드러운 목재 벽 그리고 기단부의 세가지 주요 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종류의 벽은 건축주와 건축주의 장모를 위한 두개의 매스를 형성한다. 그리고 기단부는 두 매스



ar house- 조병수의 한국, 북포리 주택

사이의 공간을 형성한다. 건물은 인공의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어낸다. 마치 바위 더미 위에 세워진 집주위로 수목들이 우거져서 스크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검은 빛의 벽으로 둘러싸인 중정은 다소 아담하면서도 친숙한 분위기인 반면에, 실내 는 밝은 벽으로 인해 밖으로 확장하는 성격을 갖는다. 슬라이딩되는 스크린은 거실과 침실사이에 위치하여 내부공간을 더욱 넓게 확장하여 이용되도록 한다.

Architectural Record

2003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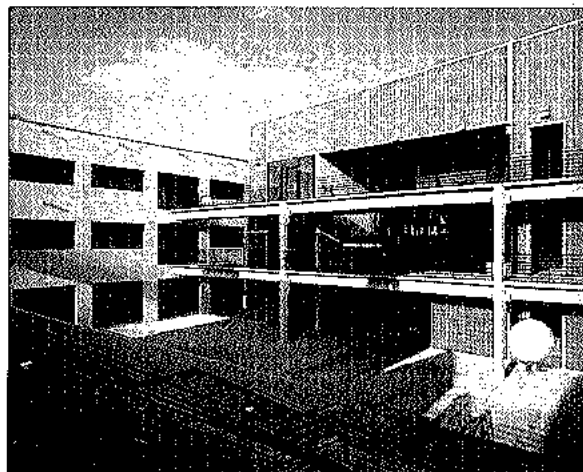
■ 근작소개

▶ Bernard Tschumi의 플로리다 FIU School



일자형의 두개의 건물 사이

에 대담한 색깔의 파빌리언을 끼워 넣은 이 건축학교는 Tschumi가 이전에 설계한 파리의 Mame-la-Vallee 건축학교와 유사한 시스템을 가진다. 두 프로젝트의 상이한 환경적 문화적 컨텍스트에 따른



Bernard Tschumi의 플로리다 FIU School

차이점으로는 프랑스의 건축학교가 세련된 금속제 외장에 내부의 다양한 공간을 조성한 반면, 기후가 좋은 캘리포니아의 이 학교에서는 화려한 세라믹 타일 마감에 다양한 외부공간을 형성하였다. 아트 갤러리와 미디어 센터, 그리고 오디토리움과 옥상정원을 수용하는 2개의 파빌리언을 Tschumi는 '발생기'라고 명명하였다. 그것은 학교의 사회적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주요시설이기 때문이다. 만남의 장소인 '발생기'에서는 발코니와 외부계단으로 이어지는 중정으로 자연스런 조망이 가능하다. 두개의 파빌리언의 북쪽에 디자인 스튜디오가 위치하며 북쪽의 좋은 전망을 향해 전면이 열려있다. 중정 쪽으로는 2.4m 너비의 복도가 형성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사교의 장소로 기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건축학교를 네 개의 동으로 나누어 설계한 것은 아카데미한 마을을 만들고자한 의도이다. 캠퍼스의 다른 건물들이 교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이 건축학교는 타이트하게 각동을 배치하여 좀 더 도시적인 분위기를 전달한다.

▶ Renzo Piano의 로마 City of Music
1994년 Renzo Piano는 오디토리움, 콘서트홀, 영화극장, 상점 그리고 로마의 광의 정원을 포함하는 City of Music의

현상설계 공모에 당선되었다. 사이트는 전통적인 유럽도시의 뻗어있는 조직에서 느슨한 조직의 교외로의 전이지점으로서 주거단지인 Paroli 언덕과 1960년에 조성된 올림픽촌 사이에 걸쳐 있다. Renzo Piano는 형태적 순수성을 강조한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흩어져 있는 도시조직을 단단하게 엮어줄 촉매제 역할을 할 단지를 구상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였다. 단지 계획은 개별 건축물 디자인보다 우선하였으며, 건축물은 반대로 단지계획 개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 되었다. 주 시설인 심포니 홀 앞에는 상점과 카페가 길을 따라 늘어서게 하여 건축적 프로그램으로 가로에 활기를 불어넣는 전략을 취하였다. 유리 지붕과 캔버스 아닝등으로 덮인 이 상업적 산책로는 동쪽 코너의 광장으로까지 이어진다. 부지의 터파기 작업 중 우연히 발견된 4세기경의 빌라의 유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건물의 배치계획은 조정되었다. 아의 유적 전시 영역이 오디토리움 사이에 조성되었다. Piano는 파리의 오페라 센터에서처럼 타블라 라사의 상태에서 작업하지 않았다. 옛것의 연장으로 도시의 일부를 완성시키는 의미로 오페라터, 피자, 콜로네이드 거리 등 고대 도시의 유형들을 빌려왔다.

그 밖에 근작으로서 ▶ Herzog de Meuron의 도쿄 Prada Shop ▶ Open Office Arts+Architecture Collaborative의 뉴욕 Dia:Beacon 미술관 등이 소개되었다.

■ 빌딩유형연구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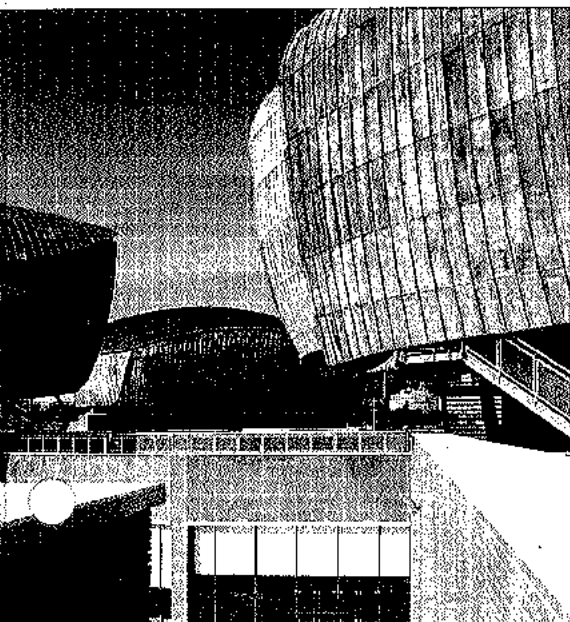
공연장은 각자의 사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연자와 관객으로서 상상의 공간을 공유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공연장 본연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객과 무대사이의 교류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대형 콘서트 홀이라 할지라도 발코니와 박스들과 무대와의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 그러한 교류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런던의

Hamstead 극장과 같이 공연에 따라 유연하게 무대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베를린의 Tempodrum의 경우에는 다양한 규모의 극장이 결합되어 있는 사례이다. 대규모 공연장과 소규모 공연장, 그리고 특이한 경험을 제공하는 수중 감상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리노이주의 Starlight 극장은 개폐가능한 지붕으로 공간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변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관객과 무대와의 긴밀한 관계와 적극적 교류를 위해 고안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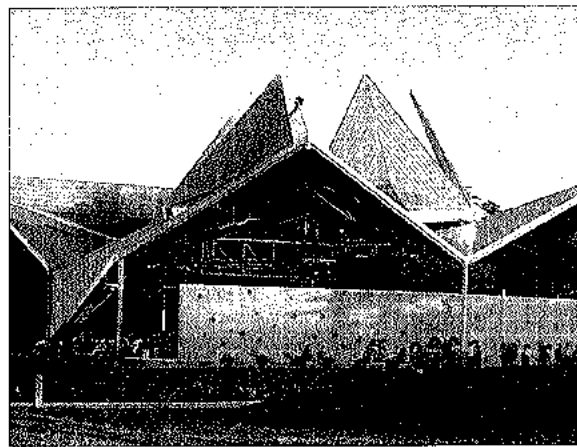
■ 건축기술 공연장 건축기술사례

빌딩유형 연구에 소개된 공연장의 건축기술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런던의 Hamstead 극장은 무대위의 연기자, 작은 목소리까지 관객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복잡하고 비싼 음향장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건축 구조와 마감재의 음향적 고려가 이를 가능케 한 것이다. 나아가 환기방식, 기계, 전기실의 위치 선정, 실의 형태와 재료의 선정 등 모두 최고의 음향 효과를 내기 위해 검토되었다. 관객과 무대와의 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반원형의 객석배치가 유용하나 소리가 한 곳으로 모이는 음향적 단점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의 투명도가 높은 재료로 발코니 벽 마감을 하였으며, 음을 흐트릴 수 있는 오목형태의 패턴등이 사용되었다.

(번역/최원준)



Renzo Piano의 로마 City of Music



일리노이주의 Starlight 극장

200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건축, 건설

▷ 상가 등 분양건축물 분양신고제도 도입

상가의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분양되거나, 허위·과장광고와 분양대금 유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분양신고제도를 도입한다.
(6월 시행)

▷ 점도구역안 토지의 매수청구제도 도입

○현행 : 점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점도 구역안에서는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등의 신축·개축·증축 제한
○개선 : 고속도로 매수청구권제 도입으로 점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 관리청에 매수청구 가능
- 도로의 관리청은 매수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매수대상여부와 매수예상가격을 청구인에게 통보

○도로법 개정중 (04. 7월 시행예정)

▷ 다중이용업소방시설설치신고제도 도입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려면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월30일 시행)

▷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규모 확대

지방 중소기업의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의 규모를 현행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한다.
(1월 시행)

▷ 10년단위주택종합계획 수립·시행

○현행 : 1년 단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시행

○개선 :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단위 장기계획인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수립·시행

○주택법 개정 (03. 11. 30)

▷ 최저주거기준 도입

○개선 :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주택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주택법 개정 (03. 11. 30)

▷ 공동주택관리제도 강화

○현행 : 시행령에 규정하여 추진
○개선 : 공동주택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안전점검, 분쟁조정위원회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제도 강화

○주택법 개정 (03. 11. 30)

▷ 공동주택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절차 및 지원강화

○현행 : 기준·절차 등 미비
○개선 :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근거 마련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조합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함

○주택법 개정 (03. 11. 30)

▷ 주택사업계획승인제도 강화

○현행 :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주체의 범위에 건축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계획승인절차 적용에 혼란 야기
○개선 :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에 건축업상 건축주를 포함시키도록 명문화
-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단의 주택단지를 20세대 미만으로 소규모 분할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됨

○주택법 개정 (03. 11. 30)

▷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승인권 한 시·도에 미양

○현행 :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인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에 위임

○개선 :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업승인권한 일부를 시·도에 미양

- 종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인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미양

* 국가·주공·토공의 시행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암대상에서 제외

○주택법 개정 (03. 11. 30)

▷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건설기준 적용 근거 마련

○현행 : 전국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주택건설기준에 적용
○개선 : 지자체는 당해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행정 실현이 가능

▷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권한 시·도에 미양

○현행 :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시·도지사에게 지정권 위임)

○개선 :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시·도지사가 지정(건설교통관이 승인하는 경우도 포함)

○주택법 개정 (03. 11. 30)

▷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자격 강화

○현행 : 주택 1천세대이상 : 감리사 이상

○개선 : 주택 1천세대이상 : 수석감리사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감리사보, 감리사, 수석감리사 3단계로 구분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 (03. 12. 15)

▷ 주택건설공사중 감리제외 공사기간에는총괄감리원 배치 제외

○현행 : 주택건설공사 전기간에 걸쳐 총괄감리원 배치

○개선 : 주택건설공사의 전체 공사기간 동안은 총괄감리원을배치하도록 하였으나, 75개 공정중 도배, 조경, 도장등 경미한 13개 공정이 다른 공사와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괄감리원의 배치를 제외시킴

○주택법시행령 제26조 (03. 11. 30)

▷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전매금지

○현행 :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만 사업승인대상이므로 청약자격 제한 및 투기과열지구안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

○개선 :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현행처럼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제한,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금지 적용

○주택법개정중 (04. 3월시행예정)

▷ 주택거래신고제(주택법 개정, 2004년 3월 시행)

- 투기지역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액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또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현행처럼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 재건축조합원 자격이전 제한

○현행 :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재건축 조

합원 지위양도 및 증여가 자유로움

○개선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

- 조합은 주택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조합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중 (04. 1월 시행예정)

▷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의무 강화

개문발차방지장치 등 3종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현재의 다중이용 건물에서 15층 이하의 모든 건물로 확대한다.(1월 시행)

▷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대상공사 확대

○현행 :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전자통보를 함

○개선 : '04. 1. 1부터는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공사를 전자 통보하도록 확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04. 1. 1)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적용 대상공사 확대

○현행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공사예정금액 50억원이상 공공공사, 5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를 의무가입대상으로 함

○개선 : '04. 1. 1부터는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공공공사, 300호이상 공동주택 공사, 1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공사로 확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04. 1. 1)

세금

▷ 1가구 1주택 요건 강화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지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 1가구 3주택 양도세 종과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7대도시와 경기도의 1가구 3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종과한다.

- 또 투기 지역 내 1가구 3주택자에게는 양도세 탄력세율 15% 포인트와 주민세 10%가 추가돼 최고 8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단, 내년에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면 1년간 유예한다.

▷ 증여·상속세 기준 강화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마련한 돈으로 산 주식이나 땅 등 재산이 5년 이내에 상장이나 형질 변경 등으로 가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 임대주택 양도세 종과 제외 요건 강화

10.29 부동산 대책 발표 전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라면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종과대상에 제외되지만 10.29 대책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 양도세 비과세 놓여준 주택 범위

연면적 45평 이내(아파트 전용면적 35평 이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 소액고지서 일반우편 발송

50만원 미만 소액 고지서는 등기우편

이 아닌 일반우편도 가능하다.

▷ 비상장주식 평가기준 개정

순이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3:2로 두고 산술평균 하되 부동산 과다 법인은 비율을 2:3으로 산정한다.

▷ 장기주택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강화

소득공제 대상 대출의 만기를 10년이 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원금 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이자 비용 1천만원까지 허용한다.

▷ 자원봉사 소득공제 요건 확정

자원봉사 인건비를 일당 5만원으로 평가한다.

▷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경비 인정

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락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총 급여의 10% 초과액의 20%, 선불카드와 직불카드 및 지로납부금의 소득공제율도 총급여의 10% 초과액의 20%로 조정된다.

▷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

현재 총급여의 3% 초과액 가운데 500만원까지만 인정되는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본인의 경우 폐지, 가족의 경우 500만원까지이다.

▷ 아파트 리모델링 부가가치세 면제

아파트 리모델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사교성 접대비 비용인정 제한

기업들이 사교성 접대를 할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 기준 금액과 입증 방법은 내년초 국세청장 고시로 정하기로 했으나 1건당 30만~5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 접대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접대 담당 임직원과 상대방에 관한 인적 자료, 접대의 업무 연관성 등을 담은 소명 자료를 만들어 세무조사 때나 세무 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해야 한다.

▷ 고액채납자 금융자산 일괄조회

부동산 투기혐의자와 세금을 500만원 이상 채납한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지금도 고액 채납자나 투기 혐의자들에게 대해서는 과세 당국이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특정 점포로 제한되기 때문에 조회 대상자가 여러 은행의 여러 점포에 계좌를 갖고 있을 때에는 은닉 재산 적발과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웠다.

- 내년부터는 각 금융기관의 본점에서 해당 채납자나 투기 혐의자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 전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돼 세금 채납자와 투기꾼 단속이 쉬워진다. 아울러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채납한 사람의 명단이 공개된다.

금 융

▷ 모기지론 도입

내년 3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만기 10년 이상에 고정 금리 모기지론 제공.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간 단축

2년에서 1년으로

▷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

이자소득세 면제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가입 대상이 내년부터 가구주로 한정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초 올해말까지 한시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06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가입

대상이 제한된다.

- 이제까지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소유자는 가구주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었다.

환 경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환경영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 생태와 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추가했다.

▷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특정도서 지정시 무인도서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이고 정부가 특정도서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단을 강화했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해 이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위수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리시설의 오염도 측정결과와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 환경영향평가 서류 공개 의무

주민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7월 1일 시행)

▷ 생활소음규제 완화

발파소음이나 진동의 경우, 낮 시간에 한해 규제기준을 10dB 완화한다. 낮시간 주거지역이라면 70dB에서 80dB로 완화된다. (1월 1일 시행)